

월간 중국

月刊 中國



清晨的杭州西湖
—浙江省

Vol.36
2024. 0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大韓民國市道知事協議會 中國事務所

2024
창덕궁 달빛기행
MOONLIGHT TOUR
AT CHANGDEOKGUNG PALACE

- 행사기간 Event Period ●
2024년 4월 11일 - 6월 2일
- 행사시간 Event Time ●
1부 19:20 / 19:25 / 19:30
2부 20:00 / 20:05 / 20:10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 <https://www.chf.or.kr> 문의 | 궁능 활용프로그램 콜센터 1522-2295

Human-Centric Tech,

SEOUL SMART LIFE WEEK

2024. 10. 10. (목) - 10. 12. (토)
COEX B2 Hall, C Hall

Connect To A Better Life



한중 지방정부 교류협력의 종합정보지

월간
중국
月刊 中國

Vol.36
2024 05



표지
항저우 서호의 새벽 풍경
清晨的杭州西湖 - 浙江省

•발간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베이징)
•편집위원:
김응수, 이미선, 강미령,
윤 선, 이나연
•문의처:
(+86) 010-8531-0765
msli10@mofa.or.kr
•주소:
中国北京市朝阳区东方东路20号
(100600)
驻华大韩民国大使馆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大韓民國市道知事協議會 中國事務所

I. 한중 지방교류 중계

1 [교류소식]	4
2 [오피니언 리더]	12
3 [교류 논단]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의 문화 발전 현황: 민족적 복합성을 중심으로	18
4 [기관탐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한·중 간 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	26

II. 중국 인사이트

[중국 지방정부 탐방 - 저장성]	
혁신의 도시 - 저장성과 미래 공유	34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연구재단/KIC중국, 2024중관촌포럼-한중과학기술산업혁신 포럼 개최	40
[세미나 지상중계] 2024년도 상반기 한중농업포럼(제29회) 2024년도 중앙1호문건과 농업농촌경제 전망	44
[권오신의 '중국 행사 사용 설명서'] 게스트(guest)와 호스트(host) 사이에서 ⑤	48
[김재훈의 위버멘쉬]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현재	56
[윤규섭의 중국주유열국] '열하일기(热河日记)'를 따라가는 북경 문화유산 답사 유리창(琉璃厂)	62
[김준범 총경리의 WOW CHINA] 홍콩 국가 안전 조례(香港国安条例) 발효 후, 홍콩 방문기	71

III. 중국 정책 동향

중국 정책 동향	78
----------	----



I. 한중 지방교류 중계

- 교류소식
- 오피니언 리더
- 교류논단
- [기관탐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한·중 간 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

中韩合作交流會
한·중 협력 교류회

自治道政府
별자치도

展促进会
전 촉진회

Shangri-La Shenzhen

I 世界舞台上的全北特别自治道

03 全北特别自治道成立

“2024.1.18. 全北特别自治道成立”

全新的全北, 特别的机会

- 可以自主决策
- 保障高度自治

韩国的试验台

- 在其他地区不可能的事情也可能
- 利用特殊条例实现创新政策

尖端试验台的前沿基地

农业生活	指定为农业生活	环境	被指定为生态友好型山地旅游振兴区
人力	与移民相关的特	金融	被指定为全北金融科技开发区
产业	培育氢二次电	教育	国际韩国流行音乐学校
文化	被指定为文化产	福利	被指定为高龄者友好产业园区

시도협 중국사무소, 주중 재외공관 사절단 지방행 행사 참가



시도협 중국사무소는 지난 4월 21일 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 주최로 하이난성 일원에서 개최된 주중 재외공관 사절단 지방행 행사에 참가하였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세계와 손을 잡고 재출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지방행 행사에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반적인 상황, 발전 추세, 우대 정책, 핵심 산업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현장 시찰을 통한 지역 우수산업 홍보 및 세계 각국 재외공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하이난성 지역 산업과 국제 간 협력의 창을 제공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시도협 중국사무소 김응수 소장은 하이난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매도시로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한 이해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전하였다.



CLAIR(일본국지자체국제화협회) 베이징사무소 예방



지난 4월 19일 시도협 중국사무소는 CLAIR(일본국지자체국제화협회) 베이징사무소를 방문하였다.

CLAIR 치카마츠 시게히로(近松 茂弘)소장을 만나 오는 10월 한국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8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구시-중국 청두시, 내년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맞아 신공항 건설 등 우호 협력 강화



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스샤오린 중국 청두시 당 위원회 서기와 만찬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대구를 방문한 스샤오린(施小琳) 중국 쓰촨성 당 위원회 부서기 겸 청두시 당 위원회 서기와 청두에서 다시 한번 회동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외 27개 자매우호협력도시와 실리적·전략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교류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인 중국 청두시를 방문했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의 핵심 전진기지로서 중국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인문과 신기술을 결합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에게 ‘판다와 유비의 축나라 수도’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는 청두시와 2015년 11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고위급인사 상호방문과 무역사절단, 물, 환경 등 경제·산업을 비롯해 문화·예술, 교육 분야까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 지도자 간 상호방문을 통해 최근 대구시와 청두시가 교류를 집중해 온 신공항 건설,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청두에 대구 해외사무소 개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내에 대구-청두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고, 내년 청두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아 해 대구FC와 청두 룽청FC 간의 친선 축구 경기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스샤오린 당 위원회 부서기의 중국 내 행보에 축원과 자매도시인 청두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브릿지경제 / 송지나 기자(2024.4.28)

유정복 인천시장, 청두시와 우호협력 강화... APEC 개최 인천 '최적' 알려

-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 탄소중립 비전·성과 공유
- 청두 스샤오린 서기 만나 우호도시 상생발전 나뉨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국제 사회에 인천의 저탄소 녹색 정책 등을 소개하며 관심을 받았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청두시의 초청으로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에 참석해 인천의 탄소중립 비전과 성과를 세계 도시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26일 중국 청두시에서 스샤오린 청두시 당서기를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 한 뒤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청)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은 2016년 6월 창설돼 매해 세계 30여 개국 시장, 부시장 등이 참석해 혁신, 협력, 경제, 도시발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세계 19개국 21개 도시의 시장,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발전, 미래창조’를 주제로 이달 26~27일 이틀간 열렸다.

유시장은 이 자리에서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을 소개하며 화력발전 무탄소 발전 전환,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탄소중립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추구하는 3대 목표 중 하나로, 인천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 도시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유시장은 또 포럼 연계 행사인 청두세계원예박람회에 참가해 청두시에 1500㎡ 규모로 조성된 인천 정원을 방문했다. 인천정원은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문화의 길을 통해 세계 10대 도시로 비상하는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된 팔미도 등대와 인천시 심볼을 물결 모양으로 상징화해 조성됐다.

이어 유시장은 청두 스샤오린(施小琳) 서기를 만나 양 도시간의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청두시 간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이후 다시 만났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청두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바이오, 물류 등 미래첨단산업 발전 기반을 보유했다는 공통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더욱 공고한 우호관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에 스샤오린 서기는 “인천 방문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가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도 양 도시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출처: 천지일보 / 김미정 기자(2024.4.29)

인천식품기업 2024년 K-SEAFOOD 중국 칭다오 무역상담회 참석, 수출 3.7억원 달성



주중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이하 인천대표처)는 지난 4월 17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 주최하는 ‘2024년 K-SEAFOOD 중국 칭다오 무역상담회’에 인천식품기업 9개사와 함께 참가하여 3억 7000만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무역상담회는 바이어들과 수출업체 간 직접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인천대표처는 부산 및 군산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처와 같이 이번 무역상담회에 참가하여 제품 전시와 함께 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중국 바이어의 눈길을 끌었다.



인천대표처가 운영한 ‘인천관’ 부스에는 인천 유망 식품기업들의 제품들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인천대표처의 지원으로 올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주)행복찹쌀떡의 홍경호 대표가 직접 상담회에 참석하여 중국 내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인천대표처는 박람회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의 제품까지 포함된 온라인 홍보 브로셔를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등 인천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대표처 송선임 수석대표는 “이번 무역상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성과를 얻어 매우 기쁘며, 인천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넥타이 풀고 다시 만나자” 김동연 약속지킨 하오핑 中 랴오닝성 당서기

- 김 지사 요청으로 방한한 하오핑 당서기...교류협력 심화 합의 서명
- 6월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 공식 초청
- 농업과학기술교육 및 대학 교류 협약 추가 체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중국 하오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가 6개월 여 만에 재회했다. 지난해 10월 김 지사가 중국 랴오닝성 방문 당시 “넥타이 풀고 만나자”던 약속을 하오핑 당서기가 지킨 것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4일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하오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지난 24일 수원동담거리 한 치킨집에서 치맥을 함께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서 간담회를 갖고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서명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비공식 일정으로 수원 동담거리를 찾아 담소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층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오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담소 간담회에서 두 사람은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협력 확대 △제조·과학



지난 24일 오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오른쪽)와 하오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기술혁신·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교육 교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도 맺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쉰이귀민(隋國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콩 등 작물의 재배·방제 기술, 농산물·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형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맺으며 학생·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 이민호 기자(2024.4.25)

전북자치도-중국 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맞아 돈독한 우정 다져

- 김관영 지사, “상호 협력사업 확대 가능성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등 전북 대표단은 8일 오후 중국 현지에서 장쑤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고 돈독한 우정을 다졌다. 사진제공=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장쑤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돈독한 우정을 다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 의회 의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전북 대표단은 이날 중국 교류지역인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으로는 처음이다.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은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김 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신창성 장쑤성 당서기,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 동안 양 지역이 나누는 우정을 기념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장쑤성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성 당서기를 만나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쉬쿤린 장쑤성장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는 분야들을 발굴해 상호 협력에 나서자”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개최했고 경제, 체육, 문화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전북일보 / 김영호 기자(2024.5.9)

김관영 전북지사 “세계한인비즈니스 전북대회 성공개최 위해 준비에 만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10월 전북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인경제인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8일 전북자치도 외교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준비 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은 전북자치도가 전주시를 비롯해 관계부서, 출연기관 등과 함께 20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기업 전시관 구축과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공연프로그램과 투어프로그램, 자원봉사와 교통, 안전과 의료, 환경과 위생관리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더욱이 대회 준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달 1차 점검회의에서 발굴된 미비점을 보완해 이달 내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무회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참여하는 정기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 실무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 등을 위해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호평받은 데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전주로 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전북자치도에서 열리는 대회는 케이(K)-컬처의 맛과 멋, 창의와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운영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맞이할 것”이라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피력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 김성아 기자(2024.5.8)

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

- 체결식 후 선양 및 베이징 한인 사회 방문, 간담회 개최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있는 경북도와 랴오닝성간 우호도시 교류 협정 체결식. (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李乐成)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양 지역 간 교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했고,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격상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협정서에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담아 경제적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양 지역의 교류가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시기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와 다렌시가 경북도에 구호물품을 보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보탰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으로 동북 3성 GRDP의 50%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가 랴오닝성 다렌시에 소재한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 동북 3성 :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또한, 동북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위해 설립된 동북 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6개국 81개 회원단체) 의장국(임기 2년)으로 지난해 10월 선출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이 지난 15일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환담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리러청 성장은 “오늘 랴오닝성과 경상북도가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에 이철우 도지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 지역이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생 발전하고 우정이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랴오닝성은 허난, 산시, 후난,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에 이어 경북도의 여섯 번째 중국 친구가 되었다.”라며, “경북도는 랴오닝성과 통상 교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한·중 지방정부 간 모범적인 교류 협력 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4월 16일 베이징 한식당에서 베이징 교민 및 유관기관장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체결식이 끝난 후 다음날인 4월16일, 선양과 베이징에서 교민 및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오전 11시에는 선양에서 오찬 간담회를, 오후5시에는 베이징에서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베이징 한인사회에서는 북경한국인회 박기락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포스코차이나 송삼용 사장을 비롯한 한국기업 대표들, 코트라 황재원 중국본부장을 비롯한 재중국 한국기관장들 총17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함께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임병진 사무총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유대인이 있는 나라수 보다 한국인이 있는 나라수가 더 많다. 한국인은 192개 나라에 나가있다. 유대인들은 어느나라에 살든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민족의식이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래전 한국은 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류로 인해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한국인은 당당하고 전세계인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한다. 이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GDP 3만불이 넘는 나라는 7개국이며, 우리나라도 속한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4번째이며 강대국이 됐다. 그런데 앞으로 저출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소멸될것이

다. 경제적으로는 정체기에 들어섰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가진 개척정신을 고국에 불어넣어주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해외 교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기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속에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관계자분들과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와 북경한국인회가 좋은 인연 만들어 가면서 함께 상생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중 이지사는 한국음료 수입 업무를 하고 있는 박기락 회장과 김병권 자문위원에게 안동소주를 중국에 많이 수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경상북도 우수상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경한국인회 정국환 상임부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위층 정치지도자 중 한 분으로 중요한 도정과 대한민국의 현안 사항을 설명해주셔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 도내 기업을 위해 열심히 홍보하시는 세일즈 외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또 참석자들은 "우리도 여기서 경상북도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진행한 경상북도 관계자는 "선양과 베이징은 조선시대 실학사상이 싹튼 곳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시대이며, 경상북도는 신(新)지방시대를 열어가는 큰 구상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각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남영숙 의원은 "베이징에서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북경한국인회 임원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더 나아갈수 있도록 베이징의 교민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시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경상북도의 슬로건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을 것"이라며 "경상북도도 북경한국인회를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제화된 세계에서 정부만의 외교를 넘어 지자체

차원의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북은 특히 해외교류에 적극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해외교류에서 한국교민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도 하지 않던 교포 2세들을 초청해서 정체성 교육을 하는 K디아스포라를 시작했고, 해외교민들을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으로(42개국 118명) 위촉하여 경북의 해외교류에 힘을 보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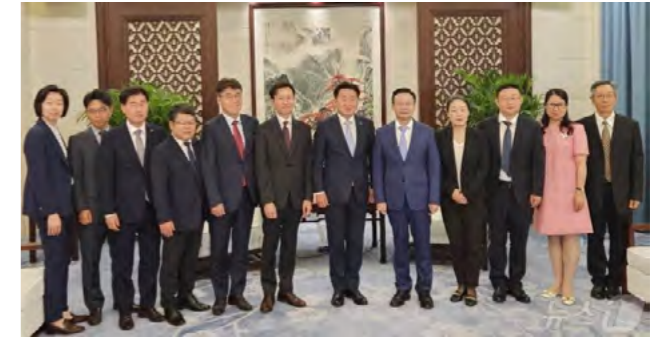
오영훈 제주지사, 중국 광둥성에 신산업 동반자 제안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중국 광둥성정부를 찾아 장신 부성장을 만나 신산업을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적 관계를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오후 광둥성정부를 방문해 직항노선 확대, 자율주행 및 그린수소 등 신산업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6월 예정된 제주 그린수소포럼 참석을 제안했다.

당샤오펍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 내 경제규모 1위로 올라선 광둥성(广东省)은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를 모두 앞지른 중국 최초의 성이며, 특히 IT산업 제조기지로서 첨단기술이 발달한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이다.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광저우와도 제주 직항이 연결돼 더 많은 광둥성 시민들이 제주를 찾을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수소와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찾아 미래를 설계하고, 실무적으로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영훈 도지사 등 제주도 방문단이 9일 오후 광둥성정부를 찾아 장신 부성장 등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주도 제공)/뉴스1

장신 광둥성 부성장은 "광둥성과 제주도 간 교류협력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광저우시와 선전시에서도 그린수소포럼 방문단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출처 : 뉴스1 / 고희명 기자(2024.5.1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출처_ 이투데이 / 오피니언 (2024.5.2)

작년 10월 독일 뮌헨 모빌리티 전시회부터 올해 3월 제네바 모터쇼와 최근 베이징 모터쇼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비야디·지리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전시관이다. 미국·독일·한국·일본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의 성장속도와 생산방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경영진과 연구원 1200명 규모의 출장단을 베이징 모터쇼에 파견한 것도 그런 이유다.

가성비와 디자인 경쟁력까지 구비한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시장 공습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드는 ‘전기차 캐즘(Chasm)’이 나타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은 미국과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중동·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中 전기차 기업간 치킨게임 격화

비야디는 2030년까지 유럽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80만 대 목표 아래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판매대리점 개설을 시작으로 신규공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필두로 태국·인도·헝가리·브라질로 신규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규제 회피 목적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 또한 유럽공장 신설에 이어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고, 홍콩증시에 상장된 샤오펑 전기차는 이집트·요르단·UAE 등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판매대리점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화 배경은 크게 2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도 내수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태에서 점차 캐즘 현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23년 중국내 순수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4.6%로 전년 66.8%에서 줄어들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 증가율은 84.7%로 전년 138.4%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난립과 함께 화웨이·샤오미 등 대표적 혁신기업들이 전기차시장에 뛰어들면서 심각한 출혈가격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HSBC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이 400여 개에 달하고, 작년 한 해만 100여 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었다. 중국 기업데이터 조사기관인 ‘치차차(企查查)’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기차 포함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 수가 92만 개가 넘는다. 결국 중국 전기차 기업 간 치킨게임이 본격화되자 글로벌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삼양’ 정책에 기반한 수출지원정책이다. 신삼양은 중국정부가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전기차·태양광패널·배터리의 3대 새로운 수출품목을 의미한다. 2023년 중국 전체수출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도 바로 신삼양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미국제재와 글로벌 시장침체에 따라 전기차 수출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2월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전기차 수출을 지원하고 절차를 최소화하는 ‘전기차 무역협력 및 발전을 위한 의견’ 정책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4월 25일 개막한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현대차관에 전시된 아이오닉 5 N. 뉴시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습이 가속화되자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 낮은 금액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벌적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특히,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전기차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성비 앞에 美자동차 ‘멸종’ 우려

미국은 우회수단으로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가성비를 갖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멸종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 굴기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가능성을 조사중에 있다.

올해 들어 미 의회 차원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제재 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기업의 자동차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100% 인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자동차 산업보호법안’을 발의했다.

美, 산업보호 법안 등 대응 강화

한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전기차 규제 목적의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전기차도 중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세혜택을 못 받게 하는 ‘자동차관세 허점폐지법’, 둘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차(중국 내 생산 및 중국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제조된 차량)에 대해 2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자동차 관세강화법’, 셋째 IRA 규정상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북미 생산’에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노동기준 준수’로 수정하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보조금법’이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습이 가속화될수록 미·중 양국 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출혈경쟁과 미중 간 대립 속에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야디의 한국시장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와 함께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정책자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 중에 있다.

2023년 중국 법원 지적재산권소송 10대 사례 소개

출처: 송성철(중률클로수사무소 변호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정책자문관) 제공

1. 들어가며

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날(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이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줄여서 WIPO)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해당 협약은 1967년 7월 14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체결되어 1970년 4월 26일에 발효되었다. 그리하여 매년 4월 26일은 세계 지식재산권 날로 지정되었다.

2. 2023년 중국 법원 지적재산권소송 10대 사례 소개

매년 ‘4.26’ 지적재산권날을 맞이하며 중국 전역의 법원들에서 자신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지적재산권 소송 중 전형사례를 엄선하여 공표하곤 하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 새로운 영역 또는 업종에 관련된 사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례 등은 최고인민법원의 10대 사례에 수록되기도 하며 10대 사례는 “풍향계”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2023년 중국 법원 지적재산권소송 10대 사례와 50대 전형 사례에는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 신품종, 불공정경쟁 및 독점 방지 등 지적재산권 유형을 포괄하며 핵심 기술 혁신, 국내외 유명 브랜드, 디지털 경제, 농업중자산업 등 많은 새로운 시대의 핵심 분야와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10대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중국)유한회사와 닝보치○전기유한회사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최

고인민법원 (2022) 最高法民老312号 민사판결문] (SIEMENS 상표권 침해 관련)

2. ○와이너리와 난징 ○와이너리 유한회사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최고인민법원 (2022) 最高法民终313号 민사판결문](와인 브랜드 LAFITE, CHATEAU LAFITE ROTHSCHILD 상표권 침해 관련)

3. 북경○과학기술유한회사와 국가지식재산권국, ○컴퓨터무역(상하이)회사의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소송 사건[최고인민법원 (2021) 最高法知行终556号 행정판결문](안면인식 기술 발명특허 무효 행정소송 관련)

4. 랴오닝단○모종과학기술유한회사, 링하이시 농○종업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 칭다오옌○농업기술발전유한회사 식물신품종권 침해 소송사건[최고인민법원 (2022) 最高法知行终2907号 민사판결문](식물신품종 권리침해 관련)

5. 북경사○과기주식회사와 북경백○과기주식회사 등간의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21) 京民终421号 민사판결문](네비게이션 지도 저작권 침해 관련)

6. 북경웨이○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와 광저우젠○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 등 간의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광둥성고급인민법원 (2022) 粵民终4541号 민사판결문](데이터 권익 침해 관련)

7. 류○생, 류○의 저작권 침해 범죄 형사사건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 (2023) 沪03刑初23号 형사판결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8. 난징한○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와 제○제약(장쑤)유

한회사의 기술비밀 침해 소송 사건[장쑤성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2019) 苏01民初3444号 민사판결문](의약품 원료 기술비밀 침해 관련)

9. 샤오○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와 천○, 선전시 원○과학기술유한회사 불공정경쟁소송 사건[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23) 浙03民初423号 민사판결문](인공지능 음성 호출어 관련)

10. 선전시팅○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 텅○과학기술(선전) 유한회사 등과 베이징 아이○과학기술유한회사의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텐진 자유무역시험구 인민법원 (2022) 津0319民初23977号 민사판결문](어플리케이션 미성년자 모드 불공정경쟁 관련)

이상 10대 사례 중 필자의 관심을 끈 비교적 독특하고 새로운 영역의 사건들이 보여 이 몇가지 사례들을 본문을 빌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5번 사례: 네비게이션 전자지도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

북경사○과기주식유한회사 (이하 ‘S사’) 와 북경백○과기주식유한회사(이하 ‘B사’) 등의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분쟁 사건[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21) 京民终421号 민사판결문]

사건 요약 : S사는 2002년부터 전자지도의 연구개발 및 홍보를 시작하여 15Q4 인터넷 전자지도와 16Q2 인터넷 전자지도(이하 ‘권리지도’)를 창작하였다. 2013년, S사는 B사 등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B사 등이 2016년 말까지 권리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S사는 B사 및 그 계열사가 계약만료 후에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바이두지도”, “바이두CarLife”, “바이두네비게이션” 등 6개 어플리케이션에서 권리지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네비게이션 전자지도를 사용하여 S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공정경쟁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B사 등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네비게이션 전자지도가 S사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B사와 그 계열사에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6,450만 위안과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비

용지출 92만 위안 이상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B사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권리지도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도형작품에 해당하며 방대한 지도 데이터에 대하여, S사가 입증한 30개의 표기, 125개의 내부 도로, 47개의 해양 확장 행정 구역 지도 및 44개의 모식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B사와 그 계열사가 ‘합작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운영 중인 6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권리지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네비게이션 전자 지도를 사용한 점이 명확하기에 S사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전형적 의미: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본 사건은 네비게이션 전자지도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로 네비게이션 전자 지도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도형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네비게이션 전자 지도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방대한 지도 데이터의 실질적인 유사성 비교에 대하여 연구와 탐색을 진행하여 디지털 경제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사법 심판 실무에 중요한 참고사례를 구성하였다.

6번 사례: “데이터”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

북경웨이○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이하 W사)와 광저우젠○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이하 J사) 등간의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광둥성고급인민법원 (2022) 粵民终4541号 민사판결문]

사건 요약: W사는 sina wibo의 경영자로서 J사가 악의적인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서버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대량의 웨이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및 판매하여 불공정경쟁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J사가 불공정경쟁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손실 2000만 위안과 권리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지출 272,68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우선 W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웨이보 데이터에 대해

자체적으로 통제 및 합법적으로 사용 및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 다음 J사는 IP주소 변경, UID(사용자 계정)변경 등 기만적인 기술 수단으로 웨이보 서버 API를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대량의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였고 별다른 처리 없이 불특정 인터넷 사용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웨이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대체될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켰을 뿐만아니라 더욱 엄중한 것은 사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기타 데이터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공정성, 신의성실 원칙 그리고 상업도덕을 위반하고 데이터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고 W사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기에 불공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불공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J사가 취득한 요금 기준으로 그의 불법적인 수익은 2179.79만 위안에 달하여 불법 침해 행위의 지속 시간, 데이터 사용 수량 규모, 손해 결과의 엄중성 등에 따라 W사의 배상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여 J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전형적 의미: 본 사건은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거래 및 재판매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판결을 통하여 데이터 권익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데이터의 ‘질서 있는 유통’ 사이의 균형 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권익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업체들이 데이터를 적법하게 획득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심판 실무 지침을 보여준다.

9번 사례: ‘小爱同学’ 호출어 관련 불공정경쟁 분쟁 사건

샤오오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이하 M사)와 천오, 선전시원오과학기술유한회사(이하 Y사) 불공정경쟁 소송 사건[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23) 浙03民初423号 민사판결문]

사건 요약: M사는 2017년 7월 호출어가 ‘小爱同学’인 첫 번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였고 그 후 휴대폰, TV 및 기타 제품에 ‘小爱同学’ 호출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음성 상호 작용 엔진을 탑재

했다. 천오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에 총 66개의 ‘小爱同学’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그 후 M사의 계열사에 변호사 서한을 보내 ‘小爱同学’ 상표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Y사와 협력하여 스포츠 시계, 알람시계 등 상품에 ‘小爱同学’ 상표를 사용하였고 제품 홍보 기사까지 공동으로 게시했다. 이에 M사는 천오와 Y사의 행위가 불공정경쟁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小爱同学’가 이미 널리 홍보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영향력을 갖춘 호출어 및 인공지능 음성 상호 작용 엔진의 이름 및 인공지능 음성 상호 작용 엔진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등 상품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불공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천오는 ‘小爱同学’ 등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고 M사 계열사에 ‘침해행위 중지’ 내용의 변호사 서한을 발송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혔고 M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으며 불공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규정된 불공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천오와 Y사는 ‘小爱同学’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광고 정보를 게시하여 혼동 및 허위 광고 등 불공정경쟁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즉시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과 천오는 M사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지출 120만 위안을 배상하고 Y사는 그 중 25만 위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것을 판결하였다.

전형적 의미: 본 사건은 인공지능 음성 호출어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로서 본 사건의 판결은 특정 영향력을 가진 호출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에 속함을 판시하였으며 타인의 호출어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기술 혁신 기업의 브랜드 평판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준다.

3. 10대 사례 공표가 가지는 의미
‘4.26’ 지적재산권날을 맞이하여 공표한 2023년

중국 법원 지적재산권소송 10대 사례 및 50대 전형 사례는 아래와 같은 사법 관행 및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법원은 보호를 강화하고 법치의 힘으로 혁신과 창조를 보호할 것이며 특히 식물 신제품 침해 사건은 여러 차례의 불법행위를 진행하고 중복침해 및 고의성이 명백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농업 과학 연구자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일 것이며 기술 비밀 침해 사례는 전통 약재의 기술 비밀의 식별과 기술 비밀의 불법 사용에 대하여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 중국 전통 의학의 유지와 혁신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중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어플리케이션 ‘미성년자 모드’의 불공정경쟁 분쟁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의무 및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 및 새로운 분야의 재판 규칙을 탐색하고 새로운 경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및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사회 생활 규칙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어 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신기술에 대한 요해, 장악과 새로운 사고의 이중 시험에 직면해 있다. 올해 발표된 사건은 네비게이션 전자지도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불법 데이터 수집 및 재판매와 같은 새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재판 규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권리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경제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네 번째는 외자기업을 내자기업과 평등하게 보호함을 강조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멘스’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사건, 와인 브랜드 LAFITE, CHATEAU LAFITE ROTHSCHILD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사건 등에서 법원은 법

에 따라 국내 및 외국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외국 유명 브랜드에 편승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외국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법하게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에 적시에 대응할 것이다.

다섯번째는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의 권리 체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서 범위가 광범위 한 바, 권리 심사 및 승인, 행정관리, 사법 보호로부터 중재 및 조정, 업계 자율, 대중 신의성실 등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는 보호체계를 최적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발표된 사례 중에는 행정, 사법 연계 사례도 있고 법원과 검찰원이 협조한 사례도 있다. ‘안면 인식’ 발명 특허권 무효와 관련된 행정 분쟁 사건은 특허 무효 행정 절차에서 권리 요구의 수정 범위, 수정 방법 및 수정 목적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행정집법 기준 및 사법 판단 기준의 통합을 촉진하였으며 ‘长高电新’ 상표 악의적 소송 (50대 전형사례 중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제5부분 6번 수록) 에 대한 사법적 처벌 사건에서 법원은 지적재산권 권리 남용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악의적인 지적재산권 남용 혐의 단서를 검찰원에 전달하여 검찰원이 법에 따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검찰 제안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본문내용 출처: “2023년 중국법원 지적재산권소송 10대 사례 및 50대 전형사례” 중국법원망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24/04/id/7908564.shtml>



송성철
(중문변호사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중국정법대학 법학학사 및 법학석사, 일본법정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고 중국변호사자격 및 일본외국법사무변호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국제 M&A, 자금조달, 지적재산권보호 등 분야를 주요 업무 분야로 20 여년간 한중일 주요 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전화 : +86 153 7677 6876
이메일 : songchengzhe@zhonglun.com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의 문화 발전 현황: 민족적 복합성을 중심으로

글_ 배혜은(베이징대학 예술학과 박사과정, 월간중국 통신원)

지린성의 연변조선족자치구는 2023년 중국 관광업에서 주목받은 여행지로 선정되었고, 최근 몇 년간 중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내 여행지 중 하나이다. 본고는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방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여러 한계로 인해 다소 천천히 발전을 거듭해온 지린성과 조선족자치구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고찰한다. 또한 지린은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면모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본다.

1. 들어가며

2023년, 중국 관광업에서 주목한 여행지 중 하나는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위치한 연길(延吉)이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小红书)에서는 연길을 추천 여행지로 선정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서도 한국을 느낄 수 있다는 문구로 홍보했다. 중국 신문사 양광망(央广网)에서는 이곳을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가뵤야 할 필수 코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휴 기간에도 연길을 찾는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携程)의 통계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연변자치주의 숙소 예약량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이전에는 중국의 대도시 혹은 자연 경관을 위주로 관광지를 선택하던 중국인들이 이제 다른 특색있는 지역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지난 일년 동안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인정받은 데에는 중국이 변방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흥변부민행동 계획’, 특색있는 향촌 건설을 위한 계획, 대두만강 경제프로젝트 등의 국가적인 프로젝트, 정책적 영향을 받은 지린성의 관광업 성장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지역들의 특성 및 한국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특히 역사 문화적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것이다.

II. 지린성: 변경지역 및 향촌으로서의 전략적 요충지

1. 국가 정책의 지원

200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동북지역 등 오래된 공업기지 활성화 전략 시행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하며 해당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고, 시진핑 집권 시기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샤오강 사회(小康社会)’를 적극적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안 경제 특구 건설, 푸둥(浦东) 개발, 서부 대개발 실시, 동북 지역 중에서 광물 개발을 위주로 하는 지역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문건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국가의 오래된 공업기지(老工业基地) 활성화 전략이 동북 중심 지역 개발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북 진흥 전략이 실시된지 10년 정도가 흐르자 비교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동북3성의 GDP가 2003년의 1조 3천억 위안(한화 약 248조 8,720억원)에서 2015년 5조 8억 위안(한화 약 957조 3,531억원)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 매년 평균 11%의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1인 당 GDP는 2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증가해 큰 성장을 보였다.¹⁾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국가 정책은 2017년 국무원판공청에서 발표한 <흥변부민행동 ‘제13차 5개년’ 계획(兴边富民行动“十三五”规划)>이다. 이 계획에는 국경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육지 변경(边境)은 9개의 성(省)과 13개의 변경현(边境县)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국가 정책 지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변경 지역의 향촌 관광은 경제적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국무원의 향촌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国务院关于促进乡村产业振兴的指导意见)>과 같은 해에 공포된 <국무원판공청의 문화 및 관광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激发文化和旅游消费潜力的意见)> 등을 통해 중국의 관광업 활성화 대상이 변경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

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东北振兴司. 振兴东北重大课题研究成果汇编[M].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10:322-327.

음을 알 수 있다. 郑丹(2024)은 중국의 다수 연구에서는 변경 지역은 민족의 다양성과 천연 자원의 풍부함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관광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시나 2021년 지린성은 <향촌 관광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시행 의견(关于推进乡村旅游高质量发展实施意见)>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 지역에 특색 있는 향촌 레저 관광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아직 길림성의 관광 인프라는 낙후되어있지만 미래가치를 고려했을 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闫会敏, 2022).

2. 향촌 개발 현황 및 전략

변경 지역의 관광은 국경 범위를 설정하는 항구,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지정한 공간 및 시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관광보다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陈永涛, 2004).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맞대고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런 특수한 상황을 더 널리 알리고, 외지인들도 와서 현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광 자원을 콘텐츠화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지방 정부의 과제임일 것이다. 동북 변경 지역의 대표적인 향촌은 지린성 훈춘시(珲春市) 팡촨촌(防川村), 랴오닝성 단둥시(丹东市) 루다오촌(鹿岛村), 헤이룽장성 모허시(漠河市) 북극촌(北极村)이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郑丹, 2024:8).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동북 변경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인문환경:** 소수민족은 농촌 및 작물 재배를 핵심 산업으로 삼으며, 변방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 **자연환경:** 평야와 구릉이 주를 이루고 자연 환경이 아직 덜 개발된 상태이며, 삼림의 규모가 큼.
- **관광자원:** 개발되지 않은 관광 자원이 많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으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함. 국가에서도 이런 지역들의 관광업을 중시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앞선 절에서 정리한 정책의 결과로 2021년 말 기준, 국

그림1. 연변 지역 특색 향촌 분포도



출처: 韩玲. 延边朝鲜族乡村旅游发展中的社区参与研究[D]. 延边大学, 2023:48.

가문화여행부가 발표한 제3차 향촌 여행 중점 마을 목록 중에서 연변 지역에는 총 9개 마을이 국가 향촌 관광 중점 마을에 포함되었고, 24개의 마을이 중국 소수민족 특화마을, 52개마을이 길림성 A급 농촌관광사업체에 선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린성 특색여행 명진명촌(名镇名城, 2015년), 지린성 여행 영향력 공헌상(2015), 지린성 특색민박 인증을 받아 중국 특색 민박 상위 10위권에 진입(2015), 연변주 민족단결 시범집단(2015), 연변주 조선족민속촌 건설(2018)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후 다양한 매스컴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길림성의 문화 관광 관련 소식이 홍보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조선족은 그들의 이주 역사와 적응력을 ‘진달래²⁾’로 표현하며 매년 ‘진달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진달래 민속촌의 전신은 명암촌(明岩村)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허룡시(和龙市)에 위치하고 있다. 민속촌에는 천 여명 정도가 거주중이며, 그 중 조선족의 비율은 96%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생활 풍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2010년에 명암촌이 홍수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마을은 대대적인 보수 작업에 들어갔고, 후에 ‘진달래 민속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2) 진달래는 초봄에 피어나는 들판의 첫 번째 꽃으로 봄을 맞이하는 기쁨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림2. CCTV에서 방송된 연변조선족자치구



李婉莹(2023)은 진달래민속촌의 강점을 정부와 정책의 지지, 교통적 편리함, 약점으로는 여행 상품의 단일화, 여행지로서의 매력 부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부족을 꼽았다. 진달래민속촌에는 문화홍보센터가 있는데,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민속촌 관련 정보가 벽면에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고,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현지의 특색이 담긴 상품보다는 중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흑요석 팔찌, 옥을 가공한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곳곳에는 널뛰기나 전통 그네타기를 하는 시설이 있었지만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 대두만강 경제 프로젝트

이밖에도 지린성이 빠르게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제 지역들의 통합 및 대두만강(大图们江)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이었다. 연변주의 경우 ‘훈춘-두만강’ 지역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일방적인 개발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 개발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중-러, 중-북 사이의 철로, 도로, 항구 등 기초 인프라를 완성하고 국경선을 따라 국경 교차 무역구를 건설했으며, 이로 인해 훈춘시가 3국이 인접한 두만강 지역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9년 중국 국무원은 ‘중국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 계획 요강’에 따라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 건설을 승인했다. 장길도는 장춘-지린-도문(두만)이라는 핵심 지역들을 지칭한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요강에서 언급한 ‘장길도 프로젝트’는 유엔개발계획(UNDP)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계획 중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한 두만강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

(1991년)에 포함된다.³⁾ 이로써 해당 지역이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2년, 장길도 지역의 GDP는 9,101억 3,200만 위안(약 174조 3,813억원), 연 평균 성장률은 6.2%를 기록하며 지린성 전체 GD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같은 기간 수출입 총액은 1,455억 3,300만 위안(약 27조 8,841억원)으로 이는 지린성 전체의 9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⁴⁾ 지린성인민정부 사이트에서는 매년 이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의 정보에 따르면, 장길도 지역의 “하나의 도시 하나의 단지(一市一园区)”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안도경제개발구 천제방(길림성) 약재과학유산공사(安图经济开发区千济方(吉林)药材科技有限公司) 상황식품 가공사업이 시작되었고, 닝보베이룬(宁波北仑)-길림성왕칭건강과학기술(吉林汪清健康科技孵化园) 인큐베이터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가 있다.⁵⁾

III. 지린성 관련 이론적 논의

중국 랴오닝성(辽宁省)과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龙江省) 등 동북 3성 경제가 중국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 처럼 연길시를 포함한 연변조선족 자치주도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더뎠다. 그 중에서도 지린성은 지리학적으로 동북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북한, 러시아와도 인접해있으며, 대표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와 창춘(长春)·지린(吉林)·쓰핑(四平) 등 8개 지급시(地級市)로 구성되어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특히 2023년 지린성의 GDP는 1조 3,531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GDP인 5.2%를 상회하는 6.3%의 성장으로 팬데믹 이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요식업과 관광업인데, 중국 내륙 관광객 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20-2021년 기간 지

3) 이철남.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간의 무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4) <https://baijiahao.baidu.com/s?id=1762421944501682380&wfr=spider&for=pc>, 2024년 5월 2일 방문.
5) https://www.jl.gov.cn/szfzt/dxdc/jlxs/jlxxsq/202308/t20230803_2456162.html, 2024년 5월 2일 방문.

린성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었다. 2023년에는 러시아에 이어 2위국이 되었으나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역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년 동안 다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에 착안해 지린성 및 연변, 조선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량적으로는 적은 편이다. 원상철(2008)에 따르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지역 발전의 거버넌스 모델과 지역 경제발전 수준이 전국의 다른 지방과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발전 투자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경제구조 형성이 더뎠다. 또한 변경 지구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투자 및 인재 유치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연변 지역의 관광 관련 초기의 연구로는 1998년의 학위 논문이 있는데, 해당 원고에서는 연변 지역의 관광 자원은 대외 홍보가 미흡하여 관광객 유치가 부족한 상태, 대부분의 관광이 백두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 기타 인프라의 질적인 부족 등을 꼽았다.⁶⁾ 또한 최한성(1998)은 연변 지역의 관광 자원을 자연 관광, 문화 관광, 사회 관광, 산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관광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노선과 기타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개괄적인 소개 부분이 많아, 연변 지역 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후에는 문화와 관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최광림(2009)은 연변의 전통 민속 축제가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 형태로 집계하는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있다. 현지 주민들이나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전에는 조선족의 민족 문화를 잘 몰랐다가 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축제 프로그램이 분산되어 있어서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집계되었다.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지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국가적 지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주제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보였으나 그 절대적인 역시나 양은 부족하다. 이들의 문화정체성과 한중문화 교류를 연구한 정승태(2010)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부터

6) 임호철. “중국 연변지역의 관광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1-3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이해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소수민족은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전체의 단 6%만 차지하고 있다.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을 아우르기 위해서 중국은 소수민족의 통합과 안정을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승태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지배 민족에 흡수시키는 ‘동화(assimilation)’와 기존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융화(accomodation)’로 분석했다.⁷⁾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연변 조선족자치구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刘明菊 등(2021)은 연변의 향촌 관광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정부 지도 및 인프라 강화, 브랜드 마케팅 중시, 관광 인력의 충원 및 재배치, 연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향 및 창업 장려 등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했다. 刘焕庆(2017)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허룽시 진달래촌(和龙市金达莱村)에서 시찰 조사를 진행하여 농촌 지역 사회는 여행사 혹은 관광지 운영자와 마을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런 이익 분배의 단일화는 여행 노선을 다각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IV. 연변의 문화적 발전 및 한국과의 관계

1. 연변 관광업의 발전

1990년대 동북 지역의 시장화 흐름과 1992년 한중 수교에 따라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안정세에 돌입하면서 연변의 관광업은 한국의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첫 번째 전성기를 맞았다. 그리고 2014년, 관광업은 연변의 5대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이 첫 번째로 연변 조선족 마을을 방문하며 다시 한 번 이 지역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2018년 연변은 ‘문화강주, 관광흥주(文化强州, 旅游兴州)’라는 슬로건을 제작하며 백두산 관광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일 모두 잇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2015년 지린성에서 발표한 제 1차 5A급 향촌여행 경영사업체가 등장하면서 발전이 가속화되었고, 연변주 문화여행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여행객은 723만 4,900명, 여행 수입은 11억

7) 정승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문화정체성과 한중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10:3-4.

4,200만 위안(한화 약 2,186억 2,448만 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13.75%, 18.9% 성장한 수치를 보였다.⁸⁾

중국 내에서 연길은 트렌디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연변대학교 맞은 편에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병기된 간판이 즐비해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이는 연길 여행시 필수적으로 인증샷을 남겨야 하는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그림3). 또한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전통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들이 조선족의 복장이라고 주장하는 옷을 입고 스냅 촬영을 해주는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진타이즈신(金台资讯)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초 연길시에서 운영하는 사진 관련 회사는 102곳에서 2024년 초 기준 629곳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헤어와 메이크업 직종도 크게 발전했다. 더불어 커피 관련 업종도 빠르게 발전해 현재 연길시에는 총 562곳의 카페가 있다.⁹⁾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카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구의 특산물인 사과배(苹果梨) 커피, 막걸리 커피 등을 개발해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있기도 한다.

그림3. 연변대학교 맞은편 핫플레이스



출처: 저자 직접 촬영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연변 관광의 매력포인트가 작용하는 포인트 역시 이 지역이 지닌 융합과 경계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통 중국 내의 북한 식당은 한국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선

족자치주의 주도 연길에서 운영 중인 50여 곳의 북한 식당은 중국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으며, 한국 손님도 받는다는 점에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통 수단, 비자 신청 등 개인 여행객이 방문하기에는 까다로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패키지 여행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여행객에 대한 편의도 제공해야 여행업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중국인들이 연변을 찾는 이유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 예술 교류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연변의 민속 국제사진교류전이 제주도에 진행되었다. 또한 산을 매개로 하여 한라산과 백두산을 콘텐츠로 하여 두 산을 모두 등반하면 양 지역 지방정부 대표자들의 서명이 들어간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관광 사업이 제안되기도 했다. 연변과의 교류 중 특징적인 것은 교육 분야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창원대학교가 연변시의 2개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교육청도 교육 연수 등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충북대학교가 인적 교류를 추진하는 등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내실을 다지는 교류 행사가 알음알음이어졌다. 비교적 최근인 2023년에는 안산시가 연변조선족자치구의 훈춘시와 국제우호도시관계 수립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며, 훈춘시가 북한, 중국, 러시아 삼국을 연결하는 요충지라는 점에서 국제 개방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우호도시관계를 맺은지 약 반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아직 별다른 행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한국과의 또 다른 접점은 예술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1946년에 설립된 연변가무단은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족 문화예술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국립 종합예술단체이다(김선화,2020). 연변가무단은 지난 2019년 <해란강의 여령들: 그 70년의 여정> 내한공연을 펼친적이 있다. 연변가무단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에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정승태(2010:1)는 다수의 작품 중에서도 연변가무단이 한중 수교 이후 1994년 한국에서 무용극 <춘향전> 무대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통해 조선족문화예술의 방향성을 확인하

그림4. 연변가무단 <해란강의 여령들> 포스터



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에 연변가무단과의 뚜렷한 교류 김새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연예술의 협력도 기대해볼 만하다.

3. 양가적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연변은 한국과 일부 공통적인 부분을 통해 교류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징이 문화 왜곡으로 이어지는 양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한국 항일운동가들을 조선족으로 표현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가 모두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를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꾸준한 항의를 통해 해당 표기를 없애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2023년 랴오닝성에 있는 뤼순 감옥박물관의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징시(龙井市)의 운동주시인의 생가는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외부적인 이유는 내부 수리였지만 실제로 개관한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2024년 4월 기준, 운동주시인의 생가 앞에 새로 세워진 비석에는 '중국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적혀있으며, 한국 일부 매체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역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끊임

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직은 별 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¹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항의로 바이두에서 운동주시인이 조선족이라는 말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국적은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어, 중국의 문화 왜곡을 시정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간판에서 중국어를 우선 표기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연변 조선족자치주 정부는 조선언어문자공작조례실시세칙을 통해 기관, 기업, 가게 등의 간판에서 중국어를 앞쪽에 크게, 그리고 한글은 뒤에 작게 부가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설립된 이후 줄곧 한글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2020년부터 중국 정부의 동화정책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동북공정'의 일부라는 우려도 자아냈다.¹¹⁾ 양국의 일부 문화적 공통점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변경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동북 3성 중에서도 지린성은 한국과 경제 무역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특히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과 문화적인 교류가 진행되기도 했다. 2023년은 연길의 중국 관광업에서 주목받은 해이기도 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전통문화가 혼재되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를 조선족의 문화로 둔갑하거나 일부 변화를 주어, 한국의 트렌드함을 직접 가지 않고서도 연길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항일운동가, 문학인이 조선족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지린성은 이제 해외 여행객 모객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변 관광상품으로 한국인을 유치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적 잡음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계획 실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는 변방 지

8) 延边州文化广播电视和旅游局. 《延边州文化旅游产业发展报告》(2019) [M]. 延吉:延边大学出版社,2020:38.
9)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567299885170114&wfr=spider&for=pc, 2024년 5월 2일 방문.

10) https://www.imaail.com/page/view/2024021611483427877, 2024년 5월 2일 방문.
11)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14513453?OutUrl=naver, 2024년 5월 2일 방문.

역에서 중국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만큼 연길이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선화. "국립무용단과 연변가무단 작품창작에 나타난 무대표현양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원상철. "중국 개혁개방시기 지역발전의 거버넌스 모형." 국내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대학원, 2008.
 이철남.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간의 무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임호철. "중국 연변지역의 관광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광주 1-3
 정승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문화정체성과 한중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10.
 최광림. "도시 민속 축제의 도시 홍보 효과 제고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최한성. 중국 연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한 고찰 [J].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98(2).
 韩玲. 延边朝鲜族乡村旅游发展中的社区参与研究[D]. 延边大学, 2023.
 李婉莹. 延边州文化旅游整合营销传播策略研究[D]. 延边大学, 2023.

刘焕庆, 吴健. 全域旅游背景下的延边州乡村旅游可持续发展研究[J]. 东疆学刊, 2017, 34(01):101-105.
 刘明菊, 刘明菲, 盛佳兴. 延边朝鲜族自治州乡村旅游发展对策研究[J]. 绿色科技, 2021, 23(17):201-203.
 闫会敏, 程然, 蔡耀光, 侯宇. 基于层次分析法的梁山县乡村旅游资源评价[J]. 城市建筑, 2022, 19(20):45-47.
 郑丹. 延边州边境地区乡村旅游空间资源要素评价研究[D]. 吉林建筑大学, 2024.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东北振兴司. 振兴东北重大课题研究成果汇编[M].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10.
 延边州文化广播电视和旅游局. 《延边州文化旅游产业发展报告》(2019) [M].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20.



배혜은(skyblueh37@naver.com)
 중국 북경대학 예술학과에서 문화산업/예술 경영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북경대학 문화산업연구소 연구원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교류 및 온라인 문화산업이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패러다임: '한국 주간' 행사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학술 연구 논문 공모전 수상작, 2022', '<뉴미디어 시대, 중국국가대극원의 홍보 전략과 해외 공연 예술 교류 가능성>, 중국학논총 79호,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공연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61호, 2023'이 있다.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 ~ 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 ① 혹은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업종 제외)
 -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및 완료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
 - 신청 국내모기업이 있을 것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01 구조조정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관련)

- 각 모델별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구조조정비용 산출 및 최적화 모델 도출

02 축소대행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03 청산대행

- 최적의 청산 전략 및 계획 수립
- 청산을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실무 대행 (동사회 소집, 채권장리 공고, 청산위원회 등)
 - 행정 대행 (심의비준, 등기취소 등)
- 청산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04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 전략 및 계획 수립
- 매각(또는 지분양도)을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매각(또는 지분양도) 법무, 세무, 노무서비스 등

* 구조조정과 무관한 일반 경영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지원 불가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미등록 컨설팅사 이용 시 등록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한·중 간 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은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이다. 세계경제에 관한 수월성 높은 연구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가 대외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해 왔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지역분쟁 등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KIEP가 제시하는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정책대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도 중요한 상황에 북경사무소 이상훈 소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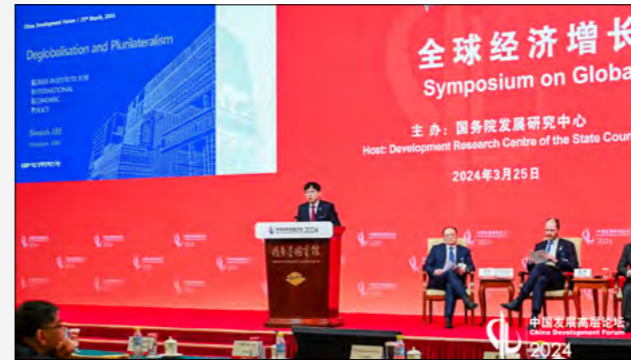
취재 및 정리 : 이나연(재외동포신문 베이징 재외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설립연도 : 1995년.
 설립목적 : 중국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현장성·시의성 있는 중국경제 정보 생산 및 제공, 본원의 중국 및 동북아 유관 연구의 효과적 수행 지원, 중국 내 전문 연구기관 및 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위해 설립
 위치 : 北京市朝阳区亚运村北辰东路8号汇欣大厦B-806
 연락처 : (+86) 10-84972870, kiep_beijing@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는 1995년 3월에 정식 개소하였다. 수교 이듬해인 1993년에 개최된 한·중 기획차관회의에서 양국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연구 협력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북경사무소를 설립하였다. KIEP 북경사무소는 올해로 개소 29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9명의 북경사무소장이 부임한 바 있으며, 현재 본원에서 파견된 2명의 연구 인력과 현지에서 채용된 2명의 중국인 직원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2024 중국발전포럼(CDF)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중 간 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의 주요 임무
- 중국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중국경제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수행
 -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경제 이슈분석」 등 동향자료 발간
 - 포럼 및 간담회 개최
 - 중국 내 전문 연구기관 및 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중국의 중앙 및 지방소재 주요 싱크탱크와 연구협력 수행
 - 한국기관을 대표해 중국이 주최하는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이슈에 관해 논의
 - 경제협력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 정부 및 민간 지원, 한국경제 홍보 등
 - 재중 공관, 언론, 민간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
 - 본원의 연구성과 확산과 한국경제 홍보를 위한 영문 온라인 웹진 발송

□ 중국경제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KIEP 북경사무소는 동향자료 발간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동향과 포럼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및 경제정책 △한중 경제협력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중국의 주요 공급망 및 지역가치사슬 구축 △미중 관계 및 글로벌 통상 현안 △중국의 대외 정책 및 협력 등을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 동향자료 발간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G2로 부상한 중국은 내수시장의 확대와 산업고도화, 기술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



동북아공동체 포럼

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의 경제와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KIEP 북경사무소는 현장성과 시의성 있는 중국경제 동향 및 정책을 연구·분석함으로써 본원 및 연구기관의 중국 관련 연구와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KIEP 북경사무소는 현재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경제 이슈분석」이라는 동향자료를 발간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북경에서 개최하는 한중 경제포럼이나 방문학자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한중 경제포럼 자료집」과 「방문학자포럼 자료집」도 게재하고 있다.

• 포럼 및 간담회 개최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의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학자 또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다양한 포럼이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한중 경제포럼으로, 연간 6회 개최하고 있다. 한중 경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북경 주재 우리 정부기관이나 한국경제단체, 주요 기업, 특파원들이 중국경제 최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국측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럼 행사 내용은 「한중 경제포럼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게



장쑤성 동아시아 산업협력 원탁회의

재함으로써 성과 확산과 중국 관련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하였다.

KIEP 북경사무소는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방문학자포럼을 연간 2회 개최하고 있다. 동 포럼을 통해 방문학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국 내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밖에 재북경 연구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북경 소재 조사 및 연구기능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간 중국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별로 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중 전문가 간에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네트워크 구축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내 대표적인 싱크탱크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교류 중인 주요 싱크탱크로는 국가발개위 산하의 거시경제정책연구원 외에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요 대학 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연구와 협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소속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나 연구자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KIEP는 현재 26개에 달하는 중국 내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과 정기·비정기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연구자 간 교류를



쓰촨성 한중일 중소기업 경제무역혁신 서밋

통해 주요 한중 경제협력 이슈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정부측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 글로벌 경제이슈 논의

KIEP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 및 통상, 국제 거시 및 금융, 국제투자,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KIEP 및 북경사무소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대표기관으로 초대되어 다양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새로운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IEP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매년 주최하는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이 주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서밋(Global Think Tank Summit), 세계수입박람회 흥차오국제포럼(Hongqiao Forum), 세계중국학포럼(World Forum on China Studies) 등이 있다.

• 경제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

KIEP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와 한중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정부측에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KIEP-AMR(거시경제연구원) 한중 경제협력 세미나, KIEP-CAIT-



KIEP-NIIS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EC(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한중 경제통상 세미나는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경제협력 세미나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간 협력을 위한 세미나 외에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연해 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중 경제협력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 및 민간 지원, 한국경제 홍보 등

KIEP 북경사무소는 한중 간의 주요 현안 대응이나 경제협력, 주요 정책동향과 관련한 회의와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재중 공관이나 경제단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이나 지방소재 총영사관에서 개최하는 현안관련 회의, 중국한국상회나 주요 지역 소재 KOTRA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의 주제발표, 민간연구소 및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대중 경영전략 수립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는 한국경제 및 본원의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IEP 북경사무소는 오랜 기간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국내 기관 중 최고 수준의 중국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풀은 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의 발전과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KIEP 북경사무소는 본원의 연구성과 확산과 한국경제 홍보를 위



KIEP-CAITEC 한중 경제통상 세미나

해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KIEP webzine」과 「Korea Economic Bulletin」 등의 영문 온라인 웹진을 발송하고 있다.

차별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지방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

KIEP 북경사무소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집중되어 있는 여타 기관과 달리 중국 지방정부나 지방소재 싱크탱크와의 교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연해지역 뿐만 아니라 지린성, 랴오닝성, 쓰촨성, 하이난성, 후베이성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내륙지역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여타 기관과 차별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지역과는 한중일 경제협력서밋, 동북아공동체포럼, RCEP 협력포럼, 무역투자 협력 등 지역별 현안과 특징에 기반한 맞춤형 연구협력으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현재 경제구조의 변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미중 전략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KIEP 북경사무소 역시 전통적인 한중 경제 이슈를 넘어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다자협력, 통상, 기후변화, 중장기 협력과제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한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재 싱크탱크 및 전문가와의 교류도 확대해 한중 간 교류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INTERVIEW _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이상훈 소장

한·중 간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



이상훈 소장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하여 중국지역전략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년 1월 북경사무소장으로 파견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 지역경제, 한중 경제 및 통상 협력으로, 특히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관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중국경제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학부때부터 경제학을 전공했었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의 삶에서 각인이 되었던 것은 석사과정에 입학한 이후였다. 그 이전까지 저에게 중국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나 소설 삼국지를 통해 피상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체제이행과 전환기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와 경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을 하고 있던 중국이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석사논문을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이라는 주제로 쓰고 싶었으나 당시 경제학과에는 중국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1997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당시만 해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던 시절이었으니 중국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안계신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결국 석사논문은 동유럽의 체제전환을 주제로 쓰고 졸업을 했으나 중국경제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2002년 8월 북경으로 오게되었다.

중국어도 몇 마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중국어 연수를 2년 했고 2004년에 중국사회과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2009년 졸업을 했다. 개인적인 학문적 호기심에서 중국경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벌써 25년이 훌쩍 지났다.

□ 북경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부임 후 바로 발생했던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생활과 일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다. 가장 제가 부임한 것은 2020년 1월 1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곧바로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세상이 멈춘 듯했다. 2020년 2월까지만 해도 출입국이 가능했던 시기여서 비자 문제로 2월 29일에 한국에 잠시 나갔었는데 그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모든 출입국을 통한 이동을 금지하였다.

그 이후에 북경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북경으로 오기 위해 서울-제주도-서안-북경이라는 대장정을 해야 했고, 서안에서 2주간 격리생활도 경험했다. 물론 북경에 돌아온 후에도 엄격한 방역조치로 인해 업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북경사무소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인데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다.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사무소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많은 중국 전문가들과 기관에게 감사를 드린다.

□ 반면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려웠던 점과 관련이 있는데 두 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2022년 8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의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NIIS)과 공동으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행사를 하기 어려웠던 시기였고, 한중 관계도 냉랭했던 시기였는데, 비록 서울과 북경을 화상으로 연결한 회의였음에도 KIEP와 NIIS 두 기관의 노력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자간 교류는 더

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행사였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던 일이다.

세미나와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위해 쓰촨성, 후베이성, 저장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방역조치로 지역간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면 회의를 통해 서로가 호의(情)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되었다. IT기술의 발달로 서로 만나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의 감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다. 아직 한중 간에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교류를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중국경제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공급망의 단절,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한중 양국 간 관계는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되었던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도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기술혁신 능력의 제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반중적인 국민정서의 확대로 현재 중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질지 소원한 관계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속도가 조정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이다. 즉 중국과 중국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지중(知中) 인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정확한 대응방안을 찾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이고, 양국은 여전히 주요한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이며, 중요한 중간재 공급처이다. 중국경제의 운행메커니즘과 데이터를 통해 중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중 인재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다.

II. 중국 인사이트

- [중국 지방정부 탐방 - 저장성]
혁신의 도시 - 저장성과 미래 공유
-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연구재단/KIC중국,
2024중관춘포럼-
한중과학기술산업혁신 포럼 개최
- [세미나 지상중계]
2024년도 상반기 한중농업포럼(제29회)
2024년도 중앙1호문건과
농업농촌경제 전망
- [권오신의 '중국 행사 사용 설명서']
게스트(guest)와 호스트(host)
사이에서 ⑤
- [김재훈의 위버멘쉬]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현재
- [윤규섭의 중국주유열국]
'열하일기(热河日记)'를 따라가는북경 문화유산 답사
유리창(琉璃厂)
- [김준범 총경리의 WOW CHINA]
홍콩 국가 안전 조례(香港国安条例) 발효 후,
홍콩 방문기





혁신의 도시 - 저장성과 미래 공유

글_ 저장성인민정부 의사판공실

항저우올림픽스포츠센터(杭州奥体中心)

저장(浙江)성은 첸탕강(錢塘江)의 옛 명칭인 저장(浙江)에서 유래되었고 약칭은 ‘저(浙)’이다. 중국 동남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저장성은 육지 면적은 105,700km², 관할 해역 면적은 44,400km²에 달한다. 저장성은 산하에 11개 시, 90개 현(시, 구)을 설치 관할하고 있다. 성정부 소재지인 항저우(杭州)시는 저장성의 경제, 문화, 과학 및 교육의 중심지이며 G20 항저우 정상회의 개최지이다. 2023년에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제4회 아시안 패러게임이 개최되었다. 저장성의 현재 상주인구는 6,627만 명이다.

홍색 근맥(根脈), 중요한 창구

중국공산당은 난후(南湖) 붉은 배에서 탄생하였고 이는 “홍색 근맥”의 근원적 좌표이다. 저장성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태동지이며, “홍색 근맥”의 신시대 상징지역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저장성에서 6년 동안 근

무하면서 저장성 지역발전 계획과 탑레벨디자인 계획인 ‘88전략’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후, 시진핑 총서기는 6차례 저장성에 직접 방문하여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저장성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하고 웅대한 청사진(藍圖)을 제시하였다. 다년간 저장성은 ‘88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아갔다. 한 폭의 웅대한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 나아가며, 임기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저장성은 전 방위적이고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다채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자원의 결핍한 지역에서 경제 발달지역으로, 대외무역 발달지역에서 개방 强省으로 부상하였다. 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저장을 실현하고, 전체적 샤오강(小康)에서 고품질 전면 샤오강으로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하여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웅대한 청사진을 부민강성(富民强省), 균형발전, 녹색발전, 공치공유(共治共享), 근렴분진(勤廉奮進)의 현실사

회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혁 혁신, 활력 분출

개혁개방 이래, 저장인(浙江人)들은 과감한 도전으로 창업에 앞장서서 최초의 개인 사업자, 최초의 민간기업 등 수많은 “중국 첫번째”를 창출하였고 알리바바, 하이강웨이시(海康威視), 지리(吉利)자동차 등 다수의 유명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민영 경제는 저장성의 가장 화려한 도시명함으로 성 전체 GDP의 67%, 세수(稅收)의 71.7%, 수출의 82.6%, 기업 수익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2023 중국 500대 민영 기업” 중 저장성이 108석을 차지하여 2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저장 상인은 저장성의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저장인 6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하고, 저장인 20명 중 1명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타지역으로 진출한 저장상인은 800여만 명에 달하며 그 중 해외진출 200만 명, 중국 각지에 600여만 명이 진출하고 있다. 국유경제는 민영 경제와 공

동 발전하고 있으며 성급 및 시급 국유기업의 영업 총수입과 총이익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 모멘텀이 강하고 디지털경제가 발달하였으며 시장 우위가 뚜렷하고 개방 수준이 높다. 청시커창다저우랑(城西科創大走廊, 과학기술혁신센터)을 대표로 하는 고효율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재생태계(人才生態)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써의 골드 도시명함은 점점 더 빛나고 있다. 디지털경제 발전의 선행지역으로 세계인터넷대회가 우전(烏鎮)에 영구 정착하였고 2023년에는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GDP의 12%를 차지하며, ‘4개 목록, 하나의 네트워크(四張清單一張網)’, ‘원스톱(最多跑一次)서비스’, 디지털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선 등 주요 개혁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타오바오왕(淘寶網), 티몰(天貓商城), 왕이엔쉬안(網易嚴選) 등 310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연간 거래액은 중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저장성은 창신을 통한 개혁



세계 제1항구 - 닝버저우산항(世界第一港 - 宁波舟山港)

심화와 확고한 개방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개 '1호 공정(一號工程)'과 '10개 주요공정(十項重大工程)'을 적극 추진하여 고품질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 저장성 지역 GDP는 82,553억 위안으로 6.0% 증가하였다.

유구한 역사, 인재와 문화재의 집결지

저장성은 중국 고대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100만 년의 인류사를 증명하는 칠리팅(七里亭)유적, 1만 년의 중국문화사를 증명하는 상산(上山)유적, 5천여 년의 중국문명사를 실증하는 량주구청(良渚古城)유적, 천 년의 송원(宋韻)문화사를 예증하는 남송의 린안청(臨安城)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역대 거장들이 운집하고 인재가 대거 등장하였으며 왕충(王充), 셰링윈(謝靈運), 왕양밍(王陽明), 황종희(黃宗羲), 첸쉐션(錢學森), 주커전(竺可楨), 쑤부칭(蘇步青), 차이위안페이(蔡元培), 루선(魯迅) 등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동한(東漢) 이래 역사에 기록된 저장성 출신 문학가는 1,000여명으로 중

국의 약 1/6을 차지하고 '양원(兩院) 원사 중 저장성 출신도 약 1/6을 차지한다. 문화예술이 다채롭고 풍부하며 역사적으로 비단, 차, 도자기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금석전각(金石篆刻), 용천청자(龍泉靑瓷), 동양목조(東陽木彫), 청전석조(靑田石彫)로 유명하며, 곤곡(昆曲), 월극(越劇), 윈저우구츠(溫州古詞), 하이닝피잉시(海寧皮影戲, 그림자극)가 이채롭고, 룡우스(龍舞獅), 주마가오차오(竹馬高蹻), 전지자수(剪紙刺繡), 란즈화등(染織花燈)의 특색이 뚜렷하며 세계자연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중점문화재보호단위, 국가역사문화 명성(名城), 명진(名鎮), 명촌(名村)의 수는 전국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저장성문화연구공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중국 역대 회화대계(中國歷代繪畫大系)”를 비롯한 중대한 성과를 창출하였고 항저우국가판본관(國家版本館)을 건설하였으며 송원(宋韻)문화계승공정을 실시하여 대운하국가문화공원(大運河國家文化公園) 건설을 추진하였다. 성 전체 문화분야 상장기업은 45개, 4개 기업이 '전국 30대 문화기업'에



저장성 안지현 대나무숲 도로(浙江安吉縣竹鄉美路)

선정되어 성급 1위를 차지한다.

공동부유, 균형발전

저장성은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길을 모색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지고 지역 도시와 농촌 소득의 “3대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산간지역 및 하이도우(海島) 현(縣)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산층 확대(擴中)”, “저소득층 소득증가(提低)”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우수한 품질 공유를 심화하고 저장성의료산업(浙里健康), 저장성 육아산업(浙有善育), 저장성 실버산업(浙里康養)과 농촌집단지체 개혁발전의 중대성과를 돋독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공동부유 시범구(共同富裕示範區) 건설의 안정적인 개시를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천만공정(千萬工程)”은 20년 동안 시행되어 수많은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 많은 농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어 유엔의 ‘지구가디언상(地球衛士獎)’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저장을 농업·농촌 현대화 발전이 가장 빠르

고 향촌(鄉村)경제가 가장 활력 있고 향촌 환경이 가장 아름다우며 농민 생활이 여유롭고 도시와 농촌지역이 가장 조화를 이룬 지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저장성 도시와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4,997위안과 40,311위안으로 각각 5.2%, 7.3% 증가하였으며 39년 연속 전국 성급 1위를 차지하였다. 우수한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현(시, 구) 전체가 국가의무교육 발전 기본균형 현을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의 동등한 기초생활보장기준을 실현한다. 저장성은 “평차오경험(楓橋經驗)”의 탄생지이자 “가장 아름다운 현상”의 선도 지이며, 평안 저장(平安浙江), 법치 저장(法治浙江)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에서 가장 안전감과 행복감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녹수청산(綠水靑山), 아름다운 저장성

저장성은 “어미지향(魚米之鄉), 사차의 고장(絲茶之府), 문물의 나라(文物之邦), 관광의 명소(旅遊勝地)”로 알려져 있으며 “녹수청산(綠水靑山)은 금



꽃바다 라이딩로- 첸다오호(千岛湖)



항저우 서호(杭州西湖)



헝텐영화파크(横店影视城)



우전고진(乌镇古镇)

산과 은산이다"라는 이념의 발원지이자 실천의 선두지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장성은 시진핑 생태문명(生态文明)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아름다운 저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생태문명 녹색 발전의 모범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녹색을 저장성 발전의 가장 인상적인 색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생태성(生态省)을 건설하여 삼림 피복률 61.36%를 달성하며, 성통제단면(省控断面, 지표수 환경 측정의 표준)의 우수한 수질 비율 97.0%, 도시 공기질이 좋은 날 비율 92.3%로 도시와 농촌의 발길이 닿는 곳이 풍경이고 곳곳이 그림 같은 현대판 '부춘산거도(富春山居图)'의 운곽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어우러져 산, 강, 호수와 바다는 수려하고(山河湖海同秀), 해변, 삼림, 동굴과 온천은 기이한(滩林洞泉共奇) 약 3,000개에 달하는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다. 항저우 서호(杭州西湖), 엔탕산(雁荡山), 푸뉘산(普陀山), 우전고진(乌镇古镇), 헝텐영화파크(横店影视城

), 시시습지(西溪湿地) 등 국가 5A급 관광지가 20곳으로 중국 2위, 국가급 관광 휴양지가 8곳으로 중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관광연맹 본부의 소재지로 농촌관광과 해양관광이 성행하며 "시화 강남(诗画江南), 활력 저장(活力浙江)"의 저장성 지역 브랜드가 더욱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㉞

저장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浙江省人民政府外事办公室)

- 전화: 0086-571-87050329
- 팩스: 0086-571-85156432
- 이메일: xqy@zjfad.gov.cn



시시습지(西溪湿地)

创新浙江，共享未来

浙江省人民政府外事办公室

浙江省因钱塘江古称浙江而得名，简称为“浙”。地处中国东南沿海，陆域面积10.57万平方公里，管辖海域面积4.44万平方公里。全省辖11个设区市、90个县(市、区)。省会杭州是全省经济、文化、科教中心，是G20杭州峰会举办之地。2023年举办杭州第19届亚运会、第4届亚残运会。全省现有常住人口6627万人。

红色根脉、重要窗口。中国共产党在南湖红船诞生，这是“红色根脉”的源头坐标。浙江是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重要萌发地，这是“红色根脉”的新时代标识。习近平总书记在浙江工作6个年头，为浙江量身定制了“八八战略”这一省域发展全面规划和顶层设计。党的十八大以来，习近平总书记6次亲临浙江，对浙江工作作出一系列重要指示，亲自为新时代浙江赋予光荣使命、擘画宏伟蓝图。多年来，浙江深入实施“八八战略”，坚定不移沿着习近平总书记指引的道路奋勇前进，一张蓝图绘到底、一任接着任，浙江大地发生了全方位、系统性、深层次的精彩蝶变，实现了由资源小省向经济大省、由外贸大省向开放强省、由环境整治向美丽浙江、由总体小康到高水平全面小康的历史性跃升，切实把习近平总书记擘画的蓝图一步步变为富民强省、均衡发展、绿色发展、共治共享、勤廉奋进的现实图景。

改革创新、活力迸发。改革开放以来，浙江人敢闯敢创、敢为人先，创造了第一批个体工商户、第一家私营企业等诸多“全国第一”，造就了阿里巴巴、海康威视、吉利汽车等一大批知名企业。民营经济是浙江最亮丽的金名片，贡献全省67%的生产总值、71.7%的税收、82.6%的出口和92.5%的企业数量，“2023中国民营企业500强”中浙江占108席、连续25年居首位。浙商是浙江最宝贵的财富，平均每6个浙江人中就有一位老板，每20个浙江人就拥有一家企业；省外浙商800多万，其中在境外200多万、在全国各地600多万。国有经济与民营经济比翼齐飞，省市两级国企营业总收入、利润总额居全国前列。创新动能强劲、数字经济发达、市场优势明显、开放程度颇高，加快打造以城西科创大走廊为代表的能级平台，人才生态最优省金名片越来越亮，是数字经济发展先行省份，世界互联网大会永久落户乌镇，2023年数字经济核心产业增加值占地区生产总值比重达12%，“四张清单一张网”、“最多跑一次”、数字化改革、营商环境优化提升等重大改革享誉全国，有淘宝网、天猫商城、网易严选等310家电商平台，年交易额居全国首位，义乌小商品市场买全球卖全球。当前，浙江正强力推进创新深化改革攻坚开放提升，大力实施三个“一号工程”和“十项重大工程”，跑出了高质量发展加速度。2023年，全省实现地区生产总值82553亿元、增长6.0%。

历史悠久、人文荟萃。浙江是中国古代文明的发

祥地之一，有印证一百万年人类史的七里亭遗址、鉴证一万年中华文化史的上山遗址、实证中华五千多年文明史的良渚古城遗址、例证一千年宋韵文化史的南宋临安城遗址。历代大师云集、人才辈出，涌现出王充、谢灵运、王阳明、黄宗羲、钱学森、竺可桢、苏步青、蔡元培、鲁迅等杰出人物，东汉以来载入史册的浙江籍文学家逾千人、约占全国六分之一，“两院”院士中浙江籍人士占了近六分之一。文化艺术丰富多彩，历史上大量出产丝绸、茶叶和瓷器，金石篆刻、龙泉青瓷、东阳木雕、青田石雕声名远播，昆曲、越剧、温州鼓词、海宁皮影戏异彩纷呈，龙舞狮舞、竹马高跷、剪纸刺绣、染织花灯特色鲜明，世界自然与文化遗产、人类非物质文化遗产、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国家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数量居全国前列。深入实施浙江文化研究工程，打造出“中国历代绘画大系”等一批重大成果，建成杭州国家版本馆，实施宋韵文化传世工程，推进大运河国家文化公园建设，全省文化上市企业45家，4家企业入选“全国文化企业30强”，居各省(区、市)首位。

共同富裕、均衡发展。浙江坚决扛起推进共同富裕先行探路的光荣使命，把缩小地区城乡收入“三大差距”作为主攻方向，推动山区海岛县高质量发展，推进“扩中”“提低”改革，深化公共服务优质共享，加快打造浙里健康、浙有善育、浙里康养、农村集体经济发展等重大成果，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稳步开局。“千万工程”实施20年造就万千美丽乡村、造福万千农民群众，并获联合国地球卫士奖，推动浙江成为农业农村现代化进程最快、乡村经济最活、乡村环境最美、农民生活最优、城乡区域最协调的省份之一。2023年，全省城乡居民人均可支配收入74997元、40311元，分别增长5.2%、7.3%，连续39年居全国各省(区)首位。优质医疗资源上下贯通，所有县(市、区)建成国家义务教育发展基本均衡县，低保标准实现城乡同标。是“枫桥经验”的诞生地、“最美现象”的引领地，深化平安浙江、法治浙江建设，被认为是中国最具安全感和幸福感的省份之一。

绿水青山、全域大美。浙江素有“鱼米之乡、丝茶之府、文物之邦、旅游胜地”美誉，是“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理念发源地和率先实践地。近年来，浙江深入贯彻习近平生态文明思想，谋深抓实美丽浙江建设，高标准打好污染防治攻坚战，奋力打造生态文明绿色发展标杆之地，努力让绿色成为浙江发展最动人的色彩。建成全国首个生态省，森林覆盖率达61.36%，省控断面优良水质比例为97.0%，设区城市空气质量优良天数比率为92.3%，城乡步步是景、处处如画，现代版的“富春山居图”愈发显现。自然景观与人文景观交相辉映，山河湖海同秀、滩林洞泉共奇，有各类旅游景点近3000个，有杭州西湖、雁荡山、普陀山、乌镇古镇、横店影视城、西溪湿地等20个国家5A级旅游景区、居全国第二位，国家级旅游度假区8个、居全国首位，是世界旅游联盟总部所在地，乡村旅游、海洋旅游方兴未艾，“诗画江南、活力浙江”省域品牌更加鲜明。



한국연구재단/KIC중국, 2024중관촌포럼-한중과학기술산업혁신 포럼 개최

취재 및 정리 : 이나연(재외동포신문 베이징 재외기자)

- 행사명: 2024중관촌포럼-한중과학기술산업혁신포럼
- 산업/주제: 생명과학 산업 혁신 및 한중 협력
- 일시: 2024년4월25일(금) 9:00~12:30
- 장소: 중관촌소프트웨어파크 국제회의센터 3층
- 주최: 한국측_한국연구재단 베이징대표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중국측_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 중관촌과학단지관리위원회, 중관촌발전그룹
- 후원: 한국측_한국연구재단,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측_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한국연구재단과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4월26일 베이징 중관촌소프트웨어파크국제회의실센터에서 “2024년 제1회 중관촌포럼 한중과학기술산업혁신포럼”을 개최했다.

4월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024년 중관촌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 행사는 베이징과학기술위원회, 중관촌과학단지관리위원회, 중관촌발전그룹이 공동 개최했으며, 주중한국대사관, 중국과기부 및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의 후원으로 열렸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한국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이 협력했다.

중국과기부, 중국과학원, 중국과학기술협회,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2007년부터 개최한 중관촌 포럼은 "혁신과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향후 중국의 국가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혁명,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국제포럼이다. 100개 이상의 국가·지역의 과학자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연례회의로, 포럼 회의와 기술 거래, 성과 발표, 첨단기술 대회, 부설 활동 등 5개 섹션에서 약 120개에 이르는 행사가 개최됐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 교류활동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면서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연구와 기술 사업화 교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KIC중국은 중관촌포럼이 진행된 후 2022년부터 유일한 한국 기관으로서 중관촌포럼의 한중기술교류관련 행사의 주최주관을 맡아 중관촌포럼 중 유일한 한중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IC중국의 발전전략의 중요한 한 걸음으로서, 중관촌포럼 시리즈 행사를 통해 KIC중국 및 한국 과기부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했다. 포럼을 통해 우수한 한국 기술을 선보이고, 한·중 기술협력이전 및 산업연계를 촉진하며, 한·중 과학기술혁신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주기적으로 한중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산하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개최했다.

2024년 중관촌 포럼은 “한중 바이오” 주제로 교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매년 개최시 주제에 따라 한중공동연구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 한중과학기술혁신 생명과학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산업혁신 정책 전문가 및 산업관계자들을 초청해 관련분야의 우수한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상호교류하고, 한중 과학기술 협력연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한중과학기술혁신 교류의 우수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연구재단 김영철 사무총장, 정혁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KIC중국 김종문 센터장, 주중한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 중국측에서는 과학기술부 친웨이동 국제협력사 순시관,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 촉진센터 추샤오웨이 센터장, 중관촌발전그룹 장금휘 부총경리, 베이징차오양구위원회 슈비레이 상무위원 등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산업혁신 및 생명과학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산업계 관계자, 투자기관 대표 등 약 250명이 참석했고, 중관촌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약 1만명 이상 시청했다.

한국연구재단 김영철 사무총장은 개최사를 통해 “낙수물이 뚫돌이 뚫는다(滴水穿石)라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여 한중과학기술 협력이라는 뚫돌에 끊임없이 한중 연구자들 및 관계자들의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다.

주중한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은 축사에서 “글로벌 난제가 많아지는 지금 시기에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가 가진 어려움에 공동대응하고,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헬스가 접목될 경우 그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만큼, 한중 과학기술 교류가 더욱 강화되고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KIC중국 김종문 센터장

포럼은 “Part1 한중과학기술정책”, “Part2 한중바이오 산업 전망”, “Part3 한중협력연구 사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前서울대 연구 부총장 최해천 교수와 북경대 의학부 사요웬 부주임이 “한국연구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 “중국바이오연구지원 및 발전추세”를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했다.

주제발표는 한국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병원 박사,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부 남진우 차세대바이오 단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강성천 원장, 부산대 김진태 교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한국과학기술산업지원정책 및 국제협력” “한국 바이오산업 주요 정책 및 기술 발전 추세”,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 사례”, “한중 산학연 공동연구 현황 및 성과”, “KIC중국 사업 성과 및 한중 교류 우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중국측은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경제 사회소 수난 부소장, 북경대학 제3병원 푸웨이 원장, 북경예묘신주의약과기유한공사 루신안 CMO가 “중국 과학기술 및 산업지원정책”, “병원의 과학기술혁신 선도방안”, “다국가 약품 개발 및 등록방법”을 각각 발표했다.

수난 부소장은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은 ▲기초연구와독창적인혁신강화 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 ▲기초연구와독창적인혁신강화 ▲각종 인력의 혁신 활성화 자극 ▲기업 혁신 주체 지위 강화 ▲개방적·포용적 혁신생태계구축이 다. 기초 연구는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발단이며 혁신 주도 발전의 ‘원천 활수’이고, 기업은 국가 혁신 시스템의 핵심 주체이자 기술과 경제를 긴밀히 통합하는 중요한 힘이다. 그리고, 인재는 모든 혁신 요소 중 가장 능동적이고, 모든 혁신 활동을 활용하는 주요 자원”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및 생명과학 분



박병원 박사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야 발전과 산업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한·중 간 생명과학 분야 기술 교류 및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중과학기술 및 산업 교류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병원 박사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즈니스 R&D 및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R&D 지출의 빠른 성장을 했다. ICT 특허출원 2위, 생명공학 특허출원 3위이다. 지식집약형 제조업의 가치사슬 국산화로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 컴퓨터, 제약 등 첨단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했다. GDP 대비 최대 수준의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 R&D 제공하고 있다. ICT 부가가치, ICT 부문 고용 점유율, ICT 특허 점유율 1위이며, 높은 수준의 창업활동을 통한 활기찬 창업생태계 구축(특히 서울),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예: 펀드, CVC 규제 완화)이 있다. OECD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출이 가장 크다”고 했다. 또, 한·중 R&D 국제협력 현황은 “주요국의 핵심·신흥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미래 핵심기술 확보 여부가 “국가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이며, 첨단 기술/산업에서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와 협력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경제/산업/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국가이다. 한중 간의 협력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며, 한·중을 둘러싼 인접국과의 정치 외교적 환경의 변화,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 질적 성장 및 산업 성장으로 인해 협력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됐다. 앞으로, 상호 이익에 기반한 상호 존중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지속가능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예로, 온난화, 팬데믹, 식량, 물, 에너지 등 지속



한국연구재단 국책본부 차세대바이오단장 남진우

가능과학분야에 공동연구 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기초과학 분야의 협력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문 센터장은 “KIC중국은 중국의 국가급 과학기술 교류 플랫폼인 베이징의 중관촌포럼, 상하이의 푸장혁신포럼, 광저우의 대만구과학포럼에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한중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전문가를 뛰어 넘는 중국산업전문가를 배양하고 중국에 진출하는 혁신기업들이 한층 더 글로벌경쟁력을 갖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또, “중관촌 포럼에서 한중과학기술산업혁신포럼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중과학기술 영역의 최고급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양국의 학술계 최고 전문가,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 및 첨단기술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연구·성과확산(기술교류, 창업 등) 등 주제에 대한 교류를 통해 한중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급 행사에 한중과학기술협력포럼의 개최를 계기로 향후 한중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산하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교류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는 중관촌발전그룹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강성천 원장)과 3자간 MOU 체결을 맺었으며, 경기도 및 베이징시의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중 과학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중기업가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4년도 상반기 한중농업포럼(제29회) 2024년도 중앙1호문건과 농업농촌경제 전망

취재 및 정리 : 이나연(재외동포신문 베이징 재외기자)

-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소장 전형진)
- 일시 : 2024년 5월9일 16시
- 장소 : 베이징시 차오양구 자하문 한식당
- 참석자 : 베이징 주재 한국기관 및 한국기업 관계자들 약 50여명

한중농업포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소장 전형진)가 중국의 농업농촌 및 농식품시장 관련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중간 농업협력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2024년도 상반기 포럼이고 횡수로 29번째이다.

2024년도 중앙1호문건과 농업농촌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주제발표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연구협력MOU를 맺은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농촌발전

연구소 리귀상(李国祥) 박사를 연사로 모셨다. 리귀상 박사는 1998년부터 농촌발전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주로 식량안보와 중국농업농촌경제 동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가식량안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사회과학원대학교 교수도 겸임하고 있다. 리박사가 재직하고 있는 농촌발전연구소는 매년 4월말~5월초에 '중국농촌경제형세 분석 및 예측'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리박사는 다년간 이 연구를 책임 수행한 바 있다.

□ 2024년 중앙1호문건 주요 내용

- 2024년 중앙1호문건 제목 : '천촌시범, 만촌정치' 프로젝트의 경험을 배우고 활용해 전면적인 농촌진흥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
- 2개의 핵심 : 국가 식량안보 확보,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 3개의 중점 : 농촌산업 발전 수준 제고, 농촌개발 수준 제고, 농촌거버넌스 수준 제고
- 2개의 강화 조치 : 과학기술 진보 및 개혁 추진 강화, 농가소득 증대 조치 강화
- 주요내용 : ▲ “제2차 식량 5,000만 톤 증산 프로젝트의 견고한 추진” ▲ “돼지 생산능력 조절체계 최적화” ▲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 농업과학기술의 지원 역할 강화 ▲ 농업과학기술의 지원 역할 강화 ▲ 농업농촌 관련 제도개혁을 통한 지원 역할 강화 ▲ 농촌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 2023년과 2024년 농업농촌경제 관련 환경 및 정책 비교

2023년 국내 환경

농민공 수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2억 9,753만 명이 다. 2023년 농촌지역 상주인구는 4억 7,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04만 명 감소, 농촌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p 33.8%. 도시화율은 66.2%이다. 2023년 농민공 수는 전년 대비 0.6% 증가(191만 명)한 2억 9,753만 명, 이중 타 지역 이동 농민공은 1억 7,6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468만 명),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존재했다. 2023년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418조 위안. 수출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 수입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해 농산물 수출입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2023년 초여름 하남지역 등지의 밀 수확기 폭우로 인해 밀 시장가격 하락하며 추세가 변동됐으며, 농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농업 생산 수익 감소 폭 확대했다. 또, 코로나 방역조치 전환으로 농민공의 타 지역 이동 억제 기능이 약화됐다.

2024년 전망

신형 도시화와 농촌진흥의 통합 추진으로 대규모의 농촌인구 감소가 예상되며, 국가 중점프로젝트를 통해 농민공 취업 확대 및 소득 증대를 촉진한다.

농업기상 전망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가뭄보다는 홍수가 더 심각하고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농자재 가격 하락, 농산물 수요 및 농산물 가격의 커다란 하방 압력이 농업 생산, 농산물 수출입 및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말 하는 전형진 소장

□ 2023년과 2024년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및 전망

식량 증산

2023년 식량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888만 톤) 증가한 6억 9,541만 톤이다. 식량 재배면적은 955만무(약 1.2억 ha)로 전년 대비 0.5%(약 64만 ha) 증가, 식량 생산량 증가 기여율 38.5%이다.

옥수수 생산 증대가 식량 증산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했고, 옥수수 생산량은 2억 8,884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1,164만톤)했다. 옥수수 재배면적은 6.6억무(약 4,422만 ha)로 전년 대비 2.7% 증가(약 11.5만 ha),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64.3% 기여했다.

2024년에는 식량 생산량 7억 톤 초과, 겨울 밀 생산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분기 전국 식량작물 재배의향을 조사한 결과 쌀과 옥수수는 재배 면적 증가, 대두는 재배면적 안정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극단적 기상재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식량 품목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당과 정부의 식량안보 책임제로 인해 식량 재배면적의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북지역과 동북3성 및 내몽고 지역의 옥수수 단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작물 생산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겨울철 유채 재배가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땅콩 가격이 대폭 하락해 농민들의 재배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작물 생산: 확대에서 안정으로 전환

유지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7%(211만 톤) 증가한 3,864만 톤이고,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2.1억 무(약 1,407만 ha)로 전년 대비 5.9% 증가(약 7.8만 ha), 유지작물 생산량 증가에 100%기여했다.



강연하는 리귀상 박사

2024년은 유지작물 생산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겨울철 유채 재배가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땅콩 가격이 대폭 하락해 농민들의 재배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 생산 :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할 가능성

2023년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육) 생산량은 9,641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414만 톤) 증가했으며, 2024년 육류 생산량이 9,500만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소, 양, 가금의 생산능력 모두 축소 조절

2024년 1분기 말, 전국 돼지 사육 마리 수는 4억 850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5.2%(2,244만 마리), 전분기 대비 5.9%(2,572만 마리) 감소될 전망이다. 2024년 1분기 말, 전국 소 사육 마리 수는 1억 118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전분기 대비 3.7% 감소될 전망이다. 2024년 1분기 말, 전국 양 사육 마리 수는 3억 2,233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전분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4년 1분기 말, 전국 가금 사육 마리 수는 61.1억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0.2%, 전분기 대비 10% 감소될 전망이다.

□ 2023년과 2024년 농산물 수출입 현황 및 전망
농산물 수입 규모 축소 가능성

주요 농산물의 수입량이 증가 했지만 농산물 수출입액은 3,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농산물 수입액은 2,3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감소, 농산물 수출액은 9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2023년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하로 농산물 수출입 가격이 하락해 수출입량 증가, 농산물 수출 가격 지수는

93.5, 물량 지수는 107.3, 대한민국 농산물 수출 가격 지수는 92.8, 물량 지수는 107.6, 대한민국 농산물 수입 가격 지수는 93, 물량 지수는 107.1, 대브라질 및 대미국 농산물 수입 물량 지수는 각각 443.5, 91.7이었다.

2024년은 국제시장 농산물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일부 농산물의 공급 여력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 국내 농산물 수요 감소 및 커다란 가격 하방 압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량은 감소하고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수출입구조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농산물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수출입 품목과 대상국도 다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 수입: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중국의 식량 수입은 국내 수요와 국내외 가격차가 커다란 영향 요인이며, 2024년 국내 옥수수과 대두 가격의 대폭 하락 가능성이 커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소, 양, 가금의 생산 능력 축소 조절에 상응해 옥수수, 대두박 등 농후사료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료가공기업은 가능한 한 재고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 식용유 수입량 증가 전망

2024년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는 가격이 저렴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 가격이 낮은 식용 식물유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와 과일의 수출 증가는 농산물 수요(소비) 확대의 유효 경로 가운데 하나로, 비교적 강한 채소와 과일의 생산능력은 수출 확대의 기초가 된다.

2024년 3월 현재 식량 수입 감소 추세

2024년도 1분기 식량 수입량은 3,84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 식량 수입액은 1,1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해관통계)했다. 3월 수입량은 1,164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 3월 수입액은 349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5% 감소, 식량 수입가격도 뚜렷하게 하락했다.

2024년도 1분기 옥수수 수입량은 79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옥수수 수입액은 1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해관통계)했다. 3월 수입량은 171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3월 수입액은 36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5% 감소, 옥수수 수입 가격과 수입 물량 동시 감소, 수급 조절 등 요인의 영

향 가능성이 있다.

2024년 1분기 육류 수입 대폭 감소

2024년도 1분기 육류(식용 설육 포함) 수입량은 16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 소고기 수입량은 7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 돼지고기 수입량은 26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 감소했다. 양고기 수입량은 1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가금육 수입량은 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2% 감소했다.

□ 2023년과 2024년 농식품가격 현황 및 전망

2023년 농식품 생산자 가격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 이중 농산물은 0.8%, 임산물은 2.7%, 사육 동물 및 그 제품은 8.3%, 수산물 0.6%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은 보편적으로 주기적 변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하락과 상승의 폭 및 지속 시간은 비대칭적이다.

식품가격 하락폭 더욱 확대 전망

2023년 농산물 생산자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식품가격이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 이중 채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2.6%, 13.6% 하락했고,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3.2%, 4% 하락했다. 2024년은 식품가격이 더욱 하락해 하락 폭이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분기 식품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2% 하락. 이중 식용유는 5.2%, 돼지고기는 7%, 소고기는 7.7%, 양고기는 5.3%, 가금알은 6.8%, 채소는 3.9%, 신선과일은 7.3% 하락했다.

□ 2023년과 2024년 농촌가구 소득 현황 및 전망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2.3만 위안 초과 전망
2023년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169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58위안 증가, 명목 증가율과 실질 증가율이 각각 7.7%, 7.6%로 실질 GDP 증가율을 2.4%p 상회했다. 농촌가구 1인당 임금소득은 9,163위안으로 전년 대비 714위안 증가(명목증가율 8.4%)해,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에 45.8% 기여했다. 농촌가구 1인당 경영소득은 7,431위안으로 전년 대비 459위안 증가(명목증가율 6.6%).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에 29.5% 기여했다. 농촌가구 1인당 이전소득은 4,557위안으로 전년 대비 354위안 증가(명목증가율 8.4%),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에 22.7% 기여했다.
2024년에는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증

가해 2.3만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명목 증가율이 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성장으로 인해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실질증가율은 7%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농촌가구 1인당 임금소득이 1만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농촌가구 1인당 경영소득은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어 약 400위안 증가한 7,800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농촌가구 1인당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약 300위안 증가한 4,900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발표 후에 가진 토론에서 지정토론자로 주중한국 대사관 양지연 농무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훈 중국사무소장을 모셨다.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친후에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게스트(guest)와 호스트(host) 사이에서 ⑤

글_ 권오신(北京爱艺德文化发展有限公司 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정책자문관)

1. 행사의 본질은 '행복'이다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연초부터 시작된 행사 관련 칼럼은 드디어 마무리 된다. 이 시점에 본원적으로 행사가 무엇인지 어떤 본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앞선 지면을 통해 필자는 행사에 대한 정의를 “주최측에서 특별한 수단을 통해 대상자에게 최대의 목표치를 이끌어 내는 기회”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또한 각 단위에서 벌어지는 행사의 형태와 모습은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을 관통하는 본질은 한결같이 똑 같다는 말도 덧붙인 적이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한다.

지난 시절 업무관계로 마주한 많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행사에 대해 평하기를 특정시기 치러야 하는 까다로운 통과이레, 높으신 분을 모셔야 하는 의전 프로토콜 숙제와도 같이 관련 업무에 대해 생각보다 무거운 스트레스와 함께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 그러다 보니 예년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특별히 모나지 않고 대과 없이 끝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세우려고 한다. 또한, 변수가 많은 여기 중국에서 무탈하게 마무리된 것 그 자체로 가지는 의미도 크다. 필자는 어렵더라도 이 단계에서 한 발짝 한 뼘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목표의 지점에는 바로 ‘행복’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남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행하



[사진 좌로부터 아이젠슈타트 본인, 수병과 간호사, 백범 김구 작품]

는 행사라는 것을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의 관심이다. 이렇게 주어진 같은 환경도 시선을 조금 달리하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게 된다. 과정은 힘들고 속도는 더디지만 중국에는 좋은 결과물로 내가 그리고 상대가 느끼는 아주 특별한 성취감이 존재하는 분야가 바로 이 행사 업무가 되겠다.

행사는 특별한 날의 기록이자 함께한 모두의 행복이다. 행사를 통해 우리 고객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 경험이 전이(轉移)되어 모두가 즐거워지는 것이다. 고로, 행사의 본질은 ‘행복’이며 행사업무의 궁극적 본질 역시 ‘행복 추구’가 되겠다.

이번 챗터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TPO에 따른 몇 가지 행사 카테고리들 들어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팁과 각 주제별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2. 사진은 권력이다

활자 세대를 넘어 완벽하게 비주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한 줄의 텍스트보다 열 마디의 말 보다 사진 이미지 하나가 또한 영상 한 프레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현실이다. 행사의 구성요소 중 코어(core)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20세기를 기록한 위대한 사진작가, 알프레드 아이젠슈타트(Alfred Eisenstaedt, 1898~1995)의 작품과 철학에 대해 주목하고 우리의 사진 결과물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본다. 인물과 풍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작이나 표정을 재빠르게 포착하는 수준의 ‘스냅 사진(Snapshot)’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토 저널리즘’의 정신을 담아내야 한다. 이는 개인간의 기록을 넘어 조직(기관)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또한 현대의 한 장면을 상징할 수도 있기에 그러하다.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일부 시퀀스에서는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장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보는 맛이 생기기 때문이다.

1) 유관기관 방문 및 초청 행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초청으로 방문과 답방의 기회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며 우리 사업에 대해 여기저기서 관심이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현장 인프라(생산 거점 포함), 연구소, 사무실, 박물관, 홍보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담회 > 현장 관람 및 현황 브리핑, Q&A > 협력 협약 세리머니’ 순서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단출하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단위를 실제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포토 스



[삼성과 코닝의 50년 협력관계 기념행사 사례]

팟(사진 맛집)에서 진행되는 단체 기념촬영으로 종결된다. 지켜본 바로는 의외로 타 시설은 목적에 맞게 훌륭하게 조성되었는데 사진 촬영 장소를 간과한 사례들이 많았다. 만일 우리 기관이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추후 공간(사무실, 생산 현장 등) 재배치 과정에서 이 점을 유념해서 미리 계획해 보도록 하자. 추가로 간단한 조명등까지 설치된다면 금상첨화다.

■ 개인 명함을 심분 활용하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명함을 서랍에서 꺼내 한번 살펴봤으면 한다. 예상컨대 기관명, 타이틀, 성명, 주소, 홈페이지/이메일 등으로 구성된 수많은 정보들이 앞에는 중문으로 뒤에는 영문으로 숨실 틈 없을 정도로 빼곡히 들어차 있을 것이다. 본부(본사)의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나 여유가 된다면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생략 가능한 정보(예를 들어 오프라인 주소 등)들은 앞면 하나에 과감히 줄이는 대신 뒷면에 대한 기획을 새로이 해 볼 수 있다. 아주 과감하게 간단한 템플릿만 유치한 채 공백을 두어 메시지를 직접 글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되겠다. 만남과 축하의 인사를 개인의 자필로 해서 독특하게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중국어가 가능하면 중국어로 써도 되겠다. 여력이 된다면 기존 명함 사이즈보다 크기를 키우고 두껍게 제작한 스페셜 네임카드이면 더더욱 좋겠다. 그 자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를 향한 메시지 카드이자 고객용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인의 캐리커처 이미지가 있다면 거기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기록에 감정을 녹여내자

우리의 소중한 공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주거나 발길을 향하지 않을 것이기에 여러 가지 기록물 중에서 최적의 수단을 선정하여 상호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대상은 정부의 유력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전략적 파트너(우수 거래선 및 고객), 미디어 등 각각의 의미 있는 그룹일 것이다. 모두들 허투루 대할 수 없거니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해 보인다. 참석인사들과 함께 장소를 상징하는 사진 백드롭에서 해당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제품을 손에 들고 미소 연발의 기록사진은 기본에 충실하지만 100점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상생과 협력을 기념하는 촬영 예시]

예를 들어, 오랜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수장들끼리의 격한 ‘포옹(허그)’도 구사해볼 수 있으며, 연령대가 다소 젊고 역동적인 스케치가 필요하다면 ‘어깨동무’ 포즈도 좋겠다. 다수의 인원들이 함께하여 미래를 위한 약속을 위해서라면 ‘손 맞잡은 어울림’ 자세도 적합해 보인다. 추가로, 개최 당시 계절적 요인으로 날씨가 덥거나 미래 담론을 주제로 한 미팅에서는 드레스 코드도 와이셔츠나 티셔츠 차림으로 캐주얼 하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전시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박람회 초청된 인사들의 현장 프로토콜은 대략 ‘테이프 커팅 > 홍보관 브리핑 > 참가부스 라인투어’ 정도로 진행된다. 개관 세리머니를 위한 테이프 커팅은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메인으로 라인투어에 점차 방점을 찍었으면 한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여기서 나오고 진정한 소통의 채널도 이 자리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 오늘 하루는 홍보대사가 되도록 하자

한때 TV 광고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다. 우리가 전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브랜드)들도 대체로 이 범주 안에 모두 포함된다. 각 기관을 대표하고 조직에 속해 있는 인사들은 그 자체로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인물임에 다름 없다. 참여하게 된 전시회에서는 내 안의 나를 잠시 내려놓고 주최측에서 준비한 혹은 권유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했으면 한다 시음시식을 권하면 ‘먹방 유튜버’가 되어야 하고,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면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어 나를 던져야 한다. 현장에서 임하는 태도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무형의 지원을 발판으로 소중한 홍보 기회가 주어진 해당 기업(업체)들에게 이를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 큰 힘이 보태질 것이다.

■ 카메라가 on-air 되고 있음을 명심하자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라인 투어 시 현장에서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가장 무난해 보였으며, 제품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관심을 표하고, 턱을 괴고 골똘히 탐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추가로 지양했으면 하는 팁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질문을 위해 검지 손가락을 펼쳤을 뿐인



데 사진으로는 마치 현장에서 지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거나, 우연히 취한 뒷짐 포즈로 인해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거나 하는 것이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기록은 잘나로 남기에 주변에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하에 조금 의식적일 필요는 있겠다.

3) 관혼상제는 어떻게 축하해주고, 위로해 줄 것인가?

전통적으로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규정하는데 있어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미엔즈(面子)’ 일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누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인생철학의 첫 번째 원칙으로 손 꼽는 이들도 많다. 예전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합리적으로 바뀌고 형식보다는 효율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대적 특징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미엔즈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각 개인의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자 마땅한 도리 수준으로 해석하고 싶다.

여기에서는 조직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무시로 접하는 사람들 관혼상제의 일반적인 진행방식과 함께 참석 요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원칙은 각 조직과 단위에서 이미 마련된 결혼·상조 규정(婚喪假規定)에 의거 처리하되 조금 더 각별한 상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결혼’ 어떻게 축하해줄까?

한국과 중국의 결혼식 차이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주인공이 누구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집안 혼사의 느낌이 강해 혼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만 중국에서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 오롯이 신랑신부라는 점이다.

결혼을 전문적으로 치르는 웨딩홀에서 짜인 식순으로 진행되는 ‘K-웨딩’이 한국에 있다면 중국에서는 신랑신부의 개성을 반영하여 호텔이나 특별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서구적

파티에 가까운 형식이 선호된다. 해서 대체로 우리 눈높이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호사스럽고 과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컨셉트의 차이로 인해 하객 초청 방식도 한국과 달리 대량 배포 보다는 꼭 초대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 엄선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익히 보아왔듯 브라이덜 샤워(bridal shower), 고급차 퍼레이드, 공연, 만찬 등 축하 파티에 걸맞게 화려하게 진행되고 시간 또한 길게 책정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하 방법은 두둑한 홍bao(红包)와 함께 초대를 받았다면 응당 결혼식장에 직접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다.



■ ‘장례’ 어떻게 위로해줄까?

필자가 거주하는 베이징에서도 1~2년에 한번 정도는 조등(弔燈)이 걸려 있는 집에서 제례를 치르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배웅하는 가운데 상여가 나가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물론 대도시 토박이들이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바뀐 장례문화로 인해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고 하고 우리네 장례식장(喪場)과 같은 빈의관(殯儀館)에서 모든 일들이 처리되고 있다. 장례문화가 생경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에서는 직계 가족이나 아주 가까

운 지인들이 아니면 초대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인 스스로도 직접적인 참여 경험이 없으며 주변에도 그런 경험담을 듣거나 접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기관(단위)에 속해 있는 직원 및 지인들의 상당수는 대체로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터를 잡고 있는 인원들일 것이다. 연령대를 보자면 부모님이 대상이 될 것이고 이런 관계로 주로는 본가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례가 많다.

기관장(단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즉시 휴가를 부여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이동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현실에 복귀하면 해당 인원과 함께 차 한잔 나누면서 망자에 대한 회상과 함께 조의금을 직접 전달하고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인사 방법이 되겠다.



4) 공동 주최 행사 시 유의사항: 호스트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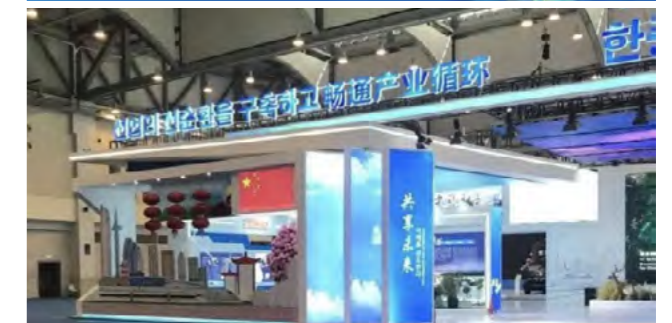
게이트 키핑(gatekeeping)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메시지가 선택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fact)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며 이를 주로 다루는 위치에 있는 인물을 게이트 키퍼(gatekeeper)라고 한다. 또한, 컨펌(confirm)은 일상 생활 및 회사 업무에서 확실한 결정이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의사소통, 계획의 확정, 거래의 승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게이트 키핑과 컨펌은 행사 업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실수가 줄어드는 행사 업무의

특성상 업계용으로 ‘검수’의 의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구축된 국내가 아닌 밖에 나와서 다양한 출신들의 인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독자들과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볼 지점이 있다.

■ 오직 검수만이 살길

중국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초청 한국기관을 배려하기 위해 중문과 한글을 병행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다. 그 자체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씀씀이가 우리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초청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행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중요한 지점에서 ‘오역과 오타’ 같은 사건사고 발생이 많았던 경험이 있다. 아무래도 업무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았거나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과물을 내보낸 잘못된 것이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협업의 정신이다.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를 요청하고 검수를 같이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한글 슬로건에 오타가 있었던 사례]

최근 들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 분들은 본인과의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유교적 문화가 깊이 깔려 있어 남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대체로 좋은 얘기 들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관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동 파트너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현명하게 수정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지금 당장에는 다소 얼굴이 붉어지더라도 결과의 만족스러움을 위해 겪어야 하는 일종의 과정으로 여겨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해 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한국측 주최행사 역시 위 과정을 역지사지해서 차분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 베테랑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

MZ, Z세대, GEN-Z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의 등장으로 사회 곳곳에서 소위 중년의 기성세대들은 여러 면에서 위협받고 있다. 정보량, 학습 및 업무 스피드, IT 능력치 등 특정업무 분야에서는 상급자들을 월등하게 압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지금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층부의 시니어들도 ‘꼰대력과 지적질’로 대항할게 아니라 노련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신구(新舊)의 조화를 펼쳐 보여야 한다. 젊은 친구들의 반짝 반짝한 크리에이티브를 온 몸으로 받아 들이는 대신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디테일과 깊이를 상대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업무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위 역할분담에 대해 실증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 출신 디자이너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이들이 주로 경험하는 인터넷과 SNS에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열의가 앞선 나머지 과감하게 사용한 ‘태극과 사괘,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과도 같은 한국 관련 상징 모티브들이 잘못

사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 레트로 유행에 따라 복고가 강조된 나머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창작자의 무지로 인해 북한쪽의 이미지 차용이라든가 출처와 근거가 불명확한 말 그대로 오리지널에서 한참 벗어난 디자인들이 혼재되는 사례도 등장했다.

또한, 역사적 관점의 미비에서 벌어진 그저 멋지다는 이유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旭日旗, Asahi Flag)와 신사(神社) 토리이(鳥居) 그래픽도 있을 만 하면 갑툭튀로 등장하곤 해서 이내 철회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도 있었다.

마침표(.)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된다. 행사 날짜와 같은 숫자와 요일 표기에 꼬박꼬박 찍는 경우와 함께 ‘~하다’, ‘~다’와 같이 서술어로 끝나는 한글 슬로건에서도 종종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병기되는 타이틀에서는 중문 타이틀에서는 中国이 먼저, 한글에서는 한국이 먼저 소개되면 큰 무리가 없겠다. 예를 들면 ‘中韩建交30周年纪念招待会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과 같은 방식이 되겠다.

3. 호모 코무니칸스(Homo Communicans)

고대 로마 사람들이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호칭을 만들 때 ‘호모 코무니칸스Homo Communicans’가 있었다. 이 말은 라틴어로 ‘교류하는 인간’을 뜻한다. 예나 지금이나, 교류는 인간 삶에서

새로운 것을 주고받는 변화의 시작점이며, 감사와 행복을 양대 가치로 신봉하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얼마 전 마무리된 코로나 이후 베이징에서 개최된 가장 큰 행사였던, 2024년 제18회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를 보면서 몇 가지 단상이 떠오른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아젠다를 소개하자면 본격 전기차 르네상스 시대 개막, 중국 제조업 굴기 도래, 세계 글로벌 기업의 여전히 중국 시장 구애(求愛)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대내외 경쟁에서 다소 뒤쳐진 한국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초심의 자세로 배우고 협업하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의 눈에 목격된 한 언론¹⁾의 분석은 그 자체로 명쾌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글로벌 기업들이 오프라인 모터쇼를 외면하던 분위기를 베이징이 완전히 역주행했다”는 점을 그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남다른 시각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했고 예리하게 밝혀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마케팅의 주된 흐름은 SNS, AR/XR 등 비대면(언택트) 방식이 만능 치트키(cheat code)처럼 여겨져 왔었고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고비용 비효율과 함께 지난 시절 유행했던 ‘올드 패션’ 정도로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강했었기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분석이었다.

노동절 연휴에 정점을 기록했던 상반기의 폭발적인 여행수요가 그러했고 기록적인 공연 개최실적이 증명했듯 오프라인 기반의 우리의 삶 역시 이전과 별반 다르게 변하지 않았음을 각종 지표에서 나타내고 있다. 더더군다나 호모 코무니칸스 즉, 그 어떤 인류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kinship)를 중시하고 일상으로 최적화된 중국인과 중국시장에서 박람회와 이벤트로 대변되는 소비자 대면 접촉활동은 여전히 마케팅의 강력한 매개수단이며 소통의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베이징 다이어리] 5대 모터쇼 옛말... ‘원톱 무대’ 된 中 베이징 /아시아경제 2024년 4월 28일자 기사 참조



4. 연재를 마무리하며

총 5편의 연재로 구성된 ‘중국 행사 사용설명서’는 우선 여기까지이다.

필자 스스로도 과거를 되짚어 보고 지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해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영입기밀과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 못하고 본질에 깊게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과 문턱에서 머문 글의 깊이가 얕음에 대해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 부디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채워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인사를 올리고 싶다.

짧은 시간 동안 독자들과 글로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중국 주재기간 늘 건강하십시오. 🙏



권오신 대표
北京爱艺德文化发展有限公司
(midas@idcommchina.com)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글로벌 기업의 행사, 전시, 포럼, 영상제작 등 홍보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을 무대로 20년이 넘는 業力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자본과 우리기술로 대한민국이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베이징에 본사를, 한국에는 (주)아이디컴코리아를 두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현재

글_ 김재훈(월간중국 통신원, 지린대학 전임강사)

이번 2024년 5월호 칼럼의 주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현재」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초에 중국에서 주류학술계의 학술지인 《화동경제관리》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1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의 제목은 《중국 플랫폼 경제의 현황·의의·문제와 대책》입니다. 저자는 총 4명으로 성명은 각각 리위메이(李玉梅), 가오허펑(高鹤鹏), 천양의(陈洋毅), 류루(刘璐)입니다. 이 중에서 리위메이는 중공중앙당교(中共中央党校)의 신문사(报刊社) 소속의 부편집자(플랫폼 경제담당)이며, 가오허펑은 인민대학교(人民大学) 소속의 박사생입니다. 그리고 천양의(박사생)와 류루(석사생)는 모두 중공중앙당교 소속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플랫폼 경제에 관해서 한국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과 비교해보면 본 논문의 내용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의 제약을 감안하여 바로 본 논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칼럼의 내용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류사회 속에서 정책결정자로 임하고 계신 독자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림 1 중국의 학술지 《화동경제관리》: 2024년05월호



출처: 中国知网CNKI (www.cnki.net)

원문의 제목: 《중국 플랫폼 경제의 현황·의의·문제와 대책》

1. 서론

21세기부터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형 정보통신기술(ICT)이 점차 사람들의 생산방식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디지털경제에서 ‘고품질’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점차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경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발전해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며, 또한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이 낳은 새로운 경제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조직의 형태(혹은 경제적 총체)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국무원 산하의 독점금지 위원회는 2021년 2월에 발간된 《플랫폼 경제에 관한 국무원 독점금지위원회의 독점금지에 관한 지침》에서 “플랫폼은 네트워크 정보기술(IT)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양자 또는 다자간의 주체가 특정한 매개체가 제공하는 규칙하에서 상호 작용하며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비즈니스 조직의 형태를 지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국가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 디지털경제의 발전 백서》(2020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유형의 시장 주체와 자원을 함께 통합하여, 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직된 새로운 모델 및 새로운 산업이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 기업이 사회

적 재생산의 과정에서 다른 경제주체와 형성하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 경제는 정교한 데이터의 수집 능력과 함께 발전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디지털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공간·국경·서로 다른 영역 간의 장벽을 초월하며 사회적 생산 그리고 재생산의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실현하게 된다.

새로운 경제체제인 21세기의 플랫폼 경제는 시장 모델·운영방식·편의성 등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시스템과 매우 상이하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배분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자원배분의 방식과 달리 플랫폼 경제는 더욱 높은 효율성과 더욱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전체에서 총공급과 총수요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의 각계각층에 침투되어 디지털의 시대라는 배경하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생산(生产)의 과정에서 플랫폼은 전통적인 기업의 생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디지털기반의 과학기술·디지털방식의 관리 및 융합형 자원의 결합 효과를 통해 플랫폼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①디지털화로 생산성이 증가; ②노동과정의 혁신성이 촉진; ③노동생산의 효율성이 개선.

둘째, 분배(分配)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플랫폼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는 이미 중요한 생산자원이 되었다. 만약 이런 디지털화의 생산요소를 점유할 수 있다면, 플랫폼기업은 부(财富)의 창출과 분배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유통(流通)의 과정에서 플랫폼은 운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운송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플랫폼은 전통적인 상품의 유통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현실세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보다 효율적인 대화채널을 형성하고도 있다. 그리고 이는 현대적인 물류창고의 재고관리 시스템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①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보다 정확하게 배송됨; ②자본이 순환되는 총시간이 최대한 단축됨; ③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음.

넷째, 소비(消费)의 과정에서 디지털화는 사람들이 소비를 선택하는 행동패턴을 변화시켰다. 플랫폼 경제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①구매행위를 자극하여 소비총량을 증가시킴; ②일반인들의 소비행위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킴; ③스마트폰과 같은 무선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소비행위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이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 ④국내시장 혹은 국제시장 간의 물리적인 경계가 점차 모호해짐.

2021년에 개최된 중국의 국가중앙경제 위원회의 제9차 회의에서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는 발전과정에서 전반적인 상황이 양호하고 역할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두드러지는 문제점들도 함께 강조되었다: ①일부의 플랫폼 기업들이 발전과정에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음; ②금융(과 사회적) 측면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음; ③플랫폼 경제의 발전수준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 ④플랫폼의 새로운 폐해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음; ⑤관리감독의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음.

종합해보면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중요한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동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사회경제의 전체에도 막대한 효용증가를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생산·분배·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첫째, 생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데이터는 플랫폼 경제에서 생산요소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에 플랫폼기업은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유통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배의 측면에서 본다면, 플랫폼은 소득 분배에서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고 심화하게 되었다. 즉 자본가들은 거대자본의 절대우위를 사용하

여 플랫폼과 연관된 제3자인 소규모 기업들과 개별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점차 자신의 손아귀로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유통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플랫폼의 서비스들은 초기단계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타경쟁기업이 진입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때문에 이는 결국 소수 거대기업의 독점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넷째, 소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플랫폼은 사람들이 소비행위를 선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또한 (공급자측의 의도에 따라) 불필요한 소비가 무의식 중에 유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는 젊은 소비층들이 무분별하게 과소비를 하게 되거나 맹목적으로 유행을 추종하는 부정적인 소비습관으로 이어지기도 된다.

상술한 현실상황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는 중국정부가 거시경제를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문은 중국에서 플랫폼의 발전 현황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은 앞으로 중국이 플랫폼(경제와 기업)을 거시경제의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정

중국에서 플랫폼경제는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전후의 기간동안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플랫폼경제의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발전을 위한 탐색단계(1998~2007년), ②안정적인 발전의 단계(2008~2013년), ③급속한 발전의 단계(2014~2019년) 그리고 ④고품질의 발전단계(2020년~현재).

(1) 발전을 위한 탐색단계(1998-2007년)

발전을 위한 탐색단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은 중국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넷 핵심기업들의 설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①텐센트(Tencent), ②시나(Sina),

그림 2 중국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인터넷) 기업의 로고



출처: 바이두 (www.baidu.com)

③알리바바(Alibaba), ④바이두(Baidu). 이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 중국에서 인터넷기업들의 수익모델과 영업수단은 매우 빈약했다. 이는 크게 3가지 분야로 요약될 수 있다: ①온라인 게임의 부가 서비스; ②광고 사업; ③인터넷 플랫폼의 쇼핑.

일례로 1998년 11월에 텐센트가 설립된 이후에 출시된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은 소셜 커뮤니케이션(SNS)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서 SNS 플랫폼이 대중들의 일상생활로 확산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의 12월에 Sina.com이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일반 가정에도 인터넷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었으며, 점차 대중들에게 더욱 다양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 사이트로 발전하게 된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며, 2000년 1월에는 바이두가 창립을 선언하게 된다. 이로서 중국의 3대 인터넷 거대기업(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과 중국의 3대 포털(소후·시나·왕이)이 함께 공동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1.0시대를 견인하게 된다. 하지만, 2000년이 되어서는 20세기말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형성되었던 IT버블이 붕괴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인터넷 시장과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된다.

마치 매서운 겨울폭풍과도 같았던 IT업계의 버블충격이 지나가면서, 중국에서 인터넷 분야는 2003년부터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도 점차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며 중국의 국내사회에서도 인터넷의 대중화는 가속화됩니다. 당시 알리바바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인 ‘타오바오’(淘宝网)를 구축한 뒤에 인터넷 기반의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支付宝)를 출시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모델을 연이어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점차 온라인 게임·인터넷

쇼핑·정보검색·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도 확장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10년 동안의 발전을 위한 탐색기간 동안,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방향과 발전방식이 점차 명확해지게 된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는 차츰 발전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또한 중국에서 점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녹아들기 시작한다.

(2) 안정적인 발전의 단계(2008~2013)

안정적인 발전의 단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은 2008년 8월 1일에 발효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독점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중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의 플랫폼 경제는 마치 봄날의 꽃들이 한꺼번에 개화하는 것처럼 꽃피우기 시작한다.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플랫폼 경제의 범위 내에서 점차 상업화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플랫폼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였다. 일례로 타오바오는 2009년부터 ‘광군절’(11.11.)이라는 인터넷 상의 쇼핑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메이탄’(美团)으로 대표되는 생활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 2010년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다. 동기간 차량호출을 위한 플랫폼인 ‘디디’(滴滴)도 탄생하게 된다. 안정적인 발전의 단계에는 중국의 국내사회에서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 보급률도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에 중국의 주류사회에서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무선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으며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간동안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인터넷과 금융이 함께 융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에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支付宝)가 ‘위어바오’(余额宝)의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에 단 1위 안의 소액이라도 금융 재테크(理财)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기반의 금융플랫폼은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일부 플랫폼기업들 간에는 이익의 구조적인 충돌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년에 텐센트(腾讯)와 치후360(奇虎360)의 양사간에 발생한 ‘3Q전쟁’(3Q大战)을 꼽을 수 있다. 종합하자면 상술한 안정적인 발전의 단계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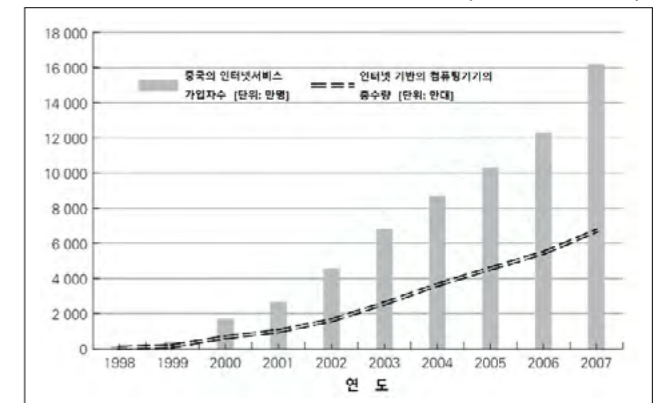
플랫폼 경제는 점차 중국의 국내사회에서 거시경제의 측면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

(3) 급속한 발전의 단계(2014~2019)

급속한 발전의 단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은 2013년말에 중국의 (국가)공업과 정보화부(工信部)가 첫 번째로 4G(기반 정보통신 표준의) 라이선스를 발행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본격적인 대중화와 함께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당시 일반 대중들은 인터넷 쇼핑·SNS서비스·일상생활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플랫폼경제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기존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점차 스마트폰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 플랫폼 경제의 총규모는 폭발적인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의 (국가)정보통신기술원이 발표하는 《플랫폼 경제 및 경쟁정책의 관찰》(2020)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초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총 74개로 집계된다. 이중에서도, 2019년에 총 15개의 신규 플랫폼기업이 새롭게 소위 “시가총액 \$100억 달러의 클럽”에 진입할 수 있었다.

2019년말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기업가치가 최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기업들 중에서 총 8개의 기업이 디지털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다음의 다국적기업들을 포함합니다: ①애플, ②MS, ③구글(알파벳), ④아마존, ⑤페이스북, ⑥알리바바, ⑦텐센트, ⑧Visa. 분명하게도 해당 6년간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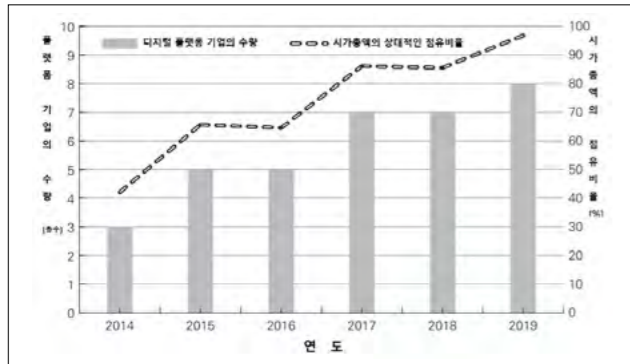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인터넷서비스의 활용현황 (1998~2007년)



출처:李玉梅、高鹤鹏、陈洋毅、刘璐：《中国平台经济的现状、意义、问题及对策》，载《华东经济管理》2024年5月第38卷第5期，第71页。

동안 글로벌마켓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폭발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중국의 플랫폼 경제도 매우 빠른 발전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신흥분야에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신흥 플랫폼기업들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전체 수량과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①지역생활에 기반한 서비스, ②디지털기반의 언론매체, ③스마트화의 물류서비스, ④의료와 건강 서비스, ⑤금융의 과학기술 분야, ⑥전자상거래, ⑦온라인 교육 등등. 그리고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간의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되고 또한 이들이 독점적 이익을 한층 더 노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플랫폼기반의 거대 기업들 간에 인수합병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게 됩니다.

그림 4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 10대기업: 디지털 플랫폼기업의 수량 및 점유율 (2014~2019년)



출처:李玉梅、高鹤鹏、陈洋毅、刘璐:《中国平台经济的现状、意义、问题及对策》,载《华东经济管理》2024年5月第38卷第5期,第72页。

(4) 고품질의 발전단계 (2020~현재)

고품질의 발전단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은 2020년에 중국에서 (국가)시장 규제총국이 기존에 독점적인 거래행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진행한 심층조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의 사회활동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는 플랫폼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일례로 중국의 주류사회에서는 덩딩(钉钉)·팅션회의(腾讯会议)·팅션강의실(腾讯课堂) 등의 온라인 사무용 프로그램들이 중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회의를 위해 활용되었다. 또한 다

양한 교육기관들도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강의시스템을 적극 채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새롭게 채택하는 법률적 규칙과 규정도 이들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조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기간동안 중국정부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 "포용적이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었다. 일례로 2020년 7월에 중국정부는 발전개혁위원회 등의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새로운 업종 및 신모델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시장을 활성화시켜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플랫폼의 ①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②정보의 교환과 거래 및 물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③금융기관이 시스템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0년 말에는 중국에서 디지털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독점(에 관한 제약)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알리바바가 그동안 암암리에 소규모의 협력업체들에게 강요해온 ‘(특히 알리바바와 텅션과 같은) 둘 중에 하나의 플랫폼만을 선택’해야 하는 약속이 문제시되기에 이른다. 이에 알리바바는 2021년에 중국정부 측의 심층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2021년에 182.28억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중국의 (국가)시장 감독 관리총국은 자국내의 거대 플랫폼 기업집단인 메이판과 디디추싱 등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독점혐의가 의심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내에서 플랫폼 경제는 과거의 야생적인 성장단계로부터 점차 새롭게 규범화된 고품질(高质量)의 발전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운영과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역사기간 동안 어떻게 플랫폼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아가 고품질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명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에 과학기술이 한층 진보함에 따라,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는 지난 20년간 효율적인 발전을 이루며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최상위 그룹의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시장지위와 브랜드 우위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독점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정상적인 시장질서의 안정과 유지에도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플랫폼 경제에서 ‘고품질’의 발전은 정부기관과 함께 시장의 효율성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상술한 배경하에 플랫폼 경제는 앞으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상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플랫폼 경제는 (사회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견과 시사점

이상으로 중국의 주류학술계에서 2024년 5월에 《화동경제관리》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인 《중국 플랫폼 경제의 현황·의의·문제와 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명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면의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에서 앞부분의 2개 부분만을 최대한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참고를 위해 나머지 3개 부분의 핵심내용에 관한 보충설명을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제3장,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키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필자들의 주요 논점은 크게 5가지의 사안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가 자국내의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①사회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음; ②디지털경제의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임; ③(중국의) 기업들이 디지털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선택임; ④전체 산업생태계에서 가치사슬의 현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경로임; ⑤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 있음.

그리고 “제4장, 현재 (중국의) 플랫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필자들의 주요 논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플랫폼의 독점과

자본세력의 무질서한 확장이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②법률체계와 관리감독 시스템이 (중국에서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질적 향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③디지털 기술의 남용과 데이터의 보안상 위험은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임.

마지막으로 “제5장,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거버넌스의 강도를 강화하여 자본(세력)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함; ②플랫폼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체계를 완비하여 플랫폼에 대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완성해야 함; ③플랫폼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남용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데이터의 안전 및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해야 함.

필자가 판단하기에, 상술한 논문의 내용은 비교적 간결하게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의 시작부터 2024년 5월의 현재시점까지의 발전과정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21세기의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 혹은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여 정책·이론·패러다임·문명이라는 각각 서로 다른 레벨에서 진행중인 대전환의 논리구조를 파악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인의 위버멘쉬가 조금 더 중국의 관점에서 플랫폼 경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1]李玉梅、高鹤鹏、陈洋毅、刘璐:《中国平台经济的现状、意义、问题及对策》,载《华东经济管理》2024年5月第38卷第5期,第69-77页。



김재훈
현재 중국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SIPA)에서 전임강사로 재임중임. 베이징대학의 국제관계학원(SIS)에서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음.

‘열하일기(热河日记)’를 따라가는 북경 문화유산 답사 유리창(琉璃厂)

글_ 윤규섭(‘대륙의 길을 묻다’ 저자)



명나라 때에는 조선이 사대(事大)하던 천자국(天子國)을 향한다는 뜻에서 “조천사(朝天使)” 불리우던 사신단은 조선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한 이후에는 명나라 대신 청의 수도 심양으로 향했는데 정기적으로 가던 사신단만 매년 4회에 이르렀다. 만주에서 발흥한 청이 산해관(山海關)을 넘어 중국대륙을 접수한 이후부터는 연경(燕京, 북경)을 향한다는 “연경사(燕京使)”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북경의 별칭인 연경은 전국시대 연나라가 있던 지역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단순한 지명에 불가한 것으로 오랑캐인 만주족의 나라에 사대할 수 없다는 당시 조선의 고민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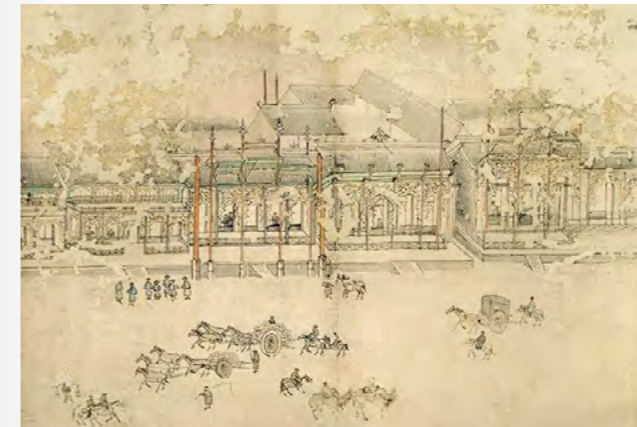
멀어진 거리로 인하여 사행 횟수는 축소되어 연간 1회의 정기적인 사행과 필요시 목적에 따라 사은사(謝恩使)·추정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진주사(陳奏使)·진위사(陳慰使)·진향사(進香使) 등 각종

명목으로 임시 사절단을 북경으로 파견하였다. 인조 이후 250여년간 연경사행은 물경500회이상 지속되었으니 년 평균 2회이상 사행이 있었다. 사행의 전체 기간은 북경에 머무는 약2달간의 시간을 포함하여 5~6개월이 소요되었으니 년중 조선의 사행단이 사행의 길에 있거나 북경에 교대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사행단의 역할은 당연히 청의 황제를 배알하고 공물을 바치며 적절한 외교문서를 전달하여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위협을 느끼던 중국의 정세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다. 특히 공식 사절인 삼사(정사, 부사, 서장관)중 서장관(書狀官)은 사행중에 보고 들은 문견록(聞見錄)을 작성해 귀국 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삼사와 통역을 담당하는 대통관(大通官), 공물운반을 책임지는 압물관(押物官

)등 공식 사행원은 30여명이었고 명분상 경호를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삼사가 지정하여 견문을 넓히려는 자제군관과 기타 수행원들을 합치며 거의 300여명에 이를 정도의 큰 규모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행단은 매년 평균 2회, 약 500~600명씩 중국을 왕래 하였으니 당시 폐쇄된 조선의 사회상을 고려해볼 때 사행단을 통한 중국과의 문화, 문물, 사상의 교류는 조선왕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한마디로 나랏문이 꼭 잠긴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는 <신사유람단>과 함께 오랜 세월동안 바깥 세상을 보는 유일한 해외시찰단이자 연수단이고 조사단이 었던 것이다

조선이 세상을 보던 창문(窗), 유리창(琉璃厂)



연행도(燕行圖)의 유리창(琉璃厂)

조선 중기 이후 더욱 교조화되어 가던 성리학의 명분론에 실학(實學)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한 무리가 이러한 연경사행에 참여했던 인텔리 들로 북경을 다녀온 후 북쪽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북학파(北學派)”로 불리우는 집단이다. “북학파”에는 우리의 스타 연암 박지원(朴趾源)을 필두로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김정희(金正喜)등 조선 중후기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사행을 통해 오고 가는 길에서 그리고 북경에 머무르며 새로운 문화와 학술 및 경험하고 서양의 사상과 종교가 기술된 서적과 물건들까지도 수집하며 중국 현지의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서양의 선교

사들도 만나고 교류하던 곳이 바로 유리창(琉璃厂)이라는 곳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거의 300여년동안 중국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접하고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들여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이 북경이 있었다면 그 북경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유리창(琉璃厂)”이다. 한마디로 “조선이 중국과 세계를 바라보던 창문(窗門)”이었다.

사행단이 북경에 머무르며 조선과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데 유리창만큼 다채롭고 화려한 세상은 없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한 마디로 뉴욕의 브로드웨이 거리이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이자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었다. 사신단에게 중국과 세계의 문화를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 주었던 유리창 거리가 지금은 현대화의 뒷안길에서 중국의 여느 전통거리와 다르지 않게 조락의 분위기가 농후하다. 하지만 지금도 그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자면 화려했던 옛모습을 상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조락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유리창 거리

유리창 거리는 북경성의 정문인 정양문(正陽門)과 연암의 사행단이 머물던 서관(西館)에서 내성을 나서는 선무문(宣武門)의 성벽 남쪽에 동서로 약2킬로미터의 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해왕촌(海旺村)이라 불리우던 이곳은 원나라 대도(大都) 시절부터 북경성의 궁궐과 큰 건물 건축에 필요했던 각양각색의 화려한 유리벽돌과 기와, 즉 유리와(琉璃瓦)를 생산하던 공장이었다. 명나라 때 외성(外城)을 건설하여 북경성을 확대하면서 성내로 편입되었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위험한 공해시설인 기와공장은 황성에서 멀고 깎임이 풍부한 북경의 서쪽 교외 문두구(門頭溝)쪽으로 이전하였다. 공장 지대였던 지

라 장소가 넓고 집값이 저렴했지만 북경 내성의 출입이 용이한 요지였기에 이곳은 각종 상품을 파는 상가가 하나, 둘 들어오면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희귀하고 다양한 서적들을 거래하는 서점들과 전국에서 명품으로 대접받는 귀한 문방사우(文房四友)를 파는 상점들 그리고 당대 예술가들의 글씨와 그림 작품들 그리고 귀한 비석의 탁본을 거래하는 화랑등 각종 문화 상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들어 성시를 이루며 확장되고 번성하였다.



유리창의 가판대 서점

이곳에는 매10일마다 3일간은 정기적인 장이 열렸기에 고정된 로드 샵 뿐만 아니라 싸고 귀한 물건들의 거래를 위해 노점상들도 많았고 싸고 좋은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북경성에 근접한 곳이다 보니 과거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과거를 보기위해 모여드는 서생들이 집합하고 기거하며 과거를 준비하거나 과거에 낙방한 사람들이 당분간 머물며 귀향을 준비 장소였기에 당 시대의 인텔리들이 서로 전국 각지의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소이자 과거를 포기하거나 귀향자금을 마련하려는 서생들이 가지고 온 서책이나 문방구를 처분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당대의 문화 예술인들도 모여들면서 그야말로 문화와 예술, 학문의 분위기가 넘실거리는 인사동 거리가 되고 대학로, 청담동거리가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 길을 따라 주변에는 만남의 장소인 화려한 식당들과 객잔(客棧)들도 집중되며 더욱 화려하게 번성하게된다. 서점과 문화용품점 외에도 갤러리와 공연장, 맛집과 살롱들이 모여있고 신문화와 유행이 가득한 학문, 예술의 거리가 된 것이다.



필방(筆房),지방(紙房),표구점들이 모여 있다

통상 사행단은 출발 3개월전쯤 구성하는데 사행단에 뽑힌 이들 중 공식 사절단들은 황제에게 전할 외교문서와 공물을 준비하여야 하겠지만 자제군관 등 부담이 적은 수행원들에게는 3200백리를 가고 오는 길과 약 2달을 머물게 될 북경성에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할지 사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런 사전 준비에 최고의 정보원은 당연하게도 이전에 이미 사행의 경험이 있는 이 들일 터이니 삼사를 역임한 고관들과 관련된 양반의 자제들이거나 통역관등 중인 계급의 인텔리 들이었다. 먼저 그들을 만나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것은 연경행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이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창의 방문과 활동은 맨 앞에 배정해야 할 일이었다. 이곳에 가면 전임자들이 교류하며 인연을 쌓았던 중국의 친구를 찾아 안부와 인사를 전하고 인편으로 어렵게 소식을 전하던 시절이니 고이 접어 가지고온 그들의 서신을 전달하는 것 또한 그들의 역할이었다.

친구(朋友)와의 인연(关系)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에서 먼 이국(異國)의 옛 친구(老朋友)가 보내온 소식을 전해주고 추천해 주는 새 친구와 금방 오래된 옛 친구와 같은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중국인들과 교류해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옛 친구가 소개하는 친구를 대접함에는 마치 그 옛 친구 대하는 것처럼 하여야 하고 자신의 친지와 친구들도 불러 소개하고 교류하게 만남을 주선해주는 것은 중국의 오랜 전통이자 문화이다. 이런 문화는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연 끈이 이어

지고 있었기에 사행단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중국의 학자들이나 선비들과 깊은 교분관계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나빙이 그려준 박제가의 초상(좌)과 추사와 스승의 연을 맺은 옹방강(우)

사행 참가자들이 유리창에서 이렇게 맺은 인연으로 조선중기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과 청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 끈끈한 교류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로의 문집을 교환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실학의 거두 홍대용(洪大容)과 청의 유학자 엄성(嚴誠)의 인연, 아직도 전해지는 초상을 그려준 <북학의>의 저자 박제가(朴齊家)와 나빙(羅聘)의 우정, 50살에 가까운 나이 차이를 넘어 사제의 정을 맺고 교류한 조선의 실학자이자 서예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 청나라의 거유(巨儒) 옹방강(翁方綱), 옹수곤 부자의 대를 잇는 인연, 그리고 추사의 고증학 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깊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자신의 호를 완당(玩堂)으로 짓게 된 학자인자 서예가 완원(玩元)과의 인연들은 시대에 남을 감동적인 우정 스토리는 지금도 한중 교류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다.

조락하는 유리창

이렇듯 조선의 사행단과 많은 사연을 간직한 유리창 거리를 돌아보자. 지금은 이름만 남았지만 일본인들이 북경성을 뚫어서 만들었다는 화평문(和

平门)앞에서 신화가(新华街)남쪽으로 조금만 내려 가면 전통의 지붕 덮인 풍교(楓橋) 양식으로 지어진 멋진 육교를 만나 되는데 이 곳으로부터 동서로 각각 1킬로미터가량 유리창(琉璃厂) 거리가 이어진다. 동쪽으로는 중국서점(中国书店)앞으로 커다란 회수(槐树)가 너른 그늘을 만드는 동(东)유리창가가 시작되고 건너편으로는 아마도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서 깊은 화랑이자 문화상점인 용보재(榮寶齋)에서 시작하는 서(西)유리창가가 이어진다.



유리창 거리의 동서를 가르는 풍교(楓橋)형식의 육교

필자가1995년 처음 북경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곳은 유서 깊은 한약방 동인당(同仁堂)과 함께 가이드들이 기를 쓰고 데려가는 북경여행의 필수 코스였었다. 시간내 일정을 소화하려는 바쁜 가이드에 이끌려 총총걸음으로 부지런히 지나간 기억 속에서도 거리에는 고풍스런 작은 고서점들과 골동품 상점이 즐비했다는 인상이 깊다. 구석구석 자리잡은 가판대에는 대부분이 짝퉁일 듯한 그래도 신기하고 처음보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고 여기에 머리를 디밀고 보물찾기하듯 물건을 고르던 더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한다. 하지만 북경의 거주자가 되어 작년 가을 무렵과 올봄 두 번을 다시 돌아 본 이곳 거리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는데 방문한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기에 노을에 빚겨 약간은 쓸쓸한 스럽기까지 하다.

중국서점에서 시작하는 동쪽의 거리는 입구도 더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쇠락하는 속도는 서가(西街)보다 더 빠른듯하다. 비어 있는 점포도 많고 화랑 등 문화상점 보다는 여행객들의 상대로 허접한 기



오후 스러지는 햇살이 쇠락하는 유리창의 분위기를 더한다

넙품이나 싸구려 골동품을 파는 상점들이 파리를 날리고 있다. 다만 옛 영화를 상기시키는 화려한 단청의 2층누각들이 거리 양쪽에 주욱 이어져 있어 그 옛날 이곳 주막에서 백주 한잔을 걸치고 창문에 기대어 아랫길을 오가는 인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문사(文士)와 예인(藝人)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한다.

서가(西街)는 이에 비해 그래도 초입에 있는 용보재(榮寶齋)에서 부터 문방사보(文房四寶)를 파는 필방이나 화랑, 화선지 상점, 표구점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아직은 문화거리의 명맥을 나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리도 동가(东街)보다는 정리가 잘 되어있고 깨끗하다. 어느 나라나 전통문화는 아무리 지키려 해도 사람들의 관심과 시장의 수요가 바쳐주지 못한다면 쇠락하고 사라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유리창 거리를 걷다 보니 중국에서조차도 동양예술에 대한 관심과 마켓이 현대의 생활과 냉혹한 시장속에서 제대로 적응해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인(古人)들이 말씀하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행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거나 싫어진다.

유리창거리의 쇠락하는 분위기를 실감하며 드는 의아한 점은 우리나라의 인사동, 익선동 같은 전통 문화 거리는 어찌되었건 현대의 새로운 생활문화인 패션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곳은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았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레스토랑과 패션 잡화점의 침범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장사가 안되니 영업을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명한 문화 거리가 아닌가?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문

화거리인 이지역에는 업종전환을 제한하는 무슨 강력한 규정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점점 비어가고 을씨년스러워지는 이 거리를 방치하기 보다는 적당한 업종변경을 허락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찾는 것이 어떨까 하는 임시 북경시민의 주제넘은 생각을 해본다.



문을 닫은 상점들이 즐비한 유리창 동가(东街)

아무튼 역사가300여년을 훌쩍 넘는 유서 깊은 유리창이다 보니 이곳에서는 많은 사연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상점)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상점을 소개하자면 지금도 서가의 입구부터 큰 건물 3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위용을 자랑하는 <용보재(榮寶齋)>이다. 이곳은 서화, 문방용품, 표구, 출판, 예술품 경매 등 예술과 문화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종합하는 기업이다. 이미 유리창 거리와 함께 300여년의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청조 시대부터 저명한 문인묵객(文人墨客)들이 모여 들기 시작해 신해혁명이후 중화민국시대에 들어서 는 최고의 지성인이자 서예가로 꼽히는 <위유런(于有任)>, 당대 최고의 화가로 지금은 작품 한점에 수백억원의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는 <치바이스(齊白石)>나 <장따치엔(張大千)>등 거물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작품을 거래하였다.

용보제가 특히 유명해진 데에는 “목판수인(木板水印)”이라는 독특한 기술로 명화를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일종의 서양 판화제작 기술과 비슷한 것으로 너무도 정교하여 원화(原畫)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누구나 이곳에서 제작한 수인작품(水印作品)을 한 점 소장하려 하였기에 큰 인기를 끌며



용보재(榮寶齋, 우측) 서가의 입구부터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연결한 사옥이다

유명세를 타게된다. 이러한 역사와 기술이 인정되어 중국 정부로부터 100년 이상된 명품브랜드에게만 부여하는 “라오즈하오(老字号)”로 지정되었고 “중국전통문화 발전 진지(中國傳統文化之陣地)”라는 엄청난 명예를 부여 받은 곳이기도 하다. 1950년 대 이후로는 국영기업이 되었다.



100년 전통 먹물(墨汁) 브랜드, 일득각(一得閣), 일득(一得)의 유래간 된 대련(對聯)이 좌우 기둥에 붙어있다

“일득각(一得閣)”은 100여년전 청 동치제(同治帝) 시절 창업한 곳인데 창업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해 진다. 창업주는 원래 과거를 준비하던 서생(書生)이었다. 북경에 상경하여 치룬 과거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하였다. 다만 과거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를 생각해보니 답안을 쓰기 위해 벼루에 용을 쓰며 긴 시간 먹을 갈던 수고로움이 생각나는 지라 미리 먹물(墨汁)을 준비해가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여 유명한 먹물(墨汁) 브랜드 《일득각 먹물(墨汁)》을 개발해 낸 것이다. 이

먹물은 지금도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필자도 애용하는 제품이다. 이 양반은 이 아이디어 하나로 과거에 급제한 것보다 훨씬 큰 부와 명성을 얻었을 것을 생각하니 전화 위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면 선생이나 공무원 되는 것이고 돈 벌려면 스타트업이나 장사를 해야 하나 보다.

그래도 과거를 준비하던 서생인지라 작명도 멋지게 하였는데 “一藝足供天下用, 得法多自古人書 (천하는 예술 하나로 족하고 옛 사람으로부터 많은 진리(法)를 얻는다)”라는 귀절에서 “一”와 “得”을 따와서 지었다는데 그가 쓴 이 글귀의 대련(對聯)은 지금도 그의 가게 앞 기둥에 능름히 붙어있다.

연암과 유리창

색인 정리가 잘 되어있는 “열하일기(김열조역, 개정신판)”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여러 곳에 유리창에 관련된 기술이 산재되어 있다. 사행을 떠나기 전 전임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 부터 관심 지역이기도 했겠 지만 스스로가 북경에서 두 달 가까이 머무르면서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적과 물건들을 구하던 곳이기도하고 전임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나 열하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던 장소이니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열하일기에 연암이 유리창에서 활동한 흔적이 남은 곳만 하여도 고서적점 오류거(五柳居), 문수당(文萃堂), 물경 일곱번이나 만나 교류한 유세기(俞世琦)를 만났던 양매서가(楊梅書街)의 육일제(六一齋)등 여러 곳이지만 유리창을 직접 주제로 하여 서술한 곳은 크게 세곳이다.

사실 연암이 유리창에 대한 정보를 중국인으로부터 직접들은 것은 심양에서 이다. <성경잡기> 편을 보면 심양 숙소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 한 골동품점에서 만난 중국 현지인들과 밤새 교류하는 이야기, 속재필담(粟齋筆談)편이 있는데 이곳에서 만난 골동품상 주인인 “전사가(田仕可)”라는 장사치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유리창이란 곳은 화려함과 더불어 온갖 사기와 협잡이 가득한 양면적인 장소라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선생께서는 아까 골동품을 사려고 하시던데 어떤 모양의 진품을 사시려는지요?”

“골동품뿐만 아니라 문방사우도 사려고 하는데 희귀하고, 특히 고아한 것이라면 값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조만간 북경에 들어가실 터인데 만약 유리창에 가시면 걱정 안 하셔도 구하실 것입니다. 다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해 초겨울 북경에 갔다가 2월에 돌아왔습니다. 유리창에 나갔더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보배롭고 신기하여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여 제대로 구경도 하기전에 그만 질려서 꼬리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다만 금창에서 올라온 사기꾼 떼가 벼룩처럼 날뛰고 이처럼 들러붙어, 유리창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값을 함부로 불러 가격을 열배 이상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갖은 감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녹이기까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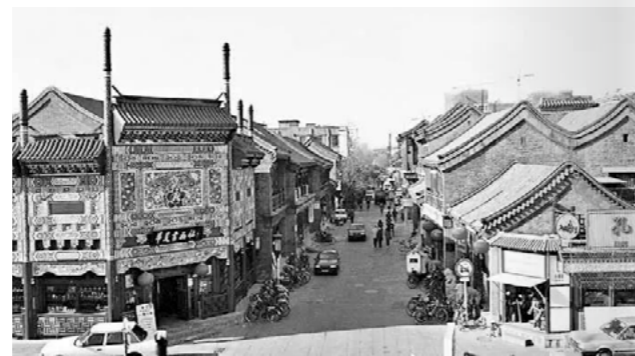
평생의 로망이었던 연경행에서 갖은 기대를 품고 한양 도성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고 만주 별판을 넘어 거의 달포(한달 반)만 여야 제대로 된 중국의 고도이자 청의 옛 수도 심양에 막 도착한 연암이었다. ”길 가에는 수레끼리 부딪치고 사람이 어깨를 비벼 시끄러워 바다와 같고 시장의 가게들은 채색 누각에 아로새긴 창문, 금빛 편액과 푸른 간판으로 되어있으며, 각양각색의 보물과 재화로 짝 차” 있었던 심양을 보면서 짝 막히고 좁고 고루한 조선땅에서 탈출한 연암이 받았을 충격과 느낌이 열하일기에 곳곳에 잘 표현되어 남아있다. 호기심과 모험심에 잠이 울리 없었던 연암은 이런 맘이 동하니 탈옥 아닌 탈속소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음도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온몸에 품격을 달고 살아온 조선의 선비이다 보니 말도 안 통하는 오랑케의 땅, 만주의 험한 밤거리에서도 각지에서 온 선량한 사람들을 만나 근사한 식사도 대접받으며 심양과 중국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현지인들에게 직접 북경의 유리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한마디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곳이지만 딱 보기도도 점잖빠고 순

진한 니가 자칫 잘못하면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곳이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함께 들은 셈이다.

다행이도 열하일기의 기록에는 호기심에 욕심까지 많으신 연암 선생의 실수담이나 실패담이 없으니 천만 다행이지만 스물아홉살 골동품 장사 전사(田仕可)가 한 유리창에 대한 평가와 충고는 지금 보아도 120% 정확하고 처음보는 외국인에게 하기 어려운 우정 어린 충고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훌륭한 문화 유물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세계적 국가이지만 그보다 더욱 훌륭한 모방(가짜) 골동품을 더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으니 호기심 많고 골동이나 예술품에 관심 많으신 한국분께서도 중국에 오실 때에는 명심하실 일이다.

“8월3일)아침해가 뜬 후에 비로서 서관의 문을 연다. 드디어 시대와 장복 두 하인을 데리고 서관을 나와 걸어서 첩운패루 아래 이르렀다. 태평차(太平车) 한 대를 세내었는데 노새 한 마리를 끌고 간다...(중략)...수레는 질풍같이 달려 선무문(宣武门)앞에 이르렀다. 왼쪽은 코끼리를 키우는 상방이고, 오른쪽은 천주당이다. 선무문을 나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유리창(琉璃厂)에 들어 갔다. 첫 거리에 오류거(五柳居)라는 세 글자가 적힌 집이 있는데...(중략)... 지난해 무관 이덕무(李德武)등이 이 서점에서 책을 많이 샀다고 하여 오류거의 이야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기에, 지금 여기를 지나가려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유리창의 옛 모습

사행단은 한양을 떠난지 두 달 하고도 닷새 만에 압록강을 건너지는 한달 칠일만에(8월1일) 드디어

북경성에 도착하여 서관(西館)에 여장을 풀었다. 예상밖에 북경의 살인적인 더위에 피서(避暑)가 제시된 건륭제의 명을 받아 불과 4일후인 8월5일부터 쉼 빠지게 밤을 새워 열하로 달려가야 될 줄은 생각치 못한 일행은 여유롭게 여독을 풀고 있을 때 연암은 재빠르게 북경 탐험에 나선다. 그 첫번째 여정이 《유리창(琉璃厂)》 탐색이 었다. 조선땅 에서부터 귀아프게 들었던 유리창은 숙소인 서관에서조차 지척에 있었다. 초입에 들어서자 마자 친구이자 조선을 통틀어 규장각 책 벌레로 이름을 떨친 이덕무(李德武)가 알려준 책방 “오류거(五柳居)”의 간판을 딱하니 실물로 대하니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었겠는 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개 청각을 통한 기대치는 시각을 통하는 것보다 팽창성이 더욱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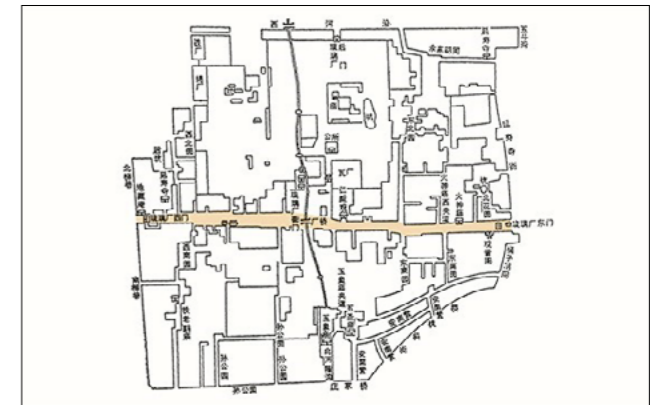
“무관이 나를 송별하면서 만약 원항(鴈港) 당낙우(唐乐宇)를 찾아가시려면 먼저 선월루(先月楼)에 이르러 거기서 남쪽으로 꺾어 작은 골목 두번째 집이 바로 당씨의 집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중략)... 드디어 수레에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익히 아는 집을 찾아서 가는 것 같았다.” “주인어른께서는 묘시(온전 5시~7시)에 관아로 출근 하셨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물으니 묘시에 출근했다가 유시(오후 5시~7시)에 돌아온다고 답한다”

글의 전후를 살펴보아도 원항 당낙우가 누구인지 누가 소개한 것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맥락을 보자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조선의 사신단이 오면 서로 인수인계하며 들리던 곳으로 유리창의 분위기를 즐기고 친조파인 주인과 교류했던 곳 인듯하다. 연암도 나름 기대하고 찾아 갔는데 주인은 부재 중이라 시원한 양매탕(杨梅汤)한 사발 얻어 마시며 당낙우의 의젓한 아들과 덕담을 나누고 돌아 나서는데 동행했던 하인 시대와 장복이 그 사이 주인장의 늙은 모친을 만난 이야기를 투덜거리면서 한다.

“노마님이 우리 옷을 벗기게 해서 의복의 제도와 모양을 보셨다고 하시기에, 선네들은 황공하여 감히 올려다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더워 홀 적삼만 입었다고 사양했습니다만, 우리를 돌려 새우고 모로 새우고 하시더니 다시 하인들에게 명을 내려 옷자락을 헤집게

하고는 보셨습니다. 소인들의 의복이 이처럼 찢어지고 떨어져서 아주 부끄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아빨싸, 팔십이 넘으셨다는 당낙우의 모친께서는 아주 특이한 취미(?)가 있으셨던 듯하다.



<유리창 시의도(琉璃廠示意圖)> 청 건륭 연간에 제작된 북경성 지도를 기반으로 그린 것이다.(네이버)

“(8월초4일) 수레를 몰아 정양문을 나가 유리창을 지나갔다. 유리창은 집이 몇 칸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모두 27만 칸이라고 말한다. 대개 정양문에서 가로로 뻗어 선무문에 이르기까지 다섯 마을이 모두 유리창인데, 국내외의 온갖 재화와 보물들이 모여들고 쌓여 있는 곳이다.

연암은 연속으로 이틀을 유리창으로 행차 하였다. 이번에는 정양문(正阳门)으로 나와 동쪽에서부터 지금의 유리창동가를 훑으며 지나간 듯하다. 유리창의 규모가 당시 27만칸이었다고 하니 한 줄기 도로 양편으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옛 자료를 찾아보니 동서도로를 중심으로하여 주변으로 아주 너른 지역이었던 모양이다. 당연히 대륙 제국의 중심이자 문화 물류의 집합처였으니 쇠락한 작금과 비교는 무리이리라.

더불어 이곳에는 전국에서 온 고급 물건들이 넘쳐난다. 희귀한 서적과 예술품은 물론이고 <휘주의 먹(徽墨)>과 <단계의 벼루(端硯)>, <황모 붓(黄毛笔)> 조선의 서생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을 귀한 문방사보(文房四宝)들은 한 짐만 조선으로 지어 날라도 집 몇 채는 훌쩍 사고도 남을 이윤을 벌었을 터이니 “물건 보기들 돌같이 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맘속에 새기고 새기며 견물생심(見物生心)을 누르고 눌렀을 연암의 싱숭생숭한 마음이 지금 이 거리를 거닐며 당시를 상상하는 필자의 마음도 싱숭생숭하게 한다.



유리창 동가(东街)

싱숭생숭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기록하지 못한 코 베일 일을 당하였는지 이날 돌아본 유리창동가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이날의 기록이 짧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열하일기를 재미있게 하는 생명력의 요소이자 뜬금없지만 맥락에 벗어나지는 않고, 유장 심각해 보이지만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한바탕의 멋진 상황설(!)을 이렇게 쫓아 놓는다.

“지금 나는 유리창 안에 홀로 외롭게 서 있다. 내가 입은 옷과 쓰고 있는 것은 천하(중국)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용모는 천하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모습이다. 성씨인 반남 박(朴)씨는 천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성씨 일 것이다. 이렇게 천하 사람이 나를 몰라보게 되었으니 나는 성인도 되고, 부처도 되고, 현인과 호걸도 된 셈이다. 거짓 미친 체했던 은나라 기자(箕子)나 초나라 접여(接輿)처럼 미쳐 날뛰어도 되겠지만, 장차 누구와 함께 이 지극한 즐거움을 논할 수 있겠는가?”

협소하고 낙후되고 고루하고 편협한 조선 땅에서 성리학의 아집과 계급의 모순이 최고조로 치달아가던 조선 땅에서 호기심은 만땅하고 학문적 자유를 갈구하던 연암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대륙을 지나면서는 이미 황하의 혼탁한 물에서 높게 뛰어올라 넓고 청명한 세상을 바라본 잉어가 되었을 터이

니 평생을 옥죄던 껍질을 깨트리려는 경험을 해버린 것이다. 유리창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으니 제도도, 관습도, 체면도, 위신도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 바로 이런 절대 자유 앞에 서자니 성인도 되고, 부처도 되고, 호걸도 된듯한 연암의 호연한 느낌이 전해 진다. 그래도 욕심 많은 연암인 지라 이 절대자유를 즐기는 상태에서, 단 한명이라도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갈구하고 있으니 정말 보통 욕심쟁이는 아닌듯하다.

“천하에 정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에게는 여한이 없을 것이다...(중략)...
요임금이 옷을 바꾸어 입고 거리에 나섰을 때 격양가를 부르는 농부를 만났고, 석가가 용모를 바꾸었으나 제자 아난(阿難)이 알아보았다. 주나라 태백(太伯)은 ...몸에 문신을 하고 피해지만 아우 중옹(仲雍)이 알아보고....
굴원(屈原)은 모함을 받아 쫓겨나서 얼굴이 훌쩍하게 말랐으니 어부가 알아 보았다...월나라 범여는 차이자로 이름을 바꾸어 오호(五湖)에서 놀았으나 월량의 애첩 서시(西施)가 알아보았다....(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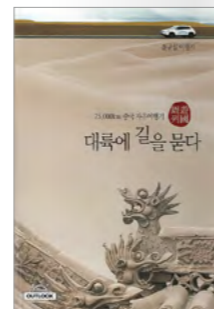
학식 많은 연암이라 들이미는 사례도 다양하지만 요임금, 석가, 굴원, 범여를 데려와 비교하는 건 조금 심한듯하다.

연암은 <욕심쟁이>다. 🍌

(이글에서 인용된 열하일기의 내용은 김철조 역, 돌베개 출판사 간 '개정신판 열하일기'에서 발췌하였음)



윤규섭 (尹圭燮), 1963년생
하나은행 본부장, 길림은행 부행장 역임
(현)중민국제리스 부동산장
베이징과 동북지역 위주로 중국과 13년째 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음.



2021년 3월부터 150일에 동안 중국 대륙 18개성 25000킬로미터를 자동차로 자유여행 하였고 '대륙에 길을 묻다'라는 여행기를 출판하였음. 한번 더 나머지 중국대륙을 돌아보는 꿈을 가지고 있음.



홍콩 성광대도(星光大道)

홍콩 국가 안전 조례(香港国安条例) 발효 후, 홍콩 방문기

글_ 김준범(북경한반도과기유한공사 총경리)

올해 3월 19일,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가 만장일치로 '국가 안전 보장 조례(维护国家安全条例)'를 통과시켰는데요. 지난달 23일, 홍콩 국가 안전 조례(香港国安条例)가 정식으로 공포되어 발효되었습니다. 홍콩은 2019년도에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지만, 2020년 홍콩 국가 안전법(香港国安法)이 제정되어 시행되며, 다시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이번 홍콩 국가 안전 조례(香港国安条例)의 통과는 이미 시행 중인 홍콩 국가 안전법과 조화를 이루며,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뒤 저도 지난달 일주일간 홍콩을 다녀왔는데요.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홍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심 중심에 있어 홍콩의 여러 지역에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인 완차이(灣仔)라는 지역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이번 홍콩 방문은, 홍콩 영화 중 <중경삼림重庆森林>과 <영웅본색英雄本色>을 정말 재밌게 본 적이 있어, 영화 촬영지를 우선적으로 방문해 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콩하면 디즈니 월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홍콩 디즈니 월드는 작년 11월 얼음왕국 테마파크를 출시해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젊은 중국인 친구들이 홍콩을 방문하면 침사추이(尖沙咀)에 위치한 성광대도(星光大道)에서 홍콩 부호 리카싱(李嘉誠)과 같은 포즈의 기념사진을 한번씩 찍고 SNS에 공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도 방금 이야기한 장소들을 꼭 방문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여행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옥토퍼스 카드, 홍콩 2층 버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영화 영웅본색 촬영장



영화 다크나이트 촬영장소

1. 홍콩 섬(香港島)

공항에 도착 하자마자 출구에 보이는 ATM기계에 서 홍콩달러를 인출한 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가서 전화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7일간 사용 할 수 있는 유심칩을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옥토퍼스(八达通) 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과 음식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고 하여, 공항 내에 있는 옥토퍼스(八达通) 서비스 센터에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옥토퍼스(八达通)카드를 활용해 2층 버스를 탄 후, 완차이(灣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영화 <중경삼림重庆森林>의 촬영지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방문했는데요.

<중경삼림重庆森林>은 왕가위(王家卫) 감독의 영화로 양조위(梁朝伟), 왕페이(王菲), 금성무(金城武) 등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영화속에서 왕페이가 양조위의 집을 보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이곳은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홍콩 중환(中环)에 위치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영화 속 왕페이의 동작을 따라하며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사실 높은 지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800미터 정도의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이곳 에스컬레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로 등록되기도 하였습니 다.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계단도 있는데요. 여러 상점들도 위치하고 있어, 홍콩의 감성을 자세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걸어 올라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곳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중간에는 <영웅본색英雄本色>에서 장국영이 근무했던 경찰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여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보면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크리스찬베일과 모건프리먼이 대화를 하는 장면의 장소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곳곳에 영화 촬영 명소들이 함께 있어, 홍콩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중환(中环) 지역에는 맛집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구기우남(九記牛腩)이라는 식당은 배우 양조위가 자주 오는 면집으로, 한국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있어 메뉴판에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쌀국수에 큼직한 고기를 듬뿍 넣어줘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저는 너무 맛있어서 이번 여행 중 두번



홍콩 HSBC 은행 홍콩 HSBC 은행



스카이트라스에서 바라본 홍콩 야경

방문했습니다. 이 집 바로 옆에는 승향원(胜香园)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파는 곳인데 이곳은 배우 주윤발이 자주 방문하여, 주윤발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홍콩식 토스트와 토마토 마카로니 스투가 일품인 맛집입니다. 다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따라서 가다보면 BakeHouse라는 베이커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있는 빵집으로, 에그타르트와 파인애플 빵이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만약 주말에 홍콩을 방문하신다면, 거리에 많은 동남아시아 가정부들이 길 주변에 돛자리를 펼치고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홍콩 현지인 분에게 물어보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가정부 근로자들이 매주 주말마다 나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환(中环)을 건다보면 HSBC 은행 건물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홍콩에 여행오면 한번씩은 방문해 보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홍콩 HSBC 은행 건물 앞에는 두개의 사자 동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바로 앞 분수대가 있는 공원에는 HSBC 은행장 토마스 잭슨(Thomas Jackson)의 동상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HSBC 은행 건물을 지나 조금 걸다보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도 발견하실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배우 장국영이 애프터눈 티를 먹으러 자주 방문한 곳으로, 매월 4월 1일 장국영의 팬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홍콩 HSBC 은행이랑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크트램(Peak Tram)을 타러 갔는데요. 홍콩에 오신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카이트라스 야경입니다. 피크 트램을 타기 위해선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한 후 줄을 서야하는데요. 저는 다행히 시간을 잘 맞춰와서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습니 다. 피크트램은 생각보다 경사가 높는데요. 산길을 올라가며 멋진 홍콩 시내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올라가실 때 오른쪽 창가, 내려가실 때 왼쪽 창가에 앉으신다면 더 멋진 전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높은 건물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망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몇번 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중간층에는 야외에서 홍콩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멋진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스카이트라스 표를 구매하셔서, 제일 높은 위치에서 홍콩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스카이트라스에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도착했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팁을 하나 드리면, 저녁이 된 후 홍콩 건물들에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뒤부터는 자리 회전율이 높아서 좋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 이른 시간부터 자리 경쟁으로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망대를 관람한 뒤 왕복 피크트램 표를 구매하신 분들은 피크트램을 타고 다시 내려가실 수 있는데요. 야경을 관람 한 뒤 내려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올때보다 긴 시간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

2.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에 오신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 바로 홍콩 디즈니랜드인데요. 저는 홍콩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한 후, 8가지 기구를 프리패스로 탈 수 있는 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숙소인 완차이에서 지하철을 통해 편리하게 홍콩 디즈니랜드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디즈니랜드 지하철은 디즈니의 캐릭터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외부는 미키마우스 창문, 지하철 내부는 미키마우스 모양의 손잡이가 있어서 남녀노소 좋아 할 만한 공간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었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에 도착하니 세계 각 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아침 겸 점심으로 디즈니랜드 빵집에서 미키도너츠와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를 사먹었으며, 저녁으로는 디즈니랜드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에서는 한국 삼계탕을 판매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굉장히 인기있는 메뉴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역은 겨울왕국 테마였는데요. 작년 11월에 오픈한 겨울왕국 테마는 현재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핫한 구역입

니다. 겨울왕국 테마에는 어트랙션도 2개가 준비되어있으며, 겨울왕국 분수대와 설산 경치가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녁 8시 30분이 되면 디즈니랜드에서 하루 마지막 불꽃놀이 이벤트가 준비되어있는데요. 저는 7시부터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앞쪽 위치에서 대기 를 하며 1시간 30분 가량 기다렸습니다. 30분 가량 지속되는 불꽃놀이와 디즈니성 레이저 쇼는 정말 멋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3. 구룡반도(九龍半島)

침사추이(尖沙咀)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성광대도(星光大道)에서 홍콩 부호 리카싱(李嘉誠)과 같은 포즈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총 3장의 사진으로, 이날 드디어 저의 홍콩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냈습니다. 성광대도(星光大道)는 영화배우와 영화감독들을 기념하는 공간인데요. 홍콩의 할리우드라고 불리우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최근에는 리카싱(李嘉誠) 포즈 핫스팟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리카싱의 포즈를 따라하며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룡반도(九龍半島)에서 저는 점심으로 차찬텡(茶餐廳)에 가서 식사를 하였는데요. 차찬텡(茶餐廳



성광대도(星光大道)

)이란, 차와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식사를 하고 밀크티와 파인애플 빵을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빙실(冰室)이 들어가는 식당들이 정말 많은데요. 빙실(冰室)은 차가운 음료나, 빙수, 디저트 등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하는데, 홍콩 음식들과 디저트 메뉴를 같이 파는 곳입니다. 저는 홍콩식 소고기면과 밀크티, 파인애플 빵을 맛있게 먹은 뒤, 지하철을 타고 요우마디(油麻地)로 향했는데요. 때마침 홍콩 유심카드 인터넷 용량을 다 사용해서, 데이터 없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룡반도에서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여행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건물들을 바라보며 거리를 거닐며 홍콩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쭉욱 걸다보니, 금붕어 마켓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 <중경삼림重庆森林>을 보면서 금붕어 관련 씬이 많았는데, 홍콩 사람들은 금붕어가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금붕어를 선물하기도 하고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홍콩 금붕어 거리를 거닐다 보니 왕페이와 양조위에게 금붕어를 선물하는 <중경삼림重庆森林>의 한 장면이 생각났는데요. 마치 영화속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침에 영화배우 주윤발의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가 보았는데요. 주윤발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사장님께서 여러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접하고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7:30 쯤에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직원분께서 오시는 주윤발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고, 보통 이른 아침 7:00 정도에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주윤발 선생님이 즐겨드시는 메뉴인 어

이런, 차와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식사를 하고 밀크티와 파인애플 빵을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빙실(冰室)이 들어가는 식당들이 정말 많은데요. 빙실(冰室)은 차가운 음료나, 빙수, 디저트 등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하는데, 홍콩 음식들과 디저트 메뉴를 같이 파는 곳입니다. 저는 홍콩식 소고기면과 밀크티, 파인애플 빵을 맛있게 먹은 뒤, 지하철을 타고 요우마디(油麻地)로 향했는데요. 때마침 홍콩 유심카드 인터넷 용량을 다 사용해서, 데이터 없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룡반도 거리



금붕어마켓

죽을 맛 보았는데요. 음식 본연의 맛도 정말 좋았지만, 영화배우인 주윤발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라고 하니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홍콩 여행은 영화 속 명소와 현대적으로 발전된 홍콩의 매력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중경삼림重庆森林>과 <영웅본색英雄本色>등 같은 영화의 촬영지를 방문하며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홍콩 영화 속 명장면들을 회상 할 수 있었으며, 홍콩 디즈니랜드 방문을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광대도(星光大道)에서는 홍콩의 유명 인사들을 기념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완차이(灣仔)와 중환(中環)에서는 홍콩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홍콩 일정을 통해 홍콩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다채롭고 매력적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는데요. 한 편의 영화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도시 홍콩에서 여러분도 특별한 경험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범

중국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경영학)을 졸업하고, 2019년 북경한반도과기유한공사를 설립, 2021년 중국 중관촌 하이테크기업(中关村高新技术企业) 인증을 받았다. 현재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촌(中关村)의 창업 생태계 및 중국 창업지원 정책 활용법을 알리고, 혁신 과학 기술 인재와 해외 기술기업들의 중국 네트워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III. 중국 정책 동향



4년 만에 돌아온 베이징 모터쇼의 현대자동차 부스

원·엔화, 위안화 대비 약세... '유커' 유턴?

출처_ 세계일보/이우중 기자 (2024.4.28)

- 韓·중간 항공 운임도 72% 하락
- 환전 유리... 中 관광객 증가 전망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원·역외위안 환율은 한국시간 26일 기준 189원대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175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원·역외위안 환율은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렸던 2022년 한때 200원을 넘긴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175원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상승 전환했다. 엔화 가치 약세는 더 두드러지며, 엔·역외위안 환율은 올해 들어 8.57%나 오른 상태다.



28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 환전소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환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역외위안 환율 상승 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인의 중국 여행 시 환전에 불리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증가 요인이 된다.

실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다음달 중국의 노동절 연휴(1~5일)를 앞두고 중국인들의 여행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특히 환율 상승과 항공운임 하락에 따라 한국·일본으로 가려는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BI와 시장조사기관 어테스트가 지난 8~12일 중국인 1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월까지 3개월간 해외 여행을 예약한 응답자는 58%를 기록, 1월 조사 당시의 54%보다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예약한 응답자 가운데 한국행을 준비 중인 경우는 31%를 기록해 1월 조사 때의 21%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행을 준비 중인 응답자도 23%에서 33%로 증가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응답자들은 비자 문제에 이어 환율을 두 번째로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았는데, BI는 원화와 엔화 가치가 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심리 회복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선호에는 항공 운임 하락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행 통계 업체 포워드키스 자료에 따르면 1분기 한·중간 편도 항공운임(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72% 하락한 77달러(약 10만6000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중국, 7월부터 휴대폰·노트북 '불심검문' 가능... '사생활 침해 우려'

출처_ 국민일보/송세영 기자 (2024.5.8)



중국 상하이 홍차오역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공안 등 법집행관이 개인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한다.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도 이 규정에 따라 입출국이나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 RFA는 "이 규정에는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RFA는 이 규정 시행 전인데도 선전과 상하이의 세관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대한 무작위 검사가 시작됐다는 제보도 전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선전에서 세관 통과 시 여직원 두 명이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폰을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샤오모씨도 세관원이 공항에서 한 남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백약이 무효... 증가하지 않는 중국 찾는 외국인 수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출처_ 한국경제TV/이휘경 기자 (2024.5.11)



CJ올리브영이 지난달 문을 연 서울 '홍대타운점' 입구를 외국인 고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중국 국내관광 시장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중국을 찾

는 외국인의 수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중국 문화여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억9천500만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2019년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위면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 2019년에는 9천800만명의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지난해에는 출장자, 유학생 등을 포함해 3천500만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호주 에디스 코완대학교 경영법학대학원의 황송산 관광연구소장은 "전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기인한다"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중국 정부의 사회적 통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일부 국가는 중국 법의 자의적 집행, 출국 금지 및 부당 구금 위험 등을 들어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 등을 권고해 왔다. 또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국제선 항공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혔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싱가포르와 태국과는 비자 면제 시행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25% 인하하고 지난 1월부터 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거래 한도를 5배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3성급 이상 중소호텔에서도 해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관광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스위스 로잔호텔경영대학 첸웅 교수는 "관광 활성화 핵심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것이지만 과거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인 3억명 국내 여행 나서

출처_ 아시아경제/이승진 기자 (2024.5.6)



황금연휴 막바지 자금성 찾은 중국 관광객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동절 연휴(1~5일) 기간 중국 국내 여행객이 급증해 3억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문화여유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국내 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억9500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로는 28.2% 증가했다.

국내 여행자들의 소비 규모도 총 1668억9000만위안(약 31조5000억원)으로, 2019년 노동절 때보다 13.5% 늘었다.

중국인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유물들이 전시된 베이징 고궁박물관과 중국 고대 문명 유적을 선보이는 산싱두이(三星堆) 박물관, 중국 상(商)나라 문명을 만날 수 있는 인쉬박물관 등을 많이 찾아 문화 관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간 중심 주요 문화 관광지에도 작년 대비 6.9% 증가한 약 7258만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항공 노선과 비자 면제 국가 확대 등으로 외국인의 중국 여행과 중국인의 해외여행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닷새간 연휴 동안 중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은 약 178만명, 해외로 떠난 중국 여행객은 약 190만명이었다.

또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지역 간 전체 이동 인구는 연인원으로 13억5846만270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억7169만3000명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판다고향 청두에서 韓·中 함께하는 'K팝 축제' 개최

출처_ 노컷뉴스/임진수 기자 (2024.5.6)



콘진원 북경비즈니스센터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북경비즈니스센터는 중국 노동절 연휴기간인 3일과 4일 양일간 쓰촨성 성도인 청두에서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한 K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두방송국내 대형공연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CJ ENM이 제작한 '2023 MAMA 어워드' 공연영상을 중문자막 편집하여 상영했고, K팝 커버댄스 세미파이널과 파이널을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서남부의 핵심도시이자 판다 성지이기도 한 청두에서 최초로 개최된 K팝 페스티벌이다. 특히, 콘진원과 청두방송국이 공동주최한 최초의 K팝 행사이기도 하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K팝 커버댄스 대회는 청두지역 젊은이들로 구성된 총 26개 팀이 참가해 이틀간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1위는 스트레이키즈의 '메가버스' 안무를 커버한 AGC팀이 차지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한국의 특별공연팀도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중국은 쓰촨 성 전통춤과 변검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은 가야금과 K팝의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다.

청두방송국은 이번 행사의 성과에 힘입어 K팝 행사를 매년 봄에 정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베이징과 선양에서 K팝과 C팝을 결합한 한중 댄스경연이 예정돼 있다.

콘진원 북경센터 윤호진 센터장은 "청두방송국과 콘진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매우 가치 있는 한중 문화 교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올 하반기

기부터는 중국에서 K팝 라이브 공연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도 <파묘> 본다”

제14회 베이징국제영화제, 한국영화 5편 초청.. 한한령 풀리나

출처_ 씨네플레이 (2024.4.25)



제14회 베이징국제영화제가 지난 18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영화 5편이 공식 초청돼 눈길을 끈다.

베이징국제영화제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영화제는 올해 약 240여 편을 상영하며, 4월 18일(목)부터 4월 26일(금)까지 중국영화박물관 등 베이징 일대에서 개최 중이다.

이번 베이징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한국영화는 <파묘> <여행자의 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야 할 일> <소풍> 등 5편이다. 5편은 모두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었다. 한편, <파묘>는 예매 오픈 후 전 회차가 빠르게 매진되는 등, 중국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초청은 2017년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작이 <오! 문희>(2021년 12월 중국 개봉) 1편에 불과했고, 주요 중국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신작 상영이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2024년 4월 중국 경제 동향

출처_ 중국한국상회 / 뉴스레터 (2024.5.8)

1. 거시경제

● **재정부** : 중앙은행의 공개 시장을 통한 점진적인 국채

매매 확대를 지원할 것. 국유 금융자본 관리조례를 조속히 도입하고 자본시장 조세 제도를 보완하며 중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에 유리한 정책을 완비할 것.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재정부와 공동으로 2024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프로젝트 심사 완료. 심사를 통과한 특별채권 프로젝트는 약 3만8천 건. 2024년 특별채권 수요는 5조9천억 위안 정도.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지난 1분기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 303만 명 기록. 올해 연간 도시 고용 목표(1,200만 명 이상)의 1/4 달성. 지난 3월의 도시 조사 실업률은 5.2%.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 : 신용 관련 입법 가속화 추진. <사회신용구축법>을 조속히 출범해 사회 신용 체계 구축 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높일 것.

2. 증시/자산

● 지난 5월 7일, 상하이(上海)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4% 하락한 3021.98로 장을 마감했고 거래액은 3,486억5,200만 위안 기록. 선전(深圳)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1% 하락한 9183.14로 장을 마감했고 거래액은 4,266억9,300만 위안 기록. 창업판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1753.16으로 장을 마감했고 거래액은 1,784억8,900만 위안 기록. 상하이(上海)·선전(深圳) 증시의 거래액 합계는 7,754억 위안으로 전 거래일 대비 467억 위안 축소. 교육, 휴머노이드 로봇, Sora 테마, 지하 배관망 등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금, 석탄, 비철금속 등 섹터는 대폭 하락. 노스바운드 펀드는 29억9,700만 위안 순매도.

● 지난 5월 7일, 항생(恒生)지수는 전일 대비 1.92% 상승한 16828.93으로 장을 마감했고, 항생(恒生)테크지수는 전일 대비 3.38% 상승한 3449.10으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항생(恒生)국유기업지수는 전일 대비 2.12% 상승한 5954.62로 거래 마감. 사우스바운드 펀드는 16억4,100만 홍콩달러 순매수.

● **중국면세품그룹(CDFG)** : 지난 1분기 매출액은 188억 7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45% 감소했고, 순이익은 23억6백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25% 증가.

● **차이나텔레콤** : 지난 1분기 매출액은 1,344억9,5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고, 순이익은 86

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 5G 패키지 가입자는 1,006만 명 순증한 3억2,900만 명에 도달했고, 칩 투율은 79.9% 도달.

3. 산업 관찰

● **추이동수(崔東樹)**: 2017년 124만 대였던 중국의 자동차 수입량이 연평균 약 8%의 감소율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2023년에는 80만 대에 불과. 2024년 1~3월의 자동차 수입은 15만 6천 대로 전년 동기간 대비 4% 감소하며 하락세 지속.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전기화 전환으로 시장 수요 구조가 바뀌고 연료 자동차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 화석연료 차 수요도 크게 감소.

● **Counterpoint**: 지난 1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로는 4.6% 증가했고, 전년동기대비로는 1.5%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 기록. Vivo가 1위를 차지했고, Honor와 애플이 그 뒤를 이어. 화웨이(華為)의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69.7%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고, Honor도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애플의 1분기 iPhone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9.1% 감소.

● **중국중앙방송(CCTV) 뉴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석유 잔여 매장량은 38억5천만 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했고,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천연가스 잔여 매장량은 6조6,83억 4,700만 세제곱미터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 증가했으며,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셰일 가스 잔여 매장량은 5,516억1천만 세제곱미터 기록. 석탄층메탄가스 탐사에서 새로 입증된 지질 매장량은 3,179억3천만 세제곱미터이며, 그중 새로 입증된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매장량은 1,613억4천만 세제곱미터로 전년 동기간 대비 712.1% 증가.

● **신화통신**: 2023년 말 기준, 중국 본토에서 총 5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총 설치 용량은 57 기가와트(GW). 승인·건설 중인 원전은 36기, 총 설치용량은 44 기가와트(GW). 연간 원전 발전 용량은 44만 기가와트시(GWh)로 전국 누적 발전 용량의 5%가량을 차지하며 표준 석탄 1억 3천만 톤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3억5천만 톤 감축하는 효과 창출.

● **국제에너지기구**: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 지속

적으로 증가. 올해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약 1,7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1/5 이상을 차지할 전망. 2030년까지 중국 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1/3가량이 전기차가 될 것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해당 비율은 1/5가량에 이를 전망.

中, 1분기 성적표 공개

출처_ CSF중국전문가포럼(2024.4.23)

□ 중국은 경기부양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 덕에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3%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낡은 소비재를 새 소비재로 교체)’ 사업 시행, △녹색(친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소비 육성 확대, △기업의 시장 다변화 지원, △이커머스와의 같은 신업태 발전 촉진 등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정책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3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5개월 만에 확장국면으로 돌아섬.

- PMI의 세부 구성 지표인 생산과 신규주문, 고용, 수출주문이 모두 상승세를 보임.

- PMI는 경기선행지표로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를 웃뚫음.
- 16일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가 29조 6,299억 위안(약 5,659조 6,07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힘.

- 산업별로 보면 1차산업은 전년동기대비 3.3%, 2차산업은 6.0%, 3차산업은 5.0% 성장함.

-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투자, 소비, 수출입 지표 모두 긍정적이며 호조를 보이고 있음.

- 그중 GDP 성장기여율 가운데 소비 비중이 73.7%를 기록하며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 원동력이 증명됨. 1분기 사회 소비재 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4.7%, 상품 수출입은 5%, 고정자산투자는 4.5% 증가함. 고정자산투자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함께 중국 거시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 고정자산투자 증가는 인프라

라, 제조업 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작년 말 각 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1조 위안(약 191조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 바 있음.

-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8% 정도로 예상됨.

- 취업·물가 모두 안정세를 유지 중임. 1분기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성라이윈(盛来运)**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정책효과 가시화, △생산·수요 안정적 증가, △물가·취업 안정, △국민 경제심리 긍정적 변화, △고품질 발전 성과 달성 등을 근거로 1분기 경제가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평가함.

- 성 부국장은 앞으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적극 육성 및 발전, △거시정책 시행 박차, △경제활력 강화,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사회 기대 개선, △경제 회복세 견지 및 강화,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힘.

- 왕칭(王青) 동팡진청 거시 경제 부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급 준비율·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등 정책 조치로 내수가 진작됐고, 경제의 내생적 성장 동력이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해외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중국 1분기 경제가 호전됐다고 봄.

-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은 1분기 GDP의 5.3% 증가로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이 최근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5.0%로 상향 조정함.

- △의약, △자동차, △식품, △금융, △화장품, △전자정보, △화학공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기업 임원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은 올해 3월 중국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 경기 곡선이 2024년 2분기에 회복(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자오웨이(赵伟) 귀진(国金)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재정·금융 정책의 강도가 세지고 정책 효과가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며 초장기 특별국채 활용, ‘3대 공정(三大工程:성충촌 개조·보장형 주택 건설·평급양용 시행)*’ 실시가 빨라지고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사업에 맞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봄.

*3대 공정은 크게 △성충촌(城中村, 도시 외곽에서의 이주민

밀집으로 조성된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조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평급양용(平急两用, 평상시에는 관광이나 휴양 시설로 사용하다 비상시에는 격리 수용 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장소) 등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나뉨.

● 하지만 내수 부진, 유효수요 부족, 부동산 불안정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중인귀지(中银国际)는 국내 최대 문제를 내수 부진이라며 공개된 1분기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아직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에 따른 부동산 투자와 대출에 대한 수요 영향, 기업의 용자수요 약화 등 어두운 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힘.

-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채 발행 속도와 규모, 생산자물가지수(PPI) 전년동기대비 상승 및 공업기업 이익률 회복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힘.

- 웨카이(粤开)증권은 앞으로 공급 보장, 수요 촉진, 집값 안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 중국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재정정책 집행 가속화, 자금사용 효율성 제고, 재정지속가능성 제고, 소비재·투자재 발굴, 내수 활성화, 국제환경 대응, 외국기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힘.

中 제조업 PMI 2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

출처_ 노컷뉴스/임진수 기자 (2024.4.30)

- 4월 PMI 전달 보다 0.4 하락한 50.4 기록
- 경기 확장 국면 이어갔지만 강도 약해져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달에 이어 두달 연속 기준치를 넘기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다만, 지수는 전달 보다 하락해 경기 확장 강도는 약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올해 4월 제조업 PMI가 전달보다 0.4 하락한 5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50.3)과 블룸버그통신(50.3)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50 미만은 경기 수축, 그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도체 칩 공장. 연합뉴스



베이징 순이구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 내 샤오미 부스

중국의 월간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49.5를 기록한 뒤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후 지난 3월에 50.8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다만, 3월에 비해 4월 PMI가 소폭 하락하며 경기 확장 강도는 전달에 비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PMI를 비롯해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연초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PMI는 전월 대비 0.8 하락한 50.3, 중형기업 PMI는 0.1 상승한 50.7, 소형기업 PMI는 전달과 같은 50.3을 기록했다.

4월 중국 비제조업 PMI는 전달보다 1.8 하락한 51.2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로이터통신은 “4월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활동은 둔화한 속도로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이 추가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년 만에 돌아온 베이징 모터쇼 샤오미·화웨이가 허문 車 산업 경계... 중국은 전기차 전쟁터

출처_ Economy Chosun / 이윤정 기자 (2024.5.6)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오토차이나)’를 4년 만에 개최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샤오미와 화웨이 등 IT 기업이 대거 참여해 업종 간 경계가 크게 허물어졌음을 보여준 동시에,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는 점을 세계에 과시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를 비롯해 해외 완성차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재확인했다.

중국 베이징 모터쇼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동차’라는 주제로 4월 25일 베이징 순이구 국제전람센터에서 시작했다. 5월 4일까지 열린 베이징 모터쇼는 1990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을 건너뛰고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전시장 규모는 23만㎡(약 7만 평)로, 직전 전시회보다 3만㎡ 확장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부품 제조사 등 1500여 개 업체가 대거 참석하면서 빈 공간 하나 없이 뻥뻥이 채워졌다.

전기차 산업 경계 허무는 샤오미·화웨이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는 전기차 생태계가 IT 기업으로까지 확장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형 가전, 스마트폰 제조 기업인 샤오미는 지난 3월 출시한 전기차 ‘SU7’을 앞세워 올해 처음으로 모터쇼에 출전했다. 샤오미 SU7은 중국 전기차 ‘532(전장 5m, 휠베이스 3m, 가격 20만위안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샤오미 부스를 찾은 중국 전기차 업체 관계자는 “샤오미의 SU7 성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왔다”며 “중국 자동차 업계 내에서도 샤오미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다.

이날 9시 20분(현지시각)부터 시작된 레이전 샤오미 회장의 발표를 듣기 위해 관람객이 대거 몰리면서 30분 전부터 자리를 맡아야 했다.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레이전 회장은 SU7이 출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현재까지 7만5732대의 예약 주문을 확보했고, 5781대

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5월 말부터 프로(최상위) 버전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월간 인도량이 1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 기업 화웨이 역시 자동차 업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화웨이는 스마트카솔루션(IAS)을 제작해 완성차 업체들에 제공하는데, 전날 자율주행 시스템인 ‘첸쿤 ADS 3.0’을 출시했다. 화웨이는 올해가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 대량 상품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자동차 50만 대에 첸쿤을 탑재한다는 목표다. 현재까지 중국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총 7종의 전기차 모델을 내놨다.

화웨이의 협력 파트너가 해외 완성차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이날 도요타 등 다양한 해외 완성차 기업의 임원진이 직접 화웨이 부스를 찾았다. 이들은 화웨이가 세레스와 합작한 ‘아이토’, 체리차와 함께 만든 ‘럭시드’ 등 전시돼 있는 차량들을 둘러보며 관심을 드러냈다.

IT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침범하고 있지만, 전통 전기차 기업들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는 이날 모터쇼에서 중형 세단 ‘진L DM-i’,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하이스 07’을 최초 공개했다. 진은 12만위안대, 하이스는 20만위안대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군을 확대했다. 리상, 리오토, 창청자동차, 흥치 등 다른 자동차 기업들 역시 대규모 부스를 차리고 관객을 끌어모았다.

외자社, 세계 최대 車 시장 ‘현지화’로 재도전

해외 완성차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번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 드러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내수까지 둔화하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인 점은 분명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차 판매 대수는 3009만 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0만 대를 넘겼다. 특히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판매 대수는 950만 대로 1년 전보다 37.9% 증가했다.

이날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을 중국에서 처음 공개했고, 중국 현지 생산이 예정된 신형 싼타페를 선보였다. 기아는EV3 출시와 함께 새 전동화 전략을 내놨다. 현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

참석한 현대차·기아 경영진과 연구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중국 자동차 업체의 강점을 분석해 중국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는 G바겐으로 불리는 G클래스의 첫 전기차 모델 실물을 공개했고, 스웨덴 볼보와 중국 지리차가 함께 만든 폴스타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연동시키기 위한 휴대폰인 ‘폴스타폰’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중국 기업 부스와 달리 해외 기업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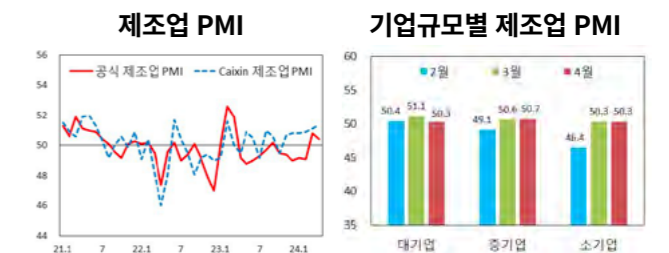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진화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모든 기업에 기회가 열려 있다”며 “소비자 포용과 적극적 혁신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이슈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4월 제조업 PMI 소폭 하락

출처_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24.5.6)

4월 PMI의 주요 특징

- (제조업 PMI) 4월 제조업 PMI는 50.4로 3월(50.8)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2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
-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3월 50.3 → 4월 50.3)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중기업(50.6 → 50.7)은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51.1 → 50.3)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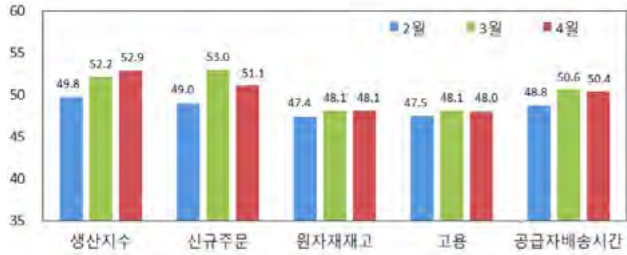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주요 항목별로는 원자재재고(48.1 → 48.1)와 고용(48.1 → 48.0)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신

규주문(53.0 → 51.1)은 전월보다는 하락하였지만 기준치를 상회하였고 생산(52.2 → 52.9)과 공급자배송시간(50.6 → 50.4)은 전월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

구성항목별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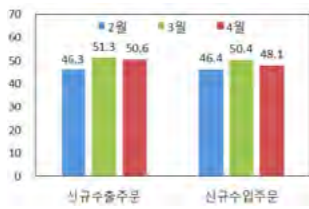
- 생산지수(공급으로 해석가능)가 신규주문지수(수요로 해석가능)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양 지수간 차이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
- * (23.1월) 2.3 → (2월) 0.8 → (3월) -0.8 → (4월) 1.8
- 신규수출주문(3월 51.3 → 4월 50.6)과 수입(50.4 → 48.1)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

생산 및 신규주문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수출입 관련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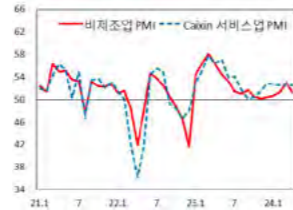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비제조업 PMI) 4월 비제조업 PMI는 51.2로 3월(53.0)보다 하락
- 서비스업(3월 52.4 → 4월 50.3)은 청명절 연휴로 인해 교통·운송, 문화·오락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월보다 하락
- * 매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부동산경기지수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경기는 올해 들어 사상 최저치를 경신: (24.1월) 92.39 → (2월) 92.12 → (3월) 92.07 [이전 최저치는 15.5월 92.43]
- 건설업(56.2 → 56.3)은 주택건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설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월보다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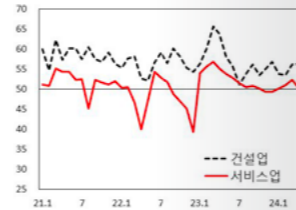
폭 상승

비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종합 PMI) 4월 종합 PMI(51.7)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낮아짐에 따라 전월(52.7)보다 하락

2. 시장평가 및 전망

- 4월 PM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제조업이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지속(국가통계국, 中信证券)
- 제조업의 경우 신규주문이 전월보다 둔화되었지만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였고, 생산은 선박, 통신·전자 장비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지속
- 한편 비제조업은 청명절 연휴* 등으로 서비스 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부동산 부진의 영향이 관련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크게 나타나면서 개선세가 전월에 비해 둔화
- * 청명절 기간중(4.4~6일) 중국내 관광객수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5% 증가(문화여유부)
- 향후 중국경제는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부동산 시장 반등 및 내구재 소비 개선 여부가 성장세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과잉 지속에 따른 업계 수익성 저하 등이 산업 내 주요 불안요인으로 잠재
- 중국정부는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는 한편,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공공인프라·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 가속화** 등을 통해 내수개선에 주력할 전망
- * 상무부·재정부는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로 교체시 보조금(7천위안~1만위안)을 지급하기로 결정(4.26일)
- **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의 조속한

발행 및 활용, 지급준비율 등 주요 통화정책 수단의 유연한 활용, 신산업 생산성 제고 등을 강조(4.30일)

- 한편 가계수요가 관광, 외식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 하락·고용 부진 장기화 등으로 고가의 내구재(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가 빠르게 개선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中金公司)
- 또한 철강, 시멘트,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산, 가동을 조정, 가격할인을 통한 재고 축소 등이 진행 중인데, 이와 같은 경영행태가 장기화될 경우 업계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은 중국 내 공급과잉이 가장 심한 산업은 철강, 시멘트, 건설기계 관련 분야이며, 금년중 중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설비가동률과 수익성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24.4월)

- 아울러 과잉생산을 둘러싼 미국·EU 등의 對中 견제도 중국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申万宏源, 财信国际经济研究院)

* 최근 바이든 美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 인상을 무역대표부에 권고(4.17일)하였음. 또한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올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5.2일)

中 공산당 3중대회 7월 개최... "올해 경제 정책방향은"

출처_ 아시아경제/김현정 기자 (2024.4.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대회)가 오는 7월 열린다. 당은 3중대회를 통해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동산 침체와 수요

부족 등 최근 직면한 리스크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월에 3중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주요 의제에 대해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3중대회는 지도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다. 과거 덩샤오핑 국가주석이 1978년 3중대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고, 시 주석도 취임 첫해인 2013년 이 행사에서 시장 중심 개혁 정책들을 발표했다.

당초 관례대로라면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 후인 지난해 10~11월에 열렸어야 했지만, 결국 해를 넘긴 뒤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고도 4개월가량이 지난 뒤에야 개최하게 됐다. 3중대회가 당대회 이듬해 열리지 않은 것은 1984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 사업 분석과 '창장 삼각주 통합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해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이 검토됐다. 상하이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중국의 '고품질 발전' 방향과 접목하는 게 골자다.

신화통신은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며, 많은 핵심 분야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경제 순환도 원활하지 않고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분명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소진에 3년?" 中 택지공급 사실상 중단

출처_ 아주경제/배인선 기자 (2024.5.2)

- 재고처리 36개월 이상...택지 공급 중단
- 18개월 이상 도시는 택지 공급 상한선
- 주요도시 100곳 중 78곳 영향 받을 듯
- 장기 불황에...베이징도 13년만에 규제 완화

중국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

국 당국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신규 택지 공급을 제한해 집을 새로 못 짓게 하는 등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에 나섰다. 대신 도시 재개발이나 서민주택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은 적극 늘리는 등 주택공급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국 주요 도시 80%... 택지 공급 중단 혹은 통제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자연자원부는 미분양 주택 재고 정리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도시에 대해 신규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18~36개월 이내인 도시에 대해선 현지 부동산 상황에 맞게 택지 신규 공급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대신 서민용 주택인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 건설과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치방(安置房)’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자연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최근 중국 부동산 불황 속 택지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재고 주기가 길고, 토지 경매 유찰율이 높은 수요가 부진한 도시에선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으로 사실상 중국 내 주요 도시의 80%에서 신규 택지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연구소인 이취연구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소진 주기가 36개월 이상인 도시가 41곳, 18개월 이상인 도시가 78곳에 달했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각각 18곳, 59곳이었는데, 1년여 사이에 대폭 급증한 것이다.

재고 처리 주기가 36개월 이상인 도시에는 우한, 푸저

우 같은 성도(省都, 성급 정부 소재지)도 포함돼 있으며, 광둥성 샤오관, 칭하이성 시닝, 저장성 저우산은 미분양 주택 소진 주기가 각각 무려 153.5개월, 113.3개월, 98.6개월에 달하기도 했다.

그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넘쳐 난다. 이취연구원은 3월말 기준 전국 주요 100개 도시 미분양 주택 면적을 4억9916만㎡로 집계했다. 이들 미분양 주택이 소진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른바 재고 소진 주기는 25.3개월이다. 이취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주택의 합리적인 재고 소진 주기는 12~14개월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대다수 지방정부는 택지 공급 계획을 사실상 축소할 상태다. 중국부동산정보회사 CRIC에 따르면 올해 411개 도시가 계획한 택지 공급면적은 1만8300헥타르(ha)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수준이다.

수요 진작 주력... 베이징도 13년만에 구매 제한 완화

중국 정부는 현재 미분양 주택이 넘쳐 나는 이유가 부동산 업체의 주택 공급량이 많기보다는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30개가 넘는 지방 도시가 주택구매 제한령을 부분 혹은 전부 해제했고, 낡고 작은 주택을 팔아 신규 주택을 사면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등 이른바 ‘이구환신(以舊換新)’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시 정부도 수요 진작을 위해 13년간 이어왔던 주택구매 제한령을 일부 완화했다.

베이징시는 2011년부터 강도높은 주택구매 제한령을 시행해 베이징시 후커우(호적)를 가진 기존 가구 주택 보유량을 2채 이내로, 베이징시 후커우를 보유한 1인 가구는 1채 이내로 제한했다. 베이징에 집이 없고 5년 이상 베이징시에서 사회 보험이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저녁 베이징시 정부는 기존의 2주택 보유자도 도시 외곽 5환 밖 신규 혹은 중고 주택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천원징 중국지수연구원 시장연구총감은 차이신을 통해 “이번 정책이 베이징에 이미 집을 보유한 주민들의 추가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수년간 베이징의 5환(베이징시 중심부와 외곽 간 경계가 되

는 도로) 밖 신규 주택 거래가 전체 베이징시 주택 매매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정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으로,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장기 불황으로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이 반토막 난 상태이다.

1일 CRIC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회사의 매출은 3121억7000만 위안(약 5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9%,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9% 감소했다. 월간 실적 규모만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1조914억1000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6.8% 줄었다.

중국정부의 이구환신(以旧換新)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

출처_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24.5.6)

정책 도입 배경

□ 중국정부는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4년 양회에서 차례로 노후화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를 새로운 설비와 제품으로 교체하여 신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이구환신(以旧換新) 정책을 발표

* <참고>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제품 교체 정책 도입 경과」 참조

● 과거 시행*했던 이구환신 정책이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번에는 소비 및 투자 확대

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

* 2009.6월 처음 도입한 이후 가전하향(家电下乡, 가전제품 농촌 보급), 자동차하향(汽车下乡), 이구환재(以旧换再)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실시

- 단순히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색 저탄소, 스마트 지능화, 정보화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설비 구입 시 각각 보조금과 투자 세액환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차별화 시도

● 또한 동 정책을 통해 ①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②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新质生产力)*을 고취하며, ③산업공급망의 최적화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④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

* 시진핑 주석이 23.9월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시찰시 처음 언급하였으며 경제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중요시하며, 종전 자원과 저비용 노동력 등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에서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포

주요 내용

□ (설비 교체 사업) 공업, 농업,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교체주기에 기반하여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전통 산업(석유화학, 화공업, 건축자재, 전력, 기계, 항공선박, 전기전자 등)의 중점 생산설비, 에너지 사용설비, 발전·배전설비 등의 개선과 기술 개조에 부합

* 1982년말~91년초, 91년중반~2002년초, 02년중반~09년중반, 09년말~16.9월 등 개혁 개방이후 총 4차례의 장비 교체주기가 진행

대규모 설비 갱신 추진 및 소비제품 교체 방안(24.3월)의 주요 내용

부문	정책목표	현재 수준	목표 수준	잠재성장률
▶중점분야설비투자규모	전년대비 25%이상 성장	6조 3000억위안	7조 8000억위안	5.7%
▶중점 업종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	에너지 효율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 수준에 도달	-	-	-
▶환경보호성과 A급에 도달한 생산 능력의 비율	대폭 증가	-	-	-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의 디지털 연구개발 설계 장비 보급률	90% 이상	76.9%	90% 이상	연평균 2.6%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핵심공정 수치 제어율	75% 이상	69.2%	75% 이상	연평균 3.2%
▶폐차 회수량	전년대비 약 2배 증가	399만 1000대	798만 2000대	18.9%
▶중고차 거래량	전년대비 약 45% 증가	1481만 3000대	2670만대	9.7%
▶폐가전제품 회수량	전년대비 약 30% 증가	450만톤	585만톤	6.8%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 2023년 기준 중국의 공업, 농업 등 중요 산업의 설비 투자 규모는 4.9조 위안으로,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설비 교체 수요는 연간 5조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기중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범용기계장비뿐만 아니라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기초 R&D 장비의 국산화 대체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이번 설비 교체 등으로 국내 장비제조업체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

□ (소비재 구매 사업)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소비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친환경스마트 가전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폐가전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2023년 기준 민간 자가용 보유량은 3.4억대(전기차 0.2억대, 6.1% 점유율)이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보유량은 30억대를 상회한 가운데 자동차, 가전 등에서 1조위안 규모의 소비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관련 부품공급업체, 물류서비스업체, A/S업체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며, 폐기되는 물품과 생산설비의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순환시스템을 마련하여 폐기 중고물품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

현지 평가

□ 시장참가자들은 이구환신 정책이 내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설비나 장비의 세대교체를 추진하여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최종 생산재의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기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 기업경영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기업이 설비갱신을 위한 투자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

□ 인민은행은 향후에도 첨단제조업, 녹색발전 등 국민경제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지난 4.7일 중소기업의 장비·설비 개보수 관련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5,000억위안 규모의 특별재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발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균형하에 이구환신 정책의 소요 예산을 비례적으로 분담할 필요

- 과거 사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지방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경우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음

中 메가시티 ‘징진지’ 추진 10년... ‘사통팔달’ 공항 중심으로 산업 육성 박차

출처_ 조선비즈/이윤정 기자 (2024.5.2)

- 베이징·톈진·허베이 ‘징진지’ 정책 10년
- ‘사통팔달’ 다싱공항 중심 경제구 설치
- 물류·서비스·첨단기술 특화 혜택 제공
- 지역 경제 2배 성장... 코로나에 주춤

지난 29일 오전, 베이징 다싱국제공항 종합보세구역 입구. 14차선에 걸쳐있는 붉은색의 거대한 게이트가 반기는 이곳은 중국 내 유일한 성(省)급 행정구역 경계선에 세워진 특별 세관 구역이다.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걸쳐 형성돼 있는데, 면적이 여의도(2.9km²)의 1.5배인 4.35km²에 달한다. 관계자는 “이곳은 중국이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며 “베이징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모두 누리는 동시에, 허베이의 저렴한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일석 이조”라고 말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검사와 제조, 가공,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다싱 종합보세구역은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산업 발전의 핵심 축이다. 먼저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겐 파격적으로 간소화한 통관 모델을 제공하며 배송 속도를 크게 높여줬다. 이에 올해 이곳을 통과해 나가는 전자상거래 화물만 1만5000톤(t), 그 가치는 50억위안(약 9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는 “여기에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업에겐 수입 가능한 원료와 기기 품목을 크게 열어줘 공급망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기업 입주 수요가 매우 큰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표 메가시티 프로젝트인 ‘징진지 일체화’ 정책이 추진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세 지역을 다 합하면 한국 전체 국토 면적의 2배가 넘는

중국시장 주간뉴스

제 880호 (2024.4.26.)

KOTRA NEWSLETTER



경제·무역

2024년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 동향 및 전망

밀키트 재료, 전처리 과정, 저장 및 길림성은 경기 부양책 효과로 6.3% 성장해 중국 / 전체 GDP 성장률(5.2%) 상회, 2023년 중국 리오프닝 이후 빠른 회복세 실현 / 길림성 수출 17.9% 증가, 소비재 소매총액 9% 성장으로 수출과 소비의 기여도 증가 추세 / 2024년에는 차량 생산 및 판매 증가, 소비 활성화, 수출 증가 등이 지속되어 경제성장 목표 6% 달성 전망 [창춘 04-24]

중국 산시성(陝西省) 대외 교역 현황 및 전망

2024년 한국-산시성 교역현황 및 주요품목 [시안 04-23]

투자진출

2023년 중국의 TOP10 유니콘 기업은?

글로벌 TOP10 유니콘 기업 중 중국 기업 4곳 이름 올려 [시안 03-22]

트렌드

중국 차 음료 판매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주요 업체 직영점 운영에서 가맹점 운영 확대로 시장 점유율 확보 총력 / 2024년에는 중국 전체 차 음료 판매 매장 수 6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상하이 04-22]

중국 최초의 대형 크루즈선과 주요 수입 의존 품목

코로나 이후, 세계 크루즈선 관광객 상승세 / 중국 첫 크루즈선 출항, 항구 크루즈선 건조 확대 및 해외 부품 수요 기대 [다롄 04-22]

중국, 자동차 액세서리 시장이 호황인 이유는?

2023년 승용차 판매량 전년 대비 5% 확대, 차량용 액세서리 시장 성장세 뚜렷 / 고급화 추세 이어지는 디퓨저, 페인트 보호 필름, 유아 카시트 등에 주목해야 [톈진 04-22]

중국 실리콘 공급망 동향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본 중국 실리콘 공급망 [시안 04-24]

중국 틱톡물 식음료 트렌드 분석

틱톡물, 티몰에 이어 2023년 중국 식음료 판매량 2위 기록 / 신흥브랜드 진출 유리... 2024년 과일야채주스·제로칼로리 음료 등 유망 [선전 04-25]

상품 DB

중국 헤이룽장성 CNC 공작기계 시장동향

[하얼빈 04-23]

중국 유기 실리콘 시장동향

중국 유기 실리콘 제품, 수입품에서 국산 제품으로 대체

중 / 상당수 유기 실리콘 제조 공장은 화동과 화남 지역에 집중돼 [상하이 04-23]

중국 합성수지 시장동향

코로나 시기 이후 시장 주춤 / 한국은 중국의 합성수지 주요 수입국 [다롄 04-25]

중국 유량밸브 시장동향

정밀화학산업의 밸브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량 밸브 시장 규모도 성장세 / 중국의 유량밸브 수입의존도 60% 수준...한국은 중국의 4위 수입국 [톈진 04-26]

현장·인터뷰

2024 타이베이 국제 건강·채식 전시회 참관기

2023년 기준 대만 채식인구 비율 14%에 달해 / 코로나 이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타이베이 04-22]

기고

[기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사기 대응 가이드

[칭다오 04-25]

단신·속보

- 중국승용차협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상승세 지속 둔화 전망 [베이징 04-22]
- 1분기 중국 외자유치 전년 동기 대비 26.1% ↓ [베이징 04-22]
- 中 상무부,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반덤핑 예비판정 확정 [베이징 04-22]
- 테슬라, 중국 시장 내 가격 인하 [베이징 04-22]
- 라오닝성 1분기 수출입 총액 전년 동기 대비 7.4% 하락 [선양 04-23]
- 라오닝성 24년 1분기 GDP 5.4% 성장 [선양 04-23]



Kotra BizNews
큐알코드



구독신청 및 거부
jh.jin@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다싱공항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임공경제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비스보장구, 항공 물류구, 과학기술혁신구./중국 다싱국제항공임공경제구연구관리위원회 제공

22만km²에 달하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 교통망을 확대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업을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정체된 이곳 지역 발전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 네트워크 일체화 부문에서는 다싱 공항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은 포화 상태에 달한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수요를 분산하고, 징진지 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 다싱 공항을 열었다. 허베이 승안신구까지 19분, 베이징 서역까지 28분, 텐진까지 38분 소요돼 징진지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다싱 공항 관계자는 “현재 연간 7200만명의 승객과 200만톤(t)의 화물, 62만회의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는데, 2040년까지 이를 승객 1억명, 화물 400만t, 비행기 이착륙 88만회까지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뿐만 아니라 육로 교통 역시 세 지역은 1~1.5시간 교통권을 형성했다는 것이 중국 측 설명이다.

다싱 공항을 기점으로 중국은 세 지역 간 산업 연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항 근처에 항공물류 중심의 종합보세구·자유무역시범구와 서비스 산업 중심의 자유무역시범구를 두고 관련 기업을 한 데 모으는 것이다. 여기에 첨단 기술혁신구를 추가, 세 곳을 ‘임공(臨空)경제구(공항 인프라이에 인접·집적된 관련 산업 경제구역)’로 묶었다. 관계자는 “입주 기업들은 세 혜택은 물론 정책 보조금, 금융 지원, 토지 등 인프라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말까지 임공경제구에 투입된 자금만 1814억위안이고, 이곳에서 나온 세수는 35억7500만위안”이라고 밝혔다. 임공경제구 입주 기업은 1만개에 달하고, 해당 지역 기술 계약 거래액은 2800억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제 종합보세구에 입주해 있는 중국 최대 와인 기업 간거래(B2B) 플랫폼 와주그룹은 징진지 일체화 정책 덕에 공급망이 크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와주그룹 관계

자는 “3만6000m² 규모인 이 창고에 500만병 정도가 보관돼 있다”며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주류 업체와 협력하고 있고, 신속한 통관 처리를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주그룹은 같은 곳에 입주해 있는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그룹과 협업을 통해 소매 판매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 발전으로 징진지의 현재 경제 규모는 10년 전보다 1.9배 성장한 10조4000억위안까지 불어났다. 다만 최근 발전 속도가

이전만 같지 못하다는 것은 중국 측도 인정하고 있다. 다싱 종합보세구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이곳의 발전은 실제로 느려졌다”면서도 “다만 봉쇄 종료 이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이곳에 입주하거나, 통관 검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



중국 지방정부와 국내 지방정부의 교류를 적극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大韓民國市道知事協議會 中國事務所

중국시장 주간뉴스

제 881호 (2024.5.10.)

KOTRA NEWSLETTER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홍콩 식기류 환경보호책임(개정)조례 발표 영향 분석
[홍콩 05-02]

경제·무역

2024 상하이 경제 전망 및 주요 정책

상하이 2024년 GDP 성장률 목표치 5% / '5대 센터' 건설, 핵심 첨단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상하이 05-07]

중국 광둥성 2023년 경제성적표

광둥성, 중국 성시 중 35년 연속 GDP 1위 기록 [광저우 05-07]

트렌드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는 이너뷰티 산업 발전 동향

중국 이너뷰티 산업 급속 발전, 소비자 연령대는 낮아지는 추세 / 중국 이너뷰티 매출에 콘텐츠 전자상거래 기여도 점차 증가 [난징 04-30]

향기로 개성을 표현하는 중국 '후각경제' 시장

향수·디퓨저 등 향기 나는 제품을 통칭하는 '후각경제' 시장 / 제품 다양화 및 IT 기술 접목이 확대되면서 신시장 창출 [광저우 04-30]

중국 의료기기 교역 분석 및 전망

미국·독일·일본, 중국의 3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 재활의료기기 시장은 기술 혁신 필요 [정저우 04-30]

중국에서 불기 시작하는 한국 캐릭터 열풍

잔망루피, 말티즈&리트리버 등 한국 캐릭터의 인기 점점 높아지는 중 / SNS 이모티콘, 소비재 및 요식업 브랜드와의 콜라보 등 활발한 마케팅 진행 [텐진 05-02]

착한 화장품 찾는 소비자, 성장하는 中 더마코스메틱 시장

민감성 피부 타입 소비자 늘면서 안전한 화장품 선호 / 고기능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해지는 수요에 대응해야 [항저우 05-07]

상품 DB

홍콩 제습기 시장 동향

2023년 제습기 시장 규모 1165만 미 달러로 2028년까지 1299만 미 달러로 성장할 전망 / 덥고 습한 홍콩에서 일년 내내 사용되는 필수 가전, 대용량의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습기가 주목받아 [홍콩 05-07]

홍콩 포장재 시장 동향

2023년 홍콩 포장재 시장 규모는 7억 2100만 미 달러로 식음료 포장재가 90%를 차지 / 다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포장재 등이 주목받을 전망 [홍콩 04-30]

중국 치즈 시장 동향

외식문화·요식업 중심의 수요 증가 / 가정소비 맞춤형 치즈제품 등 기획 필요 [광저우 04-30]

중국 스마트 도어락 시장동향

한국, 중국의 스마트 도어락 주요 수입국(지역 등) 중 11위로 2년 연속 하락 / 중국 스마트 도어락 시장, 도어스코프, 지정맥 인식, 손바닥 정맥 인식 등 기술 경쟁 치열 [선전 05-07]

중국 소주 시장동향

2023년 시장 규모 16.5% 증가 / 나라별 수입액 순위 중 한국은 4위 [항저우 05-08]

현장·인터뷰

현직자와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생생한 중국 취업 노하우
상하이무역관 지난 20일 '2024 상하이 취업 멘토링 데이' 개최 / 현지 유학생을 포함한 취업 준비생 약 70명 참석해 뜨거운 관심 보여 / 성공적인 현지 취업을 위해선 중국어 능력은 기본,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상하이 05-03]

중국 이도면세 시장을 주목하라, 제 4회 소비재박람회 현장 참관기

프리미엄 소비재 브랜드 참가가 확대되며 성황리 개최 / 중국 소비 트렌드 및 이도면세시장 분석으로 프리미엄 시장공략 필수 [광저우 05-03]

제 135회 중국 춘계 캔텐페어 1기 현장 참관기

엔데믹 이후, 글로벌 종합 전시 플랫폼의 명성 회복 [광저우 05-03]

전문가들이 전하는 2024 중국 경제 산업 분석, 그리고 진출기업이 주목할 현지 경영 인사이트

2024년 중국 1분기 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향후 경기 전망 분석 / 중국 핵심 산업 발전 전략과 '삼두마차'를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 방안 제언 / 중국 최신 인증 제도 소개부터 현지 뷰티 및 건강식품 시장 트렌드 분석까지 [상하이 05-07]



Kotra BizNews
큐알코드



구독신청 및 거부
jh.jin@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